301.32
한14ㅎ
v.4-1
c2

1990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4-1)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태헌(한국교원대학교)
홍문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 계 청

통계청도서실
접
1994. 1. 14
수
C47797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의견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것이며 통계청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199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한 「1990 인구주택 총조사」자료의 심층 분석결과를 수록한 것으로서 조사기획, 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그리고 22권의 결과 보고서 발간에 이르는 5년간의 방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모든 국가에서 국가의 정책수립에는 물론 국민생활 전 분야에 걸쳐 이용되고 있는 국가 기본통계로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통계수치의 제공에 국한되어 왔으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된 결과에 대한 이용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통계청에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당면 문제에 관한 4개 분야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주제별 보고서에 각각 수록·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주제별 보고서 중 1권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을 파악하고 이 변동이 인구노령화, 고용,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적정인구 규모 및 구조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2권에서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인구과밀 그리고 농촌의 인구 과소 등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들 지역간 불균형 분포를 초래한 원인과 그 결과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총체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산업화와 서구화에 따른 전통적 가치관 붕괴로 인하여 핵가족화와 탈가족화로 상징되는 우리 나라 가족의 분화 현상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분화 가속화로 나타나는 노인가구 및 결손가족 증가 등 사회병리적 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권에서는 가구원수 감소와 가구수의 증가에 따른 주택수의 절대적 부족문제와 주택의 주거밀도, 노후화, 부대시설 상태 등 주거환경을 가구 유형, 그리고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제 요인과 연관시켜 우리 나라 주택의 양적·질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동안 각 연구주제에 대하여 바쁘신 중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훌륭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내 주신 연구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 나라의 인구, 가구(가족) 및 주택과 관련된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1990 인구주택 총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3년 12월

통 계 청 장

민 태 형

차 례

Ⅰ. 서 론 1

Ⅱ. 인구규모의 추이 및 장래인구전망 5
1. 인구규모의 추이 (1960-1990) 5
2. 장래인구 전망 (1990-2021) 20

Ⅲ. 인구구조의 양상과 그 변동 30
1. 성·연령 30
2. 혼인 상태 38
3. 교육 정도 45
4. 직업·산업 50

Ⅳ. 인구현상의 변화가 사회·경제현상에 미치는 영향 60
1. 인구노령화와 사회보장부담 60
2. 출산수준의 감소와 신규생산연령 인구 69
3.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 75
4. 차별출산력과 인구의 질 85
5. 인구구조의 변화와 결혼 91

Ⅴ. 인구현상의 변화와 「0」성장인구 96
1. 인구현상의 변화요인과 문제 96
2. 적정인구로서의 「0」성장인구 104
3. 「0」성장에 접근하는 인구의 추계 및 논의 112

Ⅵ. 요약 및 결론 ····· 126
1. 요약 ····· 126
2. 결론 : 인구정책의 방향 ····· 133

< 참고문헌 > ····· 139

< 부 록 > ····· 147

Ⅰ. 서 론

1960년에 약 3%씩 증가하던 우리 나라의 인구는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수행으로 인구증가의 감소는 계속되었으며, 이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속화되어 1980년대 후반에는 1%증가에 그쳤다. 1981년 당시 수립된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목표는 인구증가율을 1985년 연 1.53%, 2000년대에 연 1%, 그리고 2050년에 최대인구 61백만 명에서 제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었으나, 출산수준의 급속한 감소로 1985년에 계획인구 증가율을 훨씬 하회하는 1.25%를 기록하였다. 또한 1986년에 수정하여 제 6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한 목표 인구증가율은 연 1%증가 수준을 1993년에 달성하고, 2023년에 최대 인구 52.7백만 명에서 제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출산수준의 감소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서 인구증가율은 1988년에 1%에 도달하였으며, 제 7차 5개년 계획을 위한 기초인구인 1990년의 인구성장률이 0.93%이었으며, 2021년에 총인구 50.6백만 명에서 성장률이 「0」%에 도달하는 것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조사통계국, 1981 및 1986; 통계청, 1991a 참조).

이와 같이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지니고 있는 인구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잉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일한 것이 출산억제이며, 출산수준이 충분히 낮아진 점을 감안하여 출산억제정책을 완화시킬 때 즉각적인 출산수준의 반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홍문식 외, 1991: 171-209). 1990년 7월 1일 현재 우리 나라의 인구밀도는 1Km^{2}에 432명으로 소규모(도시 또는 섬)국가들을 제외하면 방글라데시(803명)와 대만(559명)에 이어 3위이다. 또한 경지면적 1Km^{2}에 1,940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일본(2,286명)과 이집트(1,982명)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 (통계청, 1991a: 6). 우리 나

라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국가 중의 하나이면서 1990년 현재에도 1년에 약 40만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구의 증가는 경제·사회적인 부담으로 바로 이어진다. 식량 자급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문제, 환경문제의 심화 등은 인구규모가 크기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또한 과거에는 젊은 연령층(55 또는 60세 이전)의 남자가 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였으나 최근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평균수명 상승에 따라 퇴임후의 노인노동력 재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1960년 전후 「베이비 붐」 때에 태어난 아이들이 30세 전후에 도달하여 생산연령인구 자체가 크게 늘어난 시기와 겹치게 되므로 부분적으로 노동력 과잉공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규모의 비대에 따른 인구과잉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이주를 들 수 있으나 1970년경부터 1980년대 초까지 매년 3-4만명을 유지하던 순 해외 이주자수가 1990년경에는 2만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1991a: 22). 이민 상대국(수민국)의 이민자수에 대한 제한이나 선별 이민허가, 국내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재입국(return migration) 이민자수의 증대로 앞으로 순 이민자수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 (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52-53). 또한, 우리 나라의 출산력 변천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출산억제정책이 완화될 경우, 즉각적인 출산수준의 증가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아직까지도 출산력의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출산활동으로 전환할 경우, 출산수준이 높은 계층(예, 생활수준이 낮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이것은 「인구의 질」을 낮출 수도 있다 (제4장 참조).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출산억제정책을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인구정책의 기본구상이다 (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33-42; 대한민국 정부, 1992: 28 참조).

급속한 출산수준의 감소와 이 현상의 지속은 인구압박을 완화시켜주고,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약속하는 등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이 성공한 예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현상의 변화는 사회 모든 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욱이 남아 선호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인구성장의 둔화속도가 빠를수록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심하면 연령계층별 단절현상까지도 유발하게 된다 (Freedman, 1986: 81; Weeks, 1986: 233-240). 동시에 출산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장래 사회의 유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출산수준의 급속한 감소와 남아선호에 따른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문제의 예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아수의 급속한 감소는 장차(10-20년 이내) 신규노동력의 감소로 나타나서 노동력의 공급부족 현상까지도 우려하게 된다. 또한 비대한 생산연령계층의 노령화와 신규생산 연령층의 감소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둘째, 출생아수가 급속히 늘어나거나 반대로 감소할 때에는 결혼적령기의 성비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출산력의 감소는 결혼적령기의 성비를 높여주고, 남아선호 경향이 강할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셋째, 출산수준의 감소속도는 부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수준이 빨리 낮아지고, 반대의 경우 감소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출산수준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될 때에는 계층별 출산수준의 차이가 커지므로 인구의 평균자질이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강한 남아 선호관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급속한 출산수준의 감소에 따른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불균형 상태를 파악(제2장 및 제3장)하고, 이러한 인구현상의 변화가 사회·경제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증가 억제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인구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제4장)할 것이다.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과잉인구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적정인구로서의 「0」성장인구를 추계하고 그 특징을 논의(제5장)하므로써 우리 나라 장기인구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구현상의 분석과 「0」성장인구의 추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각의 주제를 분석하기 전에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를 위하여 이용한 주 자료는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연도별 출생 및 사망신고 자료였다. 이미 공표된 자료들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인구현상의 변화가 사회·경제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자료를 직접 이용하였다.

끝으로 「0」성장인구의 추계을 위하여 "PEOPLE, Version 3.0"을 이용하였다.

II. 인구규모의 추이 및 장래인구 전망

1. 인구규모의 추이, 1960-1990

가. 인구규모

인구성장은 한 사회의 출생과 사망의 수준 및 인구이동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인구현상의 변화는 사회·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장래의 인구양상을 결정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의료 및 보건제도의 도입으로 사망률의 감소가 시작되면서 우리 나라의 인구변화가 시작되었다. 1910 - 1945년의 35년간에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연평균 2%인 빠른 인구증가가 이루어졌다. 1945년부터 1955년까지는 독립, 정부수립, 한국동란 등으로 사회의 혼란기를 맞아 출생, 사망, 이동 등의 인구현상은 불규칙적인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1955년 이후에는 전쟁후의 '결혼 붐'과 부부의 재결합 등으로 '베이비 붐' 현상이 나타났다. 1955년에 21,526천명이던 인구가 갑자기 높아진 출생률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율은 급속히 높아져서 1960년에 연간 3.0%에 이르렀으며, 총인구는 5년 전에 비하여 약 350만명이 늘어나서 25,012천명이 되었다(<표 2-1> 참조). 이 때의 합계출산율은 사상최고인 6.0명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자연출산력과 불과 2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높은 출산수준이었으며, 사망률은 보건·의료시설의 확충과 전염병예방 등 보건정책의 정착화로 남·여 평균수명이 55세를 넘었다.

1960년대 이후의 인구현상은 1962년부터 실시된 인구증가억제정책 (가족계획사업 등)의 실시와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으로 출생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1960년대의 인구변천은 과거 극단적인 빈곤상태에서 누적된

인구압박을 출산억제정책인 가족계획사업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농촌의 인구압박은 도시로의 이동으로 나타났으나 도시의 인구압박은 가족계획의 수용으로 출산수준이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임실천이 도시로부터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권태환·김두섭, 1990: 230-231). 연간 인구증가율은 1960년에 3.0%이던 것이 10년 후인 1970년에는 2.0%까지 떨어졌다.

<표 2-1> 주요인구지표 (I), 1960-1990

	1960	1970	1980	1990
총인구 (천명)	25,012	32,241	38,124	42,869
출생률 (천명당)	42.1	29.9	23.4	15.6
사망률 (천명당)	12.1	9.4	6.7	5.8
자연증가율 (%)	3.00	2.04	1.67	0.98
이민율 (천명당)	-	0.4	1.0	0.5
인구성장률 (%)	3.00	2.00	1.57	0.93
인구밀도 (명/km^2)	254	328	385	432
합계출산력 (명)	6.0	4.5	2.7	1.63
평균수명 (남·여평균,년)	55.3	63.2	65.8	71.3
평균연령 (세)	-	23.6	26.0	29.5

자료: 통계청, 1991a: 29.

이때의 합계출산율은 4.5명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25%나 감소되었으며, 사망률은 계속 낮아져서 남·여 평균 수명이 63.2세나 되어 인구증가속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970년의 인구는 3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 (매년 2% 이상)을 기록한 1955년 이후 15년 동안에 약 1천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1960년

대 10년 동안에만 723만명이 순수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1960년도의 인구가 10년 동안에 약 30%나 증가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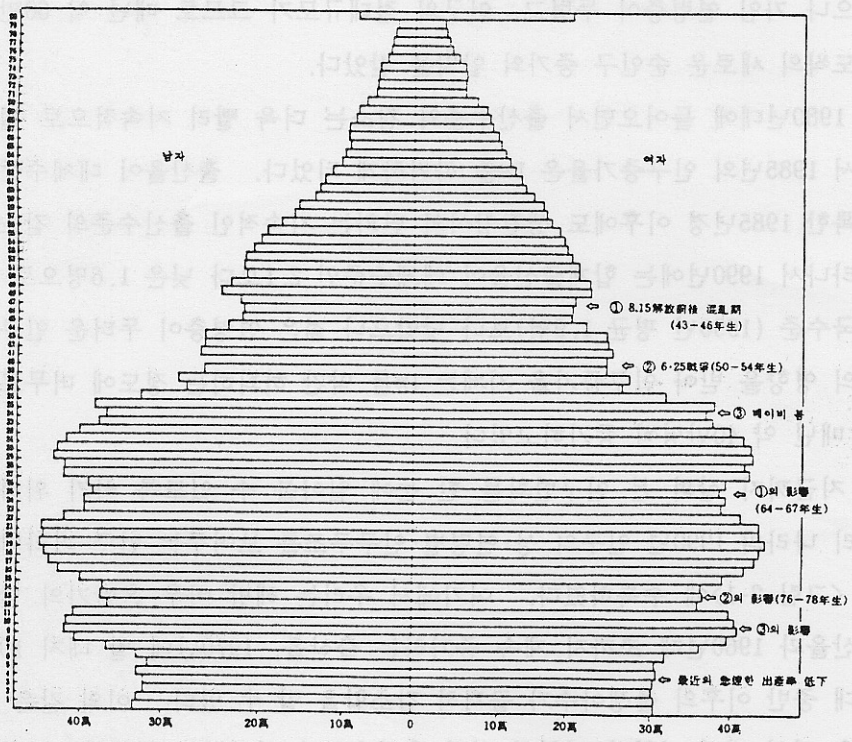
1970년대부터는 인구현상이 사회·경제적 변동의 영향을 더욱 뚜렷하게 받고 있다. 즉, 산업시설확충에 따른 취업기회의 증대, 도시로의 이동, 자녀교육비의 증대, 여가활동욕구의 점증 등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피임방법의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피임의 실천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에 합계출산율이 2.7명이 되었다. 1980년도의 인구성장률은 1.57%를 기록하였으며, 인구규모는 38,124천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6백만 명이 증가하였다. 출산수준이 감소하고 인구증가속도는 둔화되었으나 가임 연령층이 두텁고, 인구의 절대규모가 크므로 매년 약 60만명 정도씩의 새로운 순인구 증가의 압박을 받았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수준의 감소는 더욱 빨리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1985년의 인구증가율은 1%를 하회하게 되었다. 출산율이 대체수준을 기록한 1985년경 이후에도 생활양식의 변화는 지속적인 출산수준의 감소로 나타나서 199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인 2.1보다 낮은 1.6명으로 선진국수준 (1990년 평균 1.9명)보다 낮았으나 젊은 연령층이 두터운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아 인구증가율 자체는 1%를 약간 하회하는 정도에 머무르면서 매년 약 40만명씩 증가하고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인구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1990년 인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보여주는 인구 피라미드를 <그림 2-1>에 수록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 이후 혼란기의 낮은 출산율과 1960년대 초까지 계속 증가하는 출산율, 1970년대 말 내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생아수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출산수준이 달라지고 있지만, 가임연령층, 특히 20대 여자인구의 규모에 따라 출생아수가 결정된다는 것도 분

명히 나타나 있다. 최근의 급속한 출산수준의 감소가 '베이비 붐' 이후 출산율이 비교적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여자들 (출생 코호트의 규모가 큰 집단)에게서 나타났으므로 합계 출산율은 극히 낮아졌지만 매년 1%에 가까운 인구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출생아수의 절대규모가 감소할 때 태어난 여자들이 출산할 때인 2000년 경부터 출생아수의 규모가 더욱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 1990년 우리나라의 인구 Pyramid



자료: 통계청, 1991a: 8.

나. 출산력

한 사회의 출산율은 인구의 성·연령별 구조와 혼인연령 및 유배우율의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의 출산수준과 그 사회의 성·연령별 인구구조와 혼인의 특성에 따라 한 사회의 출산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출산수준을 측정하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별 출산율을 계산한다. 연령별 출산수준이 평균출산수준을 결정하므로, 출산력의 변천과정을 연령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김태헌, 1990a:75).

<표 2-2> 연령별 출산율(여자 천명당)과 합계출산율 (15-49세 여자1명당)의 추이, 1960-1990.

연령	1960[1)]	1968[2)]	1976[1)]	1984[3)]	1990[4)]
15-19	37	7	10	7	4
20-24	238	146	147	162	84
25-29	330	301	275	187	184
30-34	257	201	142	52	46
35-39	196	120	49	8	7
40-44	80	65	18	1	1
45-49	14	7	1	0	0
TFR	6.0	4.2	3.2	2.1	1.6

자료: 1) Park, 1978: 113-124.
2) Koh and Smith, 1970: 39.
3) 조대희외, 1985: 31-32.
4) 통계청, 1991a: 15.

<표 2-2>는 1960년 이후 연도별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으로 자연출산력에 불과 2.0정도의 차이만을 보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4년에 출산력의 대체수준인 2.1이 되었으며, 199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으로 낮아졌다.

출산율의 감소는 전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다. 기간별로 낮은 연령층에서나 높은 연령층에서, 또는 중간연령층에서의 감소가 전체의 출산율 감소를 유도하였다. <표 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60년대에는 출산율의 감소가 35-39세와 20-24세에 의존하였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초혼연령의 상승이다. 우리 나라 출산력감소의 초기에는 피임보다 초혼연령의 상승에 의한 출산율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 나라 여자의 평균초혼연령은 1960년에 21.6세이던 것이 1975년에는 23.6세로 늦어졌으며, 20-24세의 유배우인구 구성비가 같은 기간에 64.8%에서 37.2%로 낮아졌다 (통계청, 1992a 및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참조). 한편 30대의 출산수준이 감소하는 것은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초기의 가족계획사업이 30대에 이미 원하는 자녀수만큼 출산을 한 부인을 대상으로 더 많은 출산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둔 결과이다 (김태헌, 1990a:77-90).

1968년 이후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수준의 감소는 30세 이후에서 연령별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이 때에는 이상자녀수인 3-4명을 이미 출산한 부인이 단산하는 데에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40대 연령층에까지 단산을 위한 가족계획이 확장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상자녀수는 종래의 4명에서 3명으로, 그

리고 2명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단산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1970년대 초까지 30대 이후에 출산율의 감소가 집중되었고, 출산율감소에 기여가 높은 연령층은 30대 후반에서 30대 초로 옮겨졌다. 또한 전체 출산수준이 대체수준까지 떨어질 때에는 전체의 출산력이 낮은 수준에 이미 도달되는 것이므로 출산력감소에 기여하는 연령층은 연령별 출산율 자체가 높은 연령층인 20-29세와 30-34세이므로 자연히 이들 집단의 출산력감소 폭이 커졌다. 1970년대 이후 20-24세에서의 출산율이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결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초산시기를 빠르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20대에 출산율이 집중되므로 이 연령층에서 높아진다고 하겠다.

〈표 2-3〉 출산력의 저하에 대한 연령별 기여율의 추이, 1960-1990.

(단위 : 여자인구 천명당)

연 령	1960-68	1968-76	1976-84	1984-90
TFR	6.0-4.2	4.2-3.2	3.2-2.	2.1-1.6
감소량	1.8	1.0	1.1	0.5
연령별 기여율				
15-19	8.6	-1.5	1.3	3.3
20-24	39.1	-0.5	-6.7	85.7
25-29	8.3	12.7	39.1	3.3
30-34	16.0	28.8	40.0	6.6
35-39	21.7	34.6	18.2	1.1
40-49	6.3	25.9	8.0	0.0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2-2〉 참조.

1984년 이후의 출산수준은 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연령별

출산율은 10대와 30대 후반에서는 더 이상 감소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평균 초혼연령이 25세를 넘은 1990년에는 20-24세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기대자녀수가 2명 미만이므로 출산은 25-29세에서만 주로 이루어져서 합계출산율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60년 이후 초혼연령의 상승과 초기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실천의 선별적 지원으로 20-24세와 35-39세의 출산율의 감소가 합계출산율 감소를 주도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30대 후반의 가족계획실천과 이상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단산시기가 점차 빨라져서 1980년 전후에는 25-29세 및 30-34세의 출산율 감소가 합계출산율 감소 분의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에서는 출산력이 집중되어 있는 20대에서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20-24세 출산율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고,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출산율 자체가 낮았으므로 합계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한 폭도 작았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출산수준은 1987년에 합계출산율이 1.6에 도달 (문현상외, 1989:122)하였으며, 이후 1990년까지 이 수준이 지속되었다 (통계청, 1991a:15). 선진국의 평균합계 출산율이 1990년에 1.9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독 (1.4 정도)을 제외하면 주요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1990년 합계출산율이 1.7-1.9의 범위에서 정체하고 있으며, 최근 출산수준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대만과 싱가폴에서도 1980년대 후반의 합계출산율이 1.6-1.8 수준에 도달하여 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 일본의 기혼부인의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를 비교하여 보면 출산수준이 대체수준에 도달한 1980년대에 주로 출산행위가 이루어진 우리 나라 1990년의 30-34세 연령계층까지 기혼부인의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와 일본의 1987년의 수준이 유사하였다 (통계청, 1991a:16). 우리 나라의 출산수준은 이미 선진국의 평균수준보다 낮아졌으며, 연령별 출생아수도 선진국의 유형과 비교되며, 합계출산

율 1.6의 수준이 1987년 이래 일정하게 지속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출산수준은 정부의 출산억제 또는 출산장려정책을 인구정책으로 특별히 채택하지 않는 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다. 사망력

우리 나라의 인구변천은 사망률의 감소가 시작된 1900년대에 들어 오면서 시작되었다. 1910-15년에 우리 나라의 보통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33.7이던 것이 산업화가 시작된 1960-65년에는 3분의 1 이하인 10.5로 추정하고 있다 (<표 2-4> 참조). '베이비 붐'으로 높아진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보통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10이하로 낮아지면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후에도 보통사망률은 조금씩이나마 계속 감소하여 1985년에 6.2에 도달한 후 6.0 전후에서 거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출생률은 계속 낮아져서 인구증가폭은 출생률의 감소 정도만큼씩 낮아졌다 (<표 2-1> 참조).

<표 2-4> 보통사망률(인구 천명당)의 추이, 1910-1990

연도	보통사망률	연도	보통사망률
1910-15	33.7	1970	9.8
1920-25	29.5	1975	7.3
1930-35	23.3	1980	6.7
1940-45	19.5	1985	6.2
1950-55	14.3	1990	5.8
1960-65	10.5		

자료: 1) 1910-1965; 조사통계국 추정치로서 공세권 외(1983:62)에서 인용.
2) 1970-1990; 조사통계국, 1990a: 61.

그러나 보통사망률은 인구의 성·연령별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출산율이 낮아져서 사망률이 높은 0세와 1-4세 인구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사망자 수가 감소하면 보통사망률이 낮아지지만, 연령별 사망률이 감소하여도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노인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게 되어 보통사망률은 정체하거나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최근의 사망수준의 추이를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와 우리 나라 사망유형의 변화, 그리고 평균수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성·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우리 나라 사망신고자료를 보완하여 추정한 성·연령별 사망률의 수준과 그 감소정도를 <표 2-5>에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사망신고자료의 정확성을 감안하여 5세부터 64세까지만 이용하였으며, 영아사망률은 <표 2-6>에 평균수명의 변화와 함께 수록하였다. 지금까지 사망률추정을 위하여 이용된 자료와 방법이 다양하므로 여기서는 정기적인 사망률추정을 위한 기본자료인 사망신고자료의 보완이 가능한 1970년 이후 사망수준과 유형의 변화를 김태헌(1989)과 권태환·김태헌(1990)의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다.

<표 2-5>에 따르면, 모든 연령계급별 사망률은 1971-75년에서 1981-85년에 이르는 10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였다. 1971-75년과 1976-80년, 그리고 1976-80년과 1981-85년간의 두 기간동안에 남자의 경우 젊은 연령층(5-34세 또는 5-19세)에서의 사망률감소는 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5-9세부터 30대 또는 40대(30-34세 또는 40-44세)까지 연령

<표 2-5> 연령별 추정사망률과 사망률감소추이, 1971-1985

연령	연령별 사망률(1,000명당)			사망률 감소정도(%)	
	1971-1975(a)	1976-1980(b)	1981-1985(c)	a ⇒ b	b ⇒ c
		남	자		
5- 9	2.04	1.46	0.95	28.4	34.9
10-14	1.68	1.05	0.71	37.5	32.4
15-19	2.72	2.01	1.49	26.1	25.9
20-24	3.11	2.22	1.90	28.6	14.4
25-29	3.04	2.20	2.12	27.6	3.6
30-34	3.84	2.81	2.61	26.8	7.1
35-39	4.88	4.54	3.94	7.0	13.2
40-44	7.79	7.02	7.07	9.9	-0.7
45-49	11.86	10.53	10.15	11.2	3.6
50-54	19.46	16.46	13.80	15.4	16.2
55-59	27.68	25.39	20.55	8.3	19.1
60-64	41.71	36.28	31.21	13.0	14.0
		여	자		
5- 9	2.32	1.52	1.01	34.5	33.6
10-14	1.85	1.12	0.67	39.5	40.2
15-19	2.52	1.67	1.01	33.7	39.5
20-24	3.32	1.91	1.29	42.5	32.5
25-29	3.63	1.89	1.32	47.9	30.2
30-34	4.01	2.29	1.51	42.9	34.1
35-39	4.42	2.91	2.08	34.2	29.5
40-44	5.79	3.91	3.21	32.5	17.9
45-49	7.66	5.40	4.51	29.5	16.5
50-54	10.97	7.71	6.61	29.7	14.3
55-59	14.83	11.02	9.31	25.7	15.5
60-64	22.39	16.26	14.59	27.4	10.3

주 : 연령별 사망률을 추정하는 데 이용된 기초자료는 연도별 사망신고자료와 총인구조사 결과이다. Bennett and Horiuchi (1981 및 1984)의 방법에 따라 사망신고 자료를 수정하였으며, 누락인구, 해외이주인구, 해외취업인구 등으로 센서스결과를 보정하였다 (권태환·김태헌, 1990 참조).

자료: 권태환·김태헌, 1990: 33.

계급별 사망률이 5년간에 30% 또는 40% 이상 떨어졌다. 그러나 20대 또는 30대 이상의 성인들의 사망률 감소정도는 젊은 연령층에 비하여 낮았다. 즉, 남자의 경우 10%정도, 또는 그 이하이고,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하여 감소정도가 크지만 젊은 연령층의 감소속도에 비하여 약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였다.

상대적으로 볼 때, 연령별 사망수준의 감소정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여자의 사망률감소폭이 남자보다 조금 높으나, 20세 이후에서는 그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간격도 벌어지고 있다. 남녀간의 사망률 감소정도의 차이는 25세 (또는 35세) 이상에서 매우 크다. 즉, 25세 이상 연령계급에서는 차이가 2배 이상이나 되고, 심지어 5배 이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에 올수록 더욱 커진다. 사망률 감소정도의 남녀간 차이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김태헌, 1989; T.H.Kim, 1990).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50대 이후에서는 오히려 남자의 사망률 감소정도가 여자의 경우보다 높았다. 이것은 남자의 경우, 사망률 감소속도가 느렸던 관계로 감소의 여지가 여자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연령별 사망률의 성비를 보면 1971-75년도에 5-9세와 10-14세의 소년층에서, 그리고 재생산활동이 활발하였던 20-24, 25-29 및 30-34세에서 여자사망률이 남자사망률보다 높았다. 그 후 여자의 사망률감소가 남자보다 빨리 진행되어 1976-80년에는 20-34세에서 이러한 현상이 사라졌다. 5-9세를 제외하면, 10세 이상의 모든 연령계급에서 남녀의 사망률차이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1976-80년의 경우 사망률성비가 50-54세 집단에서 '2'를 넘어선 후 55세 이상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과, 1981-85년의 경우 40-44세 이후 같은 현상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연령별 사망률의 성비는 젊은 연령층에서 꾸준히 높아지지만 그 한계는 '2.0'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영아사망률 (<표 2-6> 참조)은 1950년대 말까지 출생아수 1,000명당 100명의 영아가 첫돌 전에 사망하였으나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1960년

대 이후 영아사망률은 급속히 낮아졌다. 1970년대 상반기에 50 이하, 하반기에 40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초에 30 이하로 낮아졌던 영아사망률은 1990년에 10에 접근하여 선진국의 수준 (출생아수 1,000명당 7-10명)에 도달하였다고 하겠다.

(2) 평균수명의 변화

20세기 초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여 각각 23년과 24년이었으며, 그 후 계속 증가하여 1942년에는 남자 43년, 여자 47년으로 증가하였다 (Ishi, 1972).

<표 2-6> 성별 평균수명 및 영아사망률의 추이, 1955-1990.

연 도	평균수명 (년)		영아사망률	자 료
	남자	여자	(1000명당)	
1955-60	51.1	53.7	100.0	고갑석·김일현(1964)
1960-65	52.7	57.7	63.8	이동우 (173)
1966	59.7	64.1	51.9	조사통계국 (1971)
1970	59.8	66.7	49.1	NBOS (1982)
1971-75	57.4	62.7	53.9	권태환·김태헌(1990)
1976-80	61.2	68.6	38.8	"
1978-79	62.7	69.1	36.1	NBOS (1982)
1981-85	64.8	71.7	27.2	권태환·김태헌(1990)
1991	67.6	75.7	9.7[1)]	통계청 (1993)

주 : 1) 1991년도 자료임(통계청, 1993년 보도자료)
2) 성별 영아사망률의 평균을 산출할 때 출생시성비를 105로 하였음.

해방과 한국동란의 혼란기를 지난 후인 1955-60년에는 평균수명이 남녀 각각 51년과 54년으로 높아졌다 (<표 2-6> 참조). 그 후 비록 추정에 이용한 자료와 추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70년대 후반에는 남자의 평균수명이 60년을 넘었으며, 여자는 70년에 접근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남자의 평균수명이 70년에 접근하는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75년을 넘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사망률이 낮아지기 시작한 후 1990년까지 평균수명은 남·여 모두 약 3배로 늘어났으며, 혼란기가 지난 1955년대 후반부터 30여년 동안에 남·여 각각 약 15년과 20년이나 증가하였다. 이것을 1960년 (1955-60 및 1960-65년 평균)과 1980년 (1976-80 및 1981-85년 평균)간의 20년, 그리고 1980년과 1990년간의 10년으로 나누어 보면 전반 20년간에 남·여 각각 연평균 0.55년과 0.78년씩 증가하였으며, 후반 10년에는 각각 0.44년과 0.52년씩 증가하였다. 이 증가속도는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빨리 사망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 (말레이, 싱가폴 등)과 비교되며 (UN, 1982:115-118), 평균수명이 선진국수준 (1990년에 남녀 각각 70.4년과 77.7년)에 접근하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증가속도가 둔화되었다.

평균수명의 변화는 모든 연령층의 사망수준의 변화의 종합이다. 그러므로 각 연령집단별로 사망률의 변화가 총평균 수명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주어진 인구의 사망력 변동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Arriaga (1984: 87-89)의 방법에 따라 1971-75년부터 1980-85년까지 5년 간격으로 각 연령계층별 평균수명의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계산한 결과가 <표 2-7>에 수록되어 있다.

<표 2-7> 5계급 연령의 사망력 변화가 총평균 수명의 변화에 기여한 정도
; 1971-75년에서 1976-80년 기간과 1976-80년에서 1981-85년 기간

	1971-1975 ⇒ 1976-1980				1976-1980 ⇒ 1980-1985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연수	%	연수	%	연수	%	연수	%
총증가	3.79	100.0	5.82	100.0	3.60	100.0	3.14	100.0
0-14	1.85	48.8	2.08	35.8	1.38	38.2	1.53	48.7
15-29	.55	14.5	.71	12.2	.45	12.6	.49	15.6
30-44	.58	15.3	.81	13.9	.55	15.2	.51	16.2
45-59	.57	15.0	.91	15.7	.68	19.0	.44	13.9
60 이상	.24	6.3	1.30	22.4	.54	14.9	.18	5.6

주 : Arriaga (1984:87-89) 방법에 의해 계산되었음.
출처: 권태환·김태헌, 1990: 52.

1971-75년과 1976-80년, 그리고 1976-80년과 1981-85년의 두 기간 모두에서 평균수명의 총변화에 가장 커다란 공헌을 한 연령계급은 가장 어린 0-14세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의 사망률변동이 평균수명의 총변화의 36-49%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두 기간사이에 공헌도의 차이가 큰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15-29세 연령층의 사망률저하가 평균수명의 연장에 가장 작은 공헌을 하였다. 이 현상은 남녀 공통이지만 남자에게서 더욱 뚜렷하

였다. 일반적으로 연령별 사망수준의 저하의 정도는 그것을 절대적인 사망률의 감소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상대적인 감소정도, 즉 사망률의 감소율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통 절대적인 감소는 5세 미만과 40세 이상에서 두드러지지만 상대적인 감소는 5-39세 사이에서 더욱 뚜렷하다 (Preston, 1980:289). 그러나 <표 2-7>에서는 절대적인 감소의 영향을 나타내므로 우리 나라의 사망수준의 감소는 주로 어린 연령층의 기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기여도는 여자 전반기를 제외하면 극히 낮았다. 이것은 감염성 질환의 감소나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젊은 연령층의 건강증진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만성질환의 극복에 따른 절대수명의 연장은 극히 느린 것으로 판단되며 선진국 등의 사망력변천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2. 장래인구전망, 1990-2021

인구규모나 연령별 인구구조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출생아수와 사망자수는 인구규모와 연령별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이민자수는 그 자체가 인구규모나 연령별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민은 장래의 출생아수와 사망자수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준시점에서의 인구규모와 일정기간에 발생한 출생아수, 사망자수 및 이동자 (이민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일정기간 후의 인구규모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령별 장래인구를 추계한다면, 연도별추계 출생아수와 함께 연도별 총인구를 추계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통계청에서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집계결과를 조정하여 기준인구로 하고 코호트조성법 (Cohort component method)에 의거 2021년까지 추계한 인구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인구현상을 설명하고

자 한다. 장래인구전망의 내용은 통계청 (1991a)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전망 (1990-2021년)"과 김일현·최봉호 (1991)의 "장래인구추계와 인구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 기준인구의 추정

〈표 2-8〉 1990년 성·연령별 수정연앙인구

(단위 : 명)

연 령	계	남 자	여 자
0- 4	3,279,672	1,732,971	1,546,701
5- 9	3,835,510	1,893,931	1,851,579
10-14	3,962,069	2,044,337	1,917,732
15-19	4,464,015	2,296,976	2,167,039
20-24	4,288,624	2,205,154	2,083,470
25-29	4,276,188	2,181,042	2,095,146
30-34	4,096,389	2,089,064	2,007,325
35-39	3,017,939	1,554,173	1,463,766
40-44	2,503,634	1,284,426	1,219,208
45-49	2,202,152	1,121,953	1,080,199
50-54	2,038,791	1,020,714	1,018,077
55-59	1,604,348	748,808	855,540
60-64	1,155,614	496,492	659,122
65-69	903,878	379,810	524,068
70-74	595,963	234,037	361,926
75-79	367,998	123,560	244,438
80+	276,499	70,733	205,766
합계	42,869,283	21,568,181	21,301,102

자료: 통계청, 1991a: 34.

통계청(1991a)에서 기준인구로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집계결과 (43,520천명)의 정확성을 분석하여 보정한 수정인구 (42,998천명)를 작성하고 1990년 연앙인구 42,869천명을 추정하였다. 기준인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표 2-8>과 같다.

나. 출산율과 사망률의 전망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현재 이미 대체수준 (2.1명)을 훨씬 하회한 1.6명 (<표 2-2> 참조)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현재 선진국의 1990년 평균 (1.9명)보다 낮다 (통계청, 1991a:16).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앞으로 더 이상 낮아질 전망이 적으며, 오히려 선진국의 예로 볼 때 약간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남아선호 경향이 없고, 부분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 절대인구규모의 과대로 계속 인구증가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므로 합계출산율의 수준이 높아지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합계출산율의 수준은 1990년의 수준인 1.6명으로 가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보통사망률의 수준은 1985년에 인구 1,000명당 6.2에 도달한 이래 1990년에 5.8로 약 6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4> 참조). 이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사망률의 수준은 인구의 연령구조에 따라 결정되므로 노인층의 인구구성비가 낮은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에서는 앞으로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할 때 보통사망률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를 반영한 평균수명의 추이를 기준으로 장래 연령별 사망률을 추정하여

장래인구추계에 이용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한 1990년 생명표상의 남·여별 평균수명은 각각 67.37년과 75.37년이었다 (통계청, 1991a). 1990년 선진국의 평균수명이 남녀 각각 70.4년과 77.7년으로 우리 나라보다 남자의 경우 3.0년, 여자의 경우 2.3년이 높지만 세계에서 가장 평균수명이 높은 일본의 경우 남·여 각각

<표 2-9> 평균수명의 추이

(단위 : 년)

연도	계	남 자	여 자
1990	71.27	67.37	75.37
1995	72.94	69.50	76.56
2000	74.25	71.25	77.40
2005	75.31	72.67	78.09
2010	76.14	73.76	78.64
2015	76.64	74.39	79.01
2020	76.95	74.87	79.13

자료: 통계청, 1991: 20.

75.7년과 81.5년이므로 우리나라의 장래 최고 평균수명을 남·여 각각 75.0년과 80.0년으로 가정하여 장래 평균수명을 <표 2-9>와 같이 추정한 후 1989년 한국인의 생명표 (조사통계국, 1990b)의 연령별 사망유형 (<표 2-10> 참조)에 따라 장래 연령별 사망률을 추정하였다.

<표 2-10> 1989년 한국인의 생명표

연령 Age	사망력 M(x)	사망확률 Q(x)	사망자 D(x)	생존자 l(x)	정지인구 L(x)	생잔율 S(x)	총생존년수 T(x)	기대여명 E(x)
			남		자			
0	0.01106	0.01096	1096	100000	99090	0.98709	6692085	66.92
1	0.00116	0.00463	458	98904	394454	0.99557	6592995	66.66
5	0.00071	0.00354	349	98446	491360	0.99688	6198541	62.96
10	0.00054	0.00270	265	98098	489827	0.99638	5707181	58.18
15	0.00091	0.00454	444	97833	488055	0.99405	5217354	53.33
20	0.00148	0.00737	718	97389	485150	0.99124	4729298	48.56
25	0.00204	0.01015	981	96671	480902	0.98860	4244148	43.90
30	0.00255	0.01267	1212	95690	475419	0.98611	3763246	39.33
35	0.00305	0.01513	1430	94478	468813	0.97867	3287827	34.80
40	0.00560	0.02761	2569	93048	458815	0.96515	2819014	30.30
45	0.00864	0.04229	3826	90478	442827	0.94852	2360199	26.09
50	0.01260	0.06108	5292	86652	420031	0.92762	1917372	22.13
55	0.01763	0.08443	6869	81360	389627	0.89496	1497341	18.40
60	0.02725	0.12756	9502	74491	348699	0.83711	1107714	14.87
65	0.04528	0.20338	13217	64989	291901	0.75784	759015	11.68
70	0.06807	0.29085	15058	51772	221213	0.64690	467115	9.70
75	0.11311	0.44088	16186	36714	143102	0.41805	245902	6.70
80	0.22889	1.00000	20527	20527	102800	0.00000	102800	5.01
			여		자			
0	0.01058	0.01049	1049	100000	99130	0.98786	7496194	74.96
1	0.00100	0.00399	395	98951	394802	0.99633	7397065	74.75
5	0.00054	0.00270	266	98556	492118	0.99758	7002263	71.05
10	0.00043	0.00215	211	98291	490926	0.99748	6510145	66.23
15	0.00043	0.00215	211	98291	490926	0.99748	6510145	66.23
20	0.00074	0.00369	361	97796	488075	0.99586	5529532	56.54
25	0.00092	0.00459	447	97434	486054	0.99516	5041457	51.74
30	0.00102	0.00509	493	96987	483703	0.99365	4555403	46.97
35	0.00153	0.00762	735	96494	480631	0.99063	4071700	42.20
40	0.00224	0.01114	1067	95758	476126	0.98602	3591070	37.50
45	0.00340	0.01686	1596	94692	469469	0.97965	3114944	32.90
50	0.00484	0.02391	2226	93096	459914	0.96991	2645474	28.42
55	0.00742	0.03642	3310	90870	446074	0.95439	2185561	24.05
60	0.01134	0.05514	4828	87560	425730	0.92549	1739487	19.87
65	0.01995	0.09501	7860	82732	394009	0.87231	1313757	15.88
70	0.03568	0.16379	12263	74872	343700	0.79056	919747	12.28
75	0.06084	0.26404	16531	62608	271714	0.52831	576047	9.20
80	0.14263	1.00000	46077	46077	304333	0.00000	304333	6.60

자료: 조사통계국, 1990b: 26.

다. 해외이민의 전망

1971년부터 1990년까지 20년 동안 누적해외이주 허가건수는 약 60만명이었으며, 인구 1,000명에 대한 이민율은 약 0.8이었다 (< 표2-11> 참조).

<표 2-11> 연도별 해외이주 허가건수 : 1971-1990

연 도	이주허가건수	이민율 (인구 천명당)
1971-75	135,125	0.8
1976-80	173,522	0.9
1981-85	140,810	0.7
1986-90	152,967	0.7

자료: 외무부; 통계청, 1991a: 22에서 인용.

연도별 해외이민이 인구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총인구의 0.1% 미만이지만, 연간 인구증가율이 1% 미만으로 낮아진 1980년대 후반에는 해외이민으로 감소하는 인구규모가 총인구 증가인구의 7-8%에 해당되며 인구증가 속도가 둔화될수록 해외이민에 의한 영향을 더 받게 된다. 그러므로 총인구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해외이민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지게 되며, 장래인구추계에서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해외이주 허가건수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86-90년간에는 1986년에 37,097명에서 1990년에는 23,314명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통계청, 1991a:22). 앞으로도 국내 생활환경의 개선으

로 해외이주자의 수는 감소하고 재입국 이민자 (return migration)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상대국(수민국)에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순이민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민은 인구의 연령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구증가 억제효과가 있으므로 국내 절대인구의 과잉으로 인구증가억제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순이민자 수의 감소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1991년 이후 순해외이주자 수를 매년 20,000명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때의 이민율은 인구 1,000명당 0.4-0.5(<표 2-12> 참조)에 불과하지만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직접 이민으로 인한 인구증가 억제효과(600천명)와 이들의 출산과 사망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대한 간접적인 인구증가 억제효과 (118천명)를 합하면 총 718천명의 인구증가 억제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7차 5개년 계획 총괄부문 계획 참조).

라. 장래인구전망, 1990-2021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0년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연도별 출산율, 연령별 사망률 및 이민자수를 기초로 코호트조성법을 이용하여 통계청 (1991a)에서는 우리 나라 인구성장률이 제로('0'%)에 도달하는 2021년까지의 장래인구 추계를 하였다.

<표 2-12>는 2021년까지의 장래 전망인구의 주요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1990년에 42,869천명이던 우리 나라 인구는 31년 후인 2021년에 약 770만명이 증가한 50,586천명까지 증가하여 최대인구를 이룬 다음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기간동안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1990년에 15.6이던 것이 대체수준이하 (1.63명)의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받아 계속 낮아

져서 2021년에는 10.0이 되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은 1990년에 5.8을 저점으로 하고 유소년 인구 (0-14세)의 감소 (1990년의 25.8%에서 2021년에 15.8%로)와 노년인구 (65세 이상)의 증가 (5.0%에서 13.1%로)에 따라 9.7까지 증가하여 자연증가율이 0.03%로 되며 이민율 (인구 1,000명당) 0.4를 감안하면 2021년의 인구성장률은 0.01%로 감소하게 된다.

<표 2-12> 주요인구지표(II), 1990-2021

	1990	2000	2010	2021
총인구 (천명)	42,869	46,789	49,683	50,586
출생률 (천명당)	15.6	14.2	11.3	10.0
사망률 (천명당)	5.8	6.1	7.2	9.7
자연증가율 (%)	0.98	0.81	0.41	0.03
이민율 (천명당)	0.5	0.4	0.4	0.4
인구성장률 (%)	0.93	0.77	0.37	-0.01
인구밀도 (명/km^2)	432	471	501	510
합계출산력 (명)	1.63	1.63	1.63	1.63
평균수명 (남녀평균,년)	71.3	74.3	76.1	77.0
총부양비	44.5	33.8	39.9	40.6
평균연령 (세)	29.5	32.9	-	39.8
연령구조	100.0	100.0	100.0	100.0
0-14 (%)	25.8	21.2	19.1	15.8
15-64 (%)	69.2	72.0	71.5	71.1
65+ (%)	5.0	6.8	9.4	13.1

자료: 통계청, 1991a: 29.

장래인구를 추계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기준시점의 인구구조와 이 때의 사회·경제적 현상이 거의 그대로 존속된다는 전제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0년 인구를 기준으로 한 2021년까지의 인구추계도 1990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망률은 1989년 연령별 사망유형을 유지하면서 계속 감소하여 현재 세계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일본의 수준으로 접근하도록 하였다. 또한 순이민을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매년 20,000명의 해외이주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사회·경제적 현상의 변화는 인구현상 (혼인, 출생, 사망, 이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 변화는 새로운 인구전망을 요구하게 한다.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요청과 함께 장래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은 결혼연령과 유배우율, 그리고 개인의 출산행태로 결정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시 성비 (110-115)의 상승과 젊은 연령층의 결혼관의 변화 등으로 2000년이 지나면서 결혼적령기 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유배우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출산율은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의 유소년과 노년부양 인구의 소비비중이 앞으로 선진국의 행태에 접근하여 노년 1인당 평균소비가 유소년 1인당 평균소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진다면, 인구부양비 및 경제적 부양비를 극소화하는 적정인구 개념에서 2020년 이후 장기적인 인구규모의 변화를 예측하여 볼 때 현재의 합계출산율 1.6명은 너무 낮은 것으로 본다 (이번송·안홍식, 1990: 94-99). 또한 인구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2021년 이후 절대인구 규모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인구의 '부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2021년 이전에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조절을 위한 새로운 인구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순해외 이주인구를 매년 20,000명으로 고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생활

여건이 향상될수록 이주자수는 감소하고 재입국 이민자수는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순해외 이주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내의 인구압박, 정치·경제적 혼란 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지속된다면 장기인구추계를 위하여 가정한 순해외 이민자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Ⅲ. 인구구조의 양상과 그 변동

1. 성·연령

가. 성별 인구구조

성별인구는 전체인구에 대한 남·여의 구성비율이나 특정성에 대한 다른 성의 비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성인구에 대한 남성인구의 비인 성비이다. 전체성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출생시의 성비와 연령별사망 성비의 차에 의해 결정되며, 인위적인 조작이 없다면, 대부분은 남·여의 사망률에 영향을 받는다.

1960-90년간의 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의 성비는 100.7이었으나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1970년에는 102.4로서 남성인구가 여성인구에 비해 다소 많이 증가하였으나, 1970년 이후에는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990년에는 101.3으로 저하 되었고, 이후에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2020년까지 101.3-101.7의 수준에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0년의 전세계의 성비는 101.3으로 우리 나라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선진국은 94.0, 개발도상국은 103.5로 선진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반면, 개발도상국은 남성이 훨씬 많았다. 1990년의 아시아의 몇몇 국가와 기타 주요국가의 성비를 살펴 보면, 중공 106.0, 싱가폴 103.5, 필리핀 102.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많은 반면, 프랑스 94.9, 미국 95.1, 영국 95.3, 일본 96.7, 태국 98.3, 인도네시아 99.3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많았다(UN, 1993).

<표 3-1> 연도별 성비의 변화 : 1960-2020

(단위 : 명)

연 도	계	남 자	여 자	성 비
1960	25,012,374	12,550,691	12,461,683	100.7
1965	28,704,674	14,452,831	14,251,843	101.4
1970	32,240,827	16,308,607	15,932,220	102.4
1975	35,280,725	17,765,828	17,514,897	101.4
1980	38,123,775	19,235,736	18,888,039	101.8
1985	40,805,744	20,575,600	20,230,144	101.7
1990	42,869,283	21,568,181	21,301,102	101.3
1995	44,850,801	22,576,258	22,274,543	101.4
2000	46,789,374	23,559,464	23,229,910	101.4
2010	49,683,433	25,051,073	24,632,360	101.7
2020	50,578,196	25,504,719	25,073,477	101.7

자료 : 1960-1985 ; 조사통계국, 1988.

1990-2020 ; 통계청, 1991a.

우리 나라의 1960-90년 기간중의 연령별 성비의 변화를 5세 간격별로 살펴보면, 5세 미만의 경우 1960-85년까지는 107-11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에는 112로서 1985년에 비하여 성비가 4.2「포인트」나 증가하였다. 1985년 이후의 출생시 성비를 살펴보면 1985년 109.5에서 1986년 111.9, 1987년 109.0, 1988년 113.5, 1989년 112.1, 1990년 116.9로써(통계청,

1992) 1981-84년 기간중 107-108수준에 머물던 출생성비가 198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0-4세 인구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1984년 대체출산수준인 2.1수준에 이르고 그 이후 1.6수준까지 계속 낮아지는 기간 중에 나타난 현상으로 점차 소자녀화 되어가면서 성 선별에 의한 선택적 출산의 영향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성비 불균형을 완화시켜 정상적인 출생성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7.11월 의료법에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9조 2)을 신설하였다(고문사, 1990). 동 의료법의 신설이후에도 성비의 증가는 계속 되어, 동법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성감별에 의한 선택적인 출산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들의 남아 선호관이 불식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출생성비로 돌아가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세 이상의 연령군별 성비는 19세 이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20세 이상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60년의 경우 25-39세 연령층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적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45년 해방전의 세계 2차 대전과 1950년의 한국동란의 영향으로 이들 연령층에서 여자보다 남자의 사망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들 연령층의 성비 특징은 1965년 이후에도 5세씩 더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연령별 성비의 특징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져 성비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의 연령별 성비를 볼 때 55세 이상에서 성비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1960년의 25-39세 연령층의 낮은 성비가 이어진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성비가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 50대부터의 남자 사망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연도별 성비의 변화 : 1960-1990

(단위 : 여자 100명당 남자수)

연 령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0-4	108.0	107.6	108.1	109.5	107.2	107.8	112.0
5-9	107.2	107.8	107.7	107.4	107.9	106.6	107.1
10-14	105.6	106.9	107.7	107.9	107.1	106.5	106.5
15-19	106.8	105.1	106.8	107.0	107.7	106.4	106.0
20-24	101.7	106.3	104.8	104.4	103.1	104.6	105.3
25-29	98.8	101.1	106.9	103.6	106.4	104.4	104.1
30-34	90.3	97.3	102.0	102.6	109.5	111.2	104.1
35-39	99.3	90.5	97.2	103.5	105.2	106.2	106.2
40-44	102.9	98.0	90.2	95.2	104.0	106.3	105.3
45-49	98.1	100.9	96.3	86.9	95.9	102.7	103.9
50-54	93.6	95.3	98.3	93.3	84.6	93.3	100.3
55-59	85.2	89.8	91.0	89.9	87.6	81.4	87.5
60-64	80.0	80.2	83.4	82.7	84.2	80.1	75.3
65-69	66.0	75.9	71.6	72.2	73.1	74.2	72.5
70+		60.1	68.8	50.4	51.0	52.4	52.7
계	100.7	101.4	102.4	101.4	101.8	101.7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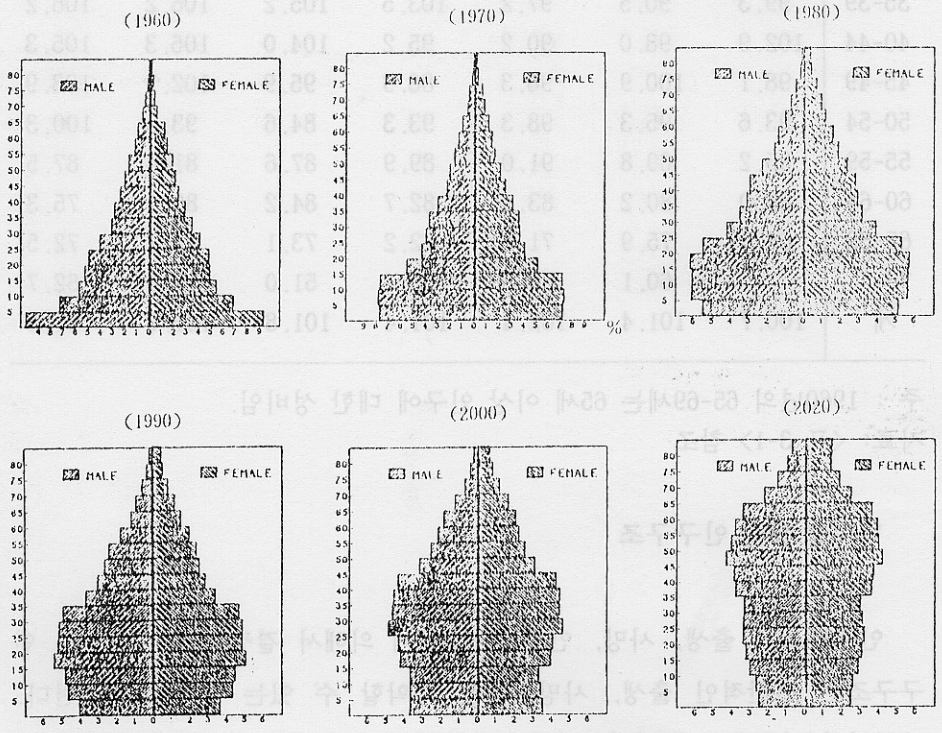
주 : 1960년의 65-69세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성비임.
자료: <표 3-1> 참조

나. 연령별 인구구조

인구구조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인구구조는 전반적인 출생, 사망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1960년의 인구구조는 개발도상지역의 유형인 고출산과 고사망의 특징을 지닌 피라미드형이었으나 1990년에는 저 출산과 저 사망의 안정인구형인 종

형으로 변화되었으며, 앞으로 대체 출산수준보다 낮은 출산수준이 지속되고 일정연령에 이른 노령층의 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감소형인 항아리형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1960년의 인구구조는 다산다사의 피라미드형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1990년에는 종형의 인구구조로 유소년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며,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되어 2020년의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의 감소가 심화되는 선진국형인 항아리형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림 3-1>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 :1960-2020



자료 : 통계청, 1991a

유소년인구는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출산력의 저하로 1972년까지는 증가하나 그 이후는 계속 저하되어 1990년까지 이어졌으며, 1990년 이후에도 대체출산 수준이하로 출산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소년인구의 감소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1960년 전 인구의 42.3%를 차지하던 유소년인구가 1990년에는 25.8%로 16.5%「포인트」가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이보다 10%「포인트」가 저하된 15.8%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인구규모도 1960년 10,588천명에서 1970년에는 13,709천명으로 증가하나 이후는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는 1970년에서 19.2%가 감소한 11,077천명이었으며, 2021년에는 더욱 감소하여 7,989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1960년 13,698천명으로 54.8%를 점하였으며, 이는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는 29,648천명으로 69.2%에 이르고 2000년에는 33,705천명으로 7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게 되며, 그 이후는 규모면에서는 2020년까지 증가가 계속되나 비율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인구규모나 비율 모두 계속 증가될 전망으로 1960년 726천명에 전체인구의 2.9%이었으나 1990년에는 2,144천명으로 5.0%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6,625천명으로 13.1%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부양비는 전체적으로는 1960년 82.6%에서 1990년에 44.5%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는 38.8%로 줄어들다가 2000년 이후부터 약간씩 증가될 전망이다. 부양비를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부양비로 구분하여 볼 때 출산력의 계속된 저하와 향후에도 대체출산 수준이하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에서 종형으로 그리고 항아리형으로 변모함에 따라 유소년 인구비율의 감소, 노령인구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져 유소년 부양비는 계속 감소하나 노년부양비는 계속 증

가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즉, 유소년 부양비는 1960년에 77.3%이던 것이 1990년에 37.3%로 급격히 감소하고, 2000년에 29.4%, 2021년에 22.2%가 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1960년의 5.3%에서 1990년에는 7.2% 그리고 2000년에는 9.4%, 2021년에는 18.4%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 인구구조의 변화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0-14		15-64		65이상		부양비		
		인구	(%)	인구	(%)	인구	(%)	계	유소년	노년
1960	25,012	10,588	42.3	13,698	54.8	726	2.9	82.6	77.3	5.3
1970	32,241	13,709	42.5	17,541	54.4	991	3.1	83.9	78.2	5.7
1980	38,124	12,951	34.0	23,717	62.2	1,456	3.8	60.7	54.6	6.1
1985	40,806	12,305	30.2	26,759	65.6	1,742	4.3	52.5	46.0	6.5
1990	42,869	11,077	25.8	29,648	69.2	2,144	5.0	44.5	37.3	7.2
1991	43,268	10,947	25.3	30,109	69.6	2,212	5.1	43.7	36.4	7.3
1992	43,663	10,832	24.8	30,548	70.0	2,283	5.2	43.2	35.5	7.5
1993	44,056	10,728	24.4	30,966	70.3	2,362	5.4	42.2	34.6	7.6
1994	44,453	10,581	23.8	31,422	70.7	2,450	5.5	41.5	33.7	7.8
1995	44,851	10,400	23.2	31,908	71.1	2,453	5.7	40.6	32.6	8.0
2000	46,789	9,917	21.2	33,705	72.0	3,168	6.8	38.8	29.4	9.4
2005	48,434	9,841	20.3	35,636	71.5	3,956	8.2	39.8	28.4	11.4
2010	49,683	9,510	19.1	35,505	71.5	4,668	9.4	39.9	26.8	13.1
2015	50,346	8,790	17.5	36,146	71.8	5,410	10.7	39.3	24.3	15.0
2021	50,586	7,989	15.8	35,972	71.1	6,625	13.1	40.6	22.2	18.4

자료 : <표 3-1> 참조.

다. 가임여성인구의 변동

인구구조에 변화를 주는 출생, 사망, 이민 중 출생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출산수준과 가임여성 인구규모일 것이다. 동일 출산수준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에 따라 출생아수가 차이를 갖게 되며, 또 가임여성의 연령분포가 어떠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출생아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동일 규모의 가임여성 인구규모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로 인해 연령분포에 따라 출생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표 3-4> 가임여성인구의 변동추이

(단위 : 천명, %)

연 도	여자총인구	가임여자인구(15-49세)	
		수	(%)
1960	12,462	5,848	46.9
1970	15,932	7,437	46.7
1980	18,888	9,959	52.7
1985	20,230	11,372	54.7
1990	21,301	12,116	56.9
1995	22,274	12,855	57.7
2000	23,230	13,401	57.7
2005	24,030	13,412	55.8
2010	24,632	12,942	52.5
2021	25,081	11,735	46.8

자료 :<표 3-1> 참조.

가임여성 인구가 2005년 경에 13,412천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게 됨에 따라 출생아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출생아수의 감소는 이보다 빠른 1998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가장 출산율이 높은 연령층이 25-29세이고 그 다음이 20-24세, 30-34세의 순으로 되어 있어, 출생수가 전체 가임여성 인구보다는 이들 연령층의 인구규모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가임여성 인구는 1960년 5,848천명으로 전체 여성인구의 46.9%를 점하였으나 1990년에는 12,116천명으로 56.9%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3,401천명으로 57.7%를 그리고 2021년에는 11,735천명에 46.8%를 점하여, 1960년과 비교할 때 규모면에서는 배로 증가한 반면, 전체여성에 대한 비율은 같아질 전망이다.

2. 혼인상태

결혼시기와 여성의 혼인상태는 출산수준에 큰 영향을 준다. 즉, 결혼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유배우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그 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기서는 혼인연령과 혼인상태를 중심으로 1955년 이후 최근까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 혼인연령의 변동추이

1955년 이래 1990년까지 35년 동안 우리 나라의 초혼연령은 남·여 모두 계속 증가해 왔다. 그러나 여자의 초혼연령 상승폭이 남자보다 훨씬 컸다. 즉, 1955년 남자의 초혼연령은 24.5세였으나 1990년에는 28.6세로 증

가하여, 4.1년이 증가하였으나 여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20.4세에서 25.5세로 증가하여 5.1년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로 초혼연령의 차이도 1955년 4.1년에서 1990년에는 3.1년으로 감소되었다(<표 3-5> 및 <그림 3-2>참조).

<표 3-5> 지역 및 성별 평균 초혼연령의 변동추이, 1955-1990

(단위:세)

연도	전국			시부			군부		
	남	여	차	남	여	차	남	여	차
1955	24.5	20.4	4.1	25.5	21.5	4.0	24.3	20.1	4.2
1960	25.4	21.6	3.8	26.8	22.8	4.0	24.9	21.0	3.9
1966	26.7	22.8	3.9	27.7	24.0	3.7	26.1	22.0	4.1
1970	27.1	23.3	3.8	27.5	23.8	3.7	26.8	22.6	4.2
1975	27.4	23.6	3.8	27.6	24.2	3.4	27.1	22.9	4.2
1980	27.3	24.1	3.2	27.4	24.3	3.1	27.3	23.5	3.8
1985	27.8	24.8	3.0	27.8	25.0	2.8	27.9	24.0	3.9
1990	28.6	25.5	3.1	28.4	25.5	2.9	29.0	25.1	3.9

주 : 평균초혼연령은 연령별 미혼인구구성비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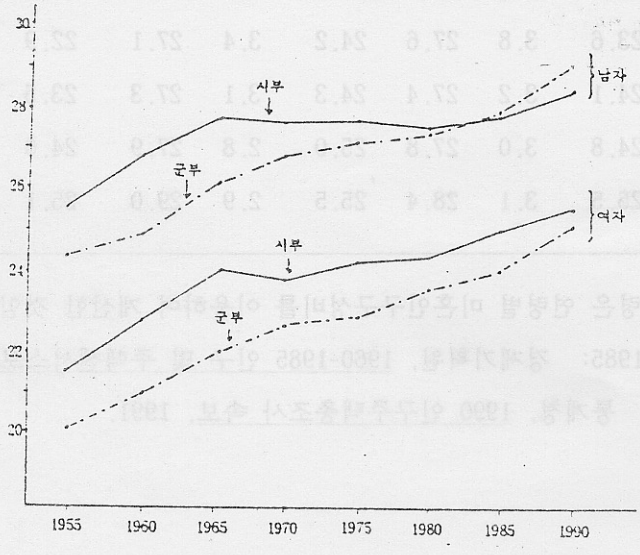
자료 : 1) 1955-1985: 경제기획원, 1960-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2) 1990: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1991.

지역별 초혼연령의 변동추이는 도시에서는 남자의 초혼연령이 1965년 이후 정체상태를 나타내다가 1980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197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다. 도시에서의 남·여의 초혼연령의 차이는 1955년 4.0년에서 계속 감소되어 1990년 2.9년으로 감소되었다. 한편 농촌에서는 남·여 모두 195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여의 차이는 1955년과 1990년의 초혼연령의 차이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3.0-4.2년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초혼연령의 차이는 1966년까지는 남·여 공히 도시에서의 초혼연령이 농촌보다 약 2년 늦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차이는 급속히 줄어들어 1985년부터 농촌의 남자 초혼연령이 도시의 남자 초혼연령보다 늦어져서 1990년에는 농촌의 남자 초혼연령이 29.0세로 도시보다 0.6년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도 농촌여자의 초혼연령의 상승속도가 도시보다 빨라 1966년 2년의 차이에서 1990년에는 도시 25.5세 농촌 25.1세로 0.4년의 적은 차이를 보였다.

〈그림 3-2〉 지역 및 성별 평균 초혼연령의 변동추이, 1955-1990



나. 혼인상태의 변동추이

1960-90년 기간 중 연령별 유배우율은 크게 변동되었다. 즉, 저연령층의 감소가 두드러졌고, 여자는 이와 함께 고연령층의 증가현상도 나타났다. 우선 여자의 경우 비교적 큰 감소를 나타낸 29세 이하 연령층의 유배우율의 변동은 1960년 20-24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이 49.9%, 25-29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이 91.8%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되어 1990년에는 20-24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이 19.5%로 낮아지고, 25-29세 연령층은 77.3%로 낮아지므로 각각 30.4%「포인트」, 14.5%「포인트」의 감소를 보여. 20-24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이 매우 큰 폭으로 저하되었다. 반면 3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유배우율이 증가하여, 1960년 35-39세 연령층이 유배우율이 89.1%였으나 1990년에는 92.8%로 그리고 동기간 중 40-44세 연령층은 83.7%에서 90.3%로, 45-49세 연령층은 76.6%에서 86.1%로 증가하므로 각각 3.7%「포인트」, 6.6%「포인트」, 9.5%「포인트」의 증가를 보여 고연령층일수록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초혼연령의 상승에 의해 저연령층의 유배우율의 감소를 가져왔고, 남자평균수명의 연장(1960 : 53.0년 ⇒ 1990 : 67.4년)에 의해 고연령층의 유배우율은 증가되었다.

남자의 경우는 전 연령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1960년 20-24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은 12.7%였으나 1990년에는 3.5%로 감소되었고, 동기간 중 25-29세 연령층은 61.4%에서 42.4%로, 그리고 30-34세 연령층은 93.6%에서 85.1%로, 35-39세 연령층은 97.3%에서 94.2%로 감소됨으로써 각각 9.2%「포인트」, 19.0%「포인트」, 8.5%「포인트」, 3.1%「포인트」의 감소를 보였으며, 이중 25-29세 연령층의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주로 동기간 중 초혼연령(<표 3-5>참조)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유배우율의 변동추이는 우선 여자의 경우 가장 큰 감소를 보였

<표 3-6> 성별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동추이

(단위 : %)

연 령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여자							
15-19	2.4	3.8	2.8	2.6	1.7	0.9	0.5
20-24	49.9	47.7	42.3	37.2	33.7	27.8	19.5
25-29	91.8	89.8	88.4	86.8	84.9	80.9	77.3
30-34	92.4	93.9	94.6	94.4	94.3	93.3	92.4
35-39	89.1	89.2	92.0	93.2	93.4	93.3	92.8
40-44	83.7	82.7	84.8	88.2	90.1	90.4	90.3
45-49	76.6	75.2	76.8	79.1	83.1	85.9	86.1
남자							
15-19	0.7	0.5	0.3	0.3	0.2	0.1	0.1
20-24	12.7	9.8	7.2	7.0	6.8	5.5	3.5
25-29	61.4	60.9	56.0	52.6	54.5	48.9	42.4
30-34	93.6	93.4	92.5	94.1	91.8	89.6	85.1
35-39	97.3	97.4	97.3	96.7	96.7	95.7	94.2
40-44	97.5	97.5	97.5	97.7	97.3	96.7	95.7
45-49	96.6	96.8	97.0	97.1	96.9	96.9	95.8

자료 : 경제기획원, 1960-1985년 인구주택센서스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던 20-24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은 농촌지역의 유배우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1960년 20-24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은 도시가 33.3%, 농촌이 57.3%로 농촌이 도시보다 24.0%「포인트」 높았으나, 1990년에는 도시가 19.1%로 그리고 농촌은 21.1%로 감소되어 그 차는 2.1%「포인트」에 불과하여 농촌의 감소추세가 급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도 농촌의 20-29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의 저하가 컸다. 즉, 1960-90년

기간 중 도시의 경우는 20-24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이 5.6%에서 3.8%로, 25-29세 연령층은 47.4%에서 43.7%로 그 변화폭이 매우 적은 반면, 농촌에서는 20-24세가 15.6%에서 2.8%로, 그리고 25-29세 연령층은 66.9%에서 37.2%로 저하됨으로써 각각 12.8%「포인트」, 29.7%「포인트」의 감소를 보여 그 저하폭이 상당히 컸다.

<표 3-7> 지역별 연령별 여자의 유배우율의 변동추이

(단위 : %)

연령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전국							
15-19	2.4	3.8	2.8	2.6	1.7	0.9	0.5
20-24	49.9	47.7	42.3	37.2	33.7	27.8	19.5
25-29	91.8	89.8	88.4	86.8	84.9	80.9	77.3
30-34	92.4	93.9	94.6	94.4	94.3	93.3	92.4
35-39	89.1	89.2	92.0	93.2	93.4	93.3	92.8
40-44	83.7	82.7	84.8	88.2	90.1	90.4	90.3
45-49	76.6	75.2	76.8	79.1	83.1	85.9	86.1
시부							
15-19	0.8	1.8	1.9	1.7	1.4	0.7	0.5
20-24	33.3	33.1	37.0	31.7	31.3	25.4	19.1
25-29	84.9	83.8	84.1	84.0	83.3	79.3	77.0
30-34	90.0	91.4	92.5	93.0	93.5	92.6	92.1
35-39	86.9	87.0	89.9	91.8	92.7	92.8	92.6
40-44	80.8	80.1	81.9	86.2	88.7	89.7	90.2
45-49	73.0	71.4	72.8	76.0	80.6	84.5	85.5
군부							
15-19	3.2	5.3	3.8	3.8	2.3	1.2	0.6
20-24	57.3	57.9	48.7	45.7	39.3	39.4	21.2
25-29	94.9	94.4	93.0	91.3	88.5	85.5	78.5
30-34	93.5	95.4	96.3	96.2	95.8	95.1	93.5
35-39	90.0	90.5	93.4	94.6	94.6	94.4	93.6
40-44	84.8	84.1	86.7	89.9	91.7	91.7	91.0
45-49	77.9	76.9	49.2	81.5	85.6	87.8	87.4

자료 :<표 3-6> 참조.

<표 3-8> 지역별 연령별 남자의 유배우율의 변동추이

(단위 : %)

연령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전국							
15-19	0.7	0.5	0.3	0.3	0.2	0.1	0.1
20-24	2.7	9.8	7.2	7.0	6.8	5.5	3.5
25-29	61.4	60.9	56.0	52.6	54.5	48.9	42.4
30-34	93.6	93.4	92.5	94.1	91.8	89.6	85.1
35-39	97.3	97.4	97.3	96.7	96.7	95.7	94.2
40-44	97.5	97.5	97.5	97.7	97.3	96.7	95.7
45-49	96.6	96.8	97.0	97.1	96.9	96.9	95.8
시부							
15-19	0.3	0.2	0.2	0.2	0.2	0.1	0.1
20-24	5.6	5.4	6.3	6.2	6.7	5.8	3.8
25-29	47.4	49.4	52.9	50.4	54.5	49.0	43.7
30-34	90.5	90.0	90.8	91.3	92.0	90.0	86.1
35-39	97.1	97.0	97.0	97.3	97.0	96.1	94.8
40-44	97.7	97.5	97.3	97.7	97.6	97.1	96.1
45-49	96.9	96.9	96.8	97.0	97.0	97.1	96.1
군부							
15-19	0.9	0.7	0.4	0.4	0.2	0.2	0.1
20-24	5.6	12.4	8.1	7.9	7.1	5.0	2.8
25-29	66.9	67.8	59.3	55.6	54.1	48.7	37.2
30-34	97.4	97.6	97.6	97.3	96.2	94.8	81.0
35-39	97.4	97.5	97.6	97.7	97.0	96.0	91.8
40-44	97.4	97.5	97.6	97.7	97.0	96.0	94.0
45-49	96.5	96.8	97.1	97.2	96.8	96.5	94.7

자료 : <표 3-6> 참조.

3. 교육정도

6세 이상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을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는 1970년 5.7년에서 1980년에는 7.6년 그리고 1990년에는 9.2년으로 1970년의 국민학교이하 수준에서 이제 중학교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선 셈이다.

남·여로 구분하여 볼 때 1970년 남성이 6.9년, 여성이 4.7년이었으나, 1980년에는 남성이 8.7년, 여성이 6.6년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남성이 10.0년, 여성이 8.2년으로 증가함으로써 1970년에 비하여 남성은 3.1년, 여성은 3.5년이 증가하여 남·여의 평균 교육년수의 차가 1970년 2.4년에서 1990년에는 1.8년으로 그 폭이 감소되었다.

<표 3-9> 성·연령계층별 국민평균 교육년수

(단위 : 년)

	평 균	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1970	5.74	5.33	8.32	7.15	4.83	1.98
남	6.86	5.47	8.81	8.65	6.42	3.06
여	4.72	5.21	7.48	5.64	3.36	1.09
1980	7.61	6.53	9.88	9.17	7.52	4.16
남	8.67	6.60	10.33	10.19	9.01	5.03
여	6.63	6.10	9.44	8.10	5.95	2.25
1990	9.20	7.74	12.05	11.10	9.52	5.59
남	10.01	7.70	12.27	11.78	10.65	7.69
여	8.22	7.78	10.64	10.38	8.34	3.95

자료 : 통계청, 1991c : 167.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경제의 발전과 점차 소자녀화하여감에 따라 남·여의 차별이 줄어들고,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의 기회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여성도 가능한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구주의 의식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1977년에는 대학이상 진학시키겠다는 비율이 아들 56.3%, 딸 33.6%로 22.7%「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그 수준도 매우 낮았는데, 1990년에는 아들 86.3%, 딸 75.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남·여의 차이도 10.6%「포인트」로 감소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크게 높아졌을 뿐 아니라 아들과 딸의 차별이 크게 완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0> 가구주의 자녀기대 교육수준

(단위 : %)

	아 들				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1977	7.5	36.2	55.5	0.8	23.7	42.7	33.3	0.3
1987	1.6	13.9	60.5	24.0	4.0	25.6	55.1	15.3
1990	1.6	12.1	61.9	24.4	3.9	20.4	61.3	14.4

자료 : 통계청, 1991c :169.

대부분이 학교교육을 마칠 연령인 30-34세 연령군의 연령별 교육 수준

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23.8%였으며, 특히 대학이상졸업자는 7.6%로 매우 낮았고, 상대적으로 국민학교졸업자가 46.8%, 불취학이 10.4%에 이르는 등 국민학교 졸업이하가 59.1%로 상당히 큰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이들의 평균 교육수준은 7.6년에 불과하였다. 이를 남·여별로 구분하여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남자는 36.0%인데 비하여 여자는 11.3%에 불과하였고, 국민학교 졸업이하는 남자가 43.6%, 여자가 74.9%로 30-34세 여자의 경우 3/4정도는 국민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남녀의 평균학력은 각각 8.9년과 6.1년으로 2.8년의 차를 보였다.

1980년에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가 40.0%로 1970년에 비하여 16.2%「포인트」의 증가를 보였으며, 대학졸업이상은 11.3%로 증가하였다. 국민학교 졸업이하는 32.9%로 1970년에 비하여 26.2%「포인트」가 감소, 평균학력이 9.5년으로 1970년 보다 1.9년이 증가하였다. 남·여별로는 남자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51.4%, 국민학교졸업이하가 22.7%이고 여자는 고등학교졸업이상이 28.0%, 국민학교졸업이하가 43.6%로 고등학교졸업이상이 23.4%「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1970년의 24.7%「포인트」보다는 약간 감소하였다. 이들의 평균학력은 남자 10.4년이었고, 여자는 1970년의 남자 수준과 비슷한 8.6년으로 1970년에 비하여 각각 1.5년, 2.5년이 증가하여 여자의 평균학력이 남자에 비하여 큰 폭으로 높아졌다.

1990년에는 고등학교졸업이상이 67.0%로 증가하였고, 국민학교졸업이하는 10.0%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불취학은 0.5%로 감소하여, 1970년의 10.4%에 비하면, 9.9%「포인트」가 감소하였으며, 국민학교 중퇴도 0.2%에 불과하여 거의 대부분이 국민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갖게 되었다. 평균학력도 11.4년으로 1980년에 비하여 1.9년이 증가 1970-1980년의 1.9년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함으로써 국민들의 교육의욕이 매우 높아졌음을 반영해

주고있다. 남·여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졸업이상이 75.5%, 국민학교졸업이하는 7.0%로 평균 학력수준이 1980년에 비하여 1.7년이 높아진 12.1년이었다. 여자는 고등학교졸업이상이 58.2%, 국민학교졸업이하가 13.0%로, 1980년의 남·여의 차이가 23.4%「포인트」인데 비하여 17.3%「포인트」로 남·여의 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평균학력의 차의 감소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평균학력이 남자가 12.1년, 여자가 10.8년으로 그 차가 1.3년에 불과, 1980년 1.8년, 1970년 2.8년에 비하여 그 차가 크게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30-34세 인구의 연도별 교육수준 분포

(단위 : %)

	1970			1980			1990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불취학	10.4	4.8	16.1	2.1	1.2	2.9	0.5	0.4	0.6
국교중퇴	1.9	1.3	2.5	0.5	0.4	0.6	0.2	0.2	0.1
국교졸	46.8	37.5	56.3	30.3	21.1	40.1	9.3	6.4	12.3
중학중퇴	1.2	1.5	0.8	1.1	1.3	1.0	0.6	0.7	0.5
중학졸	15.2	17.7	12.7	24.8	22.9	26.7	21.5	15.7	27.6
고등중퇴	0.7	1.2	0.3	1.2	1.7	0.7	0.9	1.1	0.7
고등졸업	15.1	21.6	8.5	27.3	33.5	20.7	45.8	46.3	45.2
대학중퇴	1.0	1.8	0.3	1.3	1.9	0.6	1.0	1.4	0.7
대학재	0.1	0.1	0.0	0.1	0.2	0.0	0.5	0.8	0.2
대학졸업	7.6	12.5	2.5	11.3	15.8	6.7	19.7	27.0	1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교육수준(년)	7.6	8.9	6.1	9.5	10.4	8.6	11.4	12.1	10.8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0.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2

남·여의 평균교육수준을 비교해 볼 때 평균 10년 기간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즉, 1990년 여자의 교육수준은 1980년 남자의 교육수준과, 1980년 여자의 교육수준은 1970년 남자의 교육수준에 근접함을 보여 10년 정도의 차를 두고 여자의 교육수준이 남자의 교육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향 30-34세의 교육수준은 우리 나라 국민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욕과, 국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지속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남·여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그 격차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2> 1990년도 30-34세 인구의 지역별 교육수준

(단위 : %)

	전 국			시 부			군 부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불취학	0.5	0.4	0.6	0.3	0.3	0.4	1.4	1.1	1.7
국교중퇴	0.2	0.2	0.1	0.1	0.1	0.1	0.3	0.3	0.2
국교졸	9.3	6.4	12.3	6.2	4.1	8.4	22.3	16.0	29.1
중학중퇴	0.6	0.7	0.5	0.6	0.6	0.5	0.7	0.8	0.5
중학졸	21.5	15.7	27.6	19.8	13.5	26.4	28.6	24.8	32.8
고등중퇴	0.9	1.1	0.7	1.0	1.2	0.7	0.8	1.0	0.5
고등학교졸	45.8	46.3	45.2	48.0	47.5	48.6	36.2	41.5	30.6
대학중퇴	1.0	1.4	0.7	1.2	1.5	0.8	0.5	0.7	0.3
대학재	0.5	0.8	0.2	0.6	0.9	0.2	0.2	0.4	0.1
대학졸	19.7	27.0	12.1	22.2	30.3	13.9	9.0	13.4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교육 수준(년)	11.4	12.1	10.8	11.8	12.4	11.1	9.9	10.6	9.2

자료 : 통계청, 1992a : 136-159.

1990년 30-34세 연령층의 교육수준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시부의 경우 고등학교졸업이상자가 72.0%, 국민학교졸업이하인 자가 6.6%로 평균 교육수준은 11.8년이었다.

남·여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졸업이상인 자가 80.2%, 국민학교이하인 자가 4.5%로 평균 교육수준은 12.4년이었다. 여자는 고등학교졸업이상자가 63.5%, 국민학교졸업이하인 자가 8.9%였으며, 평균교육수준은 11.1년으로 남자와는 1.3년의 차이를 보였다.

군부지역은 고등학교졸업이상인 자가 45.9%, 국민학교졸업이하인 자가 24.0%로 평균교육수준은 9.9년으로 시지역과는 1.9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여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는 고등학교졸업이상인 자가 56.0%, 국민학교졸업이하인 자가 17.4%로 평균교육수준은 10.6년 이었으며, 여자는 고등학교졸업이상이 35.2%, 국민학교졸업이하인 자가 31.0%로 평균 교육수준은 9.2년이었다. 이는 남자의 교육수준과 1.4년의 차를 보여, 시부의 1.3년 보다는 차이가 조금 많았다.

이와 같이 교육수준은 시부지역이 군부지역보다 1.9년이 높았고, 남·여의 교육수준의 지역적 차이는 적은 특징을 보였다.

4. 직업·산업

가. 경제활동 참가율

우리는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연령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 활동인구로 구분하고, 다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통계청, 1991)

- 경제활동인구 : 노동인구라고도 하며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취업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의미함.

- 취업자 : 조사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무급가사 종사자는 18시간)이상 일한 자와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일기불순, 일시적 병, 휴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말함.

- 실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을 한 사람과 일시적인 병 등 특별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비경제 활동인구 :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모든 사람으로 가정주부, 학생(학원생), 노년·연소(15세 미만)자 심신장애자, 기타 보수없이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말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비율은 1965년 57.0%에서 점차 증가하여 1978년에는 59.9%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 1984년에는 55.8%까지 낮아졌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5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60.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1965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2%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여 1978년에는 43.3%에 이르나 다시 점차 감소하여 1984년에는 40.7%까지 낮아졌으며 그 이후는 다시 증가하여 1990년에는 47.0%로 1965년에 비하여 10%「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와 출산감소에 따른 자녀양육시간의 감소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그 만큼 많이 갖게 되었고, 사회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많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소득의 증대 필요성에 따라 가사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3> 경제활동참가율

년도	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경제활동참가율비 (2/1 x 100)
		농가	비농가	남 (1)	여 (2)	
1965	57.0	59.6	53.6	78.9	37.2	47.1
1970	57.6	62.7	53.1	77.9	39.3	50.5
1975	58.3	65.0	53.6	77.4	40.4	52.2
1978	59.9	65.8	56.5	77.9	43.3	55.6
1980	59.0	65.4	55.9	76.4	42.8	56.0
1984	55.8	62.0	53.9	72.1	40.7	56.4
1985	56.6	62.5	54.9	72.3	41.9	57.9
1990	60.0	68.1	58.4	73.9	47.0	63.6

자료 : 통계청, 1991c : 110.

나. 산업별 취업분포

(1) 연도별 산업별 취업분포 변화

산업별 취업자는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1965년도 만해도 농업·임업·어업 등의 비중이 커서 58.5%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가 31.2%, 그리고 광공업이 10.4%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으나 점차 변화되어 농림·어업의 비율이 감소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산업, 광공업 중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1965년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농림·어업이 1980년에는 34.0%로 낮아지고, 1990년에는 이보다 크게 저하된 20.8%로 낮아지므로써 최근

농촌의 일손부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산업분야에서는 큰 증가를 보여 1965년 전체의 1/3수준에서 1980년에는 43.5%로 증가되고, 1990년에는 51.4%로 증가가 계속 되어왔다.

<표 3-14> 연도별 산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계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1965	100.0	58.5	10.4(9.4)	31.2
1970	100.0	50.4	14.3(13.2)	35.3
1975	100.0	45.7	19.1(18.6)	35.2
1980	100.0	34.0	22.5(21.6)	43.5
1985	100.0	24.9	24.4(23.4)	50.6
1990	100.0	20.8	27.8(27.4)	51.4

자료: 1) 1965-85 ; 통계청, 1991c : 109.

2) 1990 ; 통계청, 1993 : 20-67.

이와 함께 광공업분야도 증가추세를 보여 1980년에는 22.5%로 증가되었고, 1990년에는 27.8%로 증가하여, 농림·어업분야의 참여는 계속 감소된 반면 그 밖의 기타분야의 증가는 계속 되어왔다.

(2) 지역별 산업별 취업자 분포 : 1990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한 지역별 산업별 취업자의 분포는 제조업이 27.4%로 가장 높고, 다음은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이 20.8%였으며, 광업 및 전기·수도사업은 1%미만이었다. 이를 남·여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의 경우 제조업이 28.2%로 가장 높고,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이 17.7%로 그 다음 순위였으며, 전체적인 분포와 2%「포인트」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건설업이 전체보다 높았고,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낮았다. 여자의 경우는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이 2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조업으로 25.8%였으며,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24.1%의 순이었다. 전체와 차이를 보이는 산업은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2%「포인트」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높았으며,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부지역은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이외의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반면, 군부 지역은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시부는 제조업이 3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으로 23.6%였으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16.3%의 순이었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가 건설업에서 전체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는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에서는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이 61.7%로 지역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제조업이 12.4%,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9.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7.5%였고 그 외는 5%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남·여로 구분해 볼 때도 큰 차이는 없으나 산업의 특성상 남·여의 취업 구분이 강하게 작용하는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군부지역의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이 68.7%로 매우 높게 나타나 군부지역의 여성취업자의 분야가 크게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지역별 산업별 취업자 분포 : 1990

(단위 : %)

	전 국			시 부			군 부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20.8	17.7	27.0	3.4	3.3	3.6	61.7	57.0	68.7
광업	0.4	0.6	0.1	0.2	0.3	0.0	0.8	1.3	0.1
제조업	27.4	28.2	25.8	33.8	33.7	34.1	12.4	13.2	11.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4	0.5	0.1	0.4	0.6	0.1	0.3	0.4	0.1
건설업	7.1	9.9	1.5	8.7	11.7	2.0	3.3	5.1	0.7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19.3	16.9	24.1	23.6	20.2	31.4	9.1	7.6	11.2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2	7.1	1.4	6.4	8.4	1.8	2.4	3.6	0.6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3	5.4	5.1	6.8	6.6	7.0	1.8	1.9	1.6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3.6	13.0	14.9	16.3	14.6	20.0	7.5	8.7	5.8
분류불능산업	0.5	0.7	0.0	0.4	0.6	0.0	0.7	1.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1993 : 20-67.

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

(1) 연도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1965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65년에는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컸던 반면, 1990년에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생산·운수장비 운전사 단순노무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직업은 그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으로 우리 나라도 1965년의 농업중심사회에서 산업발전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림·수산업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대신 그 외의 직업의 비중은 높아지는 변화를 해 왔다.

<표 3-18> 연도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

년도	계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종사자	사무· 관련직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 수산업 종사자	생산·운수장비 운전사, 단순 노무자및기타
1965	100.0	2.9	4.1	12.0	6.4	58.4	16.3
1970	100.0	4.8	6.0	12.4	6.4	50.2	20.2
1975	100.0	3.6	6.4	13.0	7.1	45.8	24.1
1980	100.0	5.3	9.3	14.5	7.9	34.0	29.0
1985	100.0	7.3	11.5	15.5	10.8	24.6	30.3
1990	100.0	9.5	15.3	13.9	8.7	20.6	32.0

자료 : 1) 1965-85 ; 통계청, 1991c : 114.
2) 1990 ; 통계청, 1993 : 68-179.

1965년 농림·수산업종사자가 58.4%로 약 3/5이라는 많은 사람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외 생산·운수장비운전사·단순노무자가 16.3%, 판매종사자가 12.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서비스직, 사무·관련직,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각각 6.4%, 4.1%, 2.9%로 모두 합쳐도 13.4%밖에 안될 정도로 적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포는 1980년에 이르는 동안 크게 변화하여 농림·수산업이 34.0%로 감소한 반면 생산·운수장비운전사·단순노무자가 29.0%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사무·관련직이 9.3%로 배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종사자수는 많지 않지만 크게 증가한 분야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90년에 이르러 더욱 크게 변화하였는데 농림·수산업이 20.6%로 1965년에 비하여 37.8%「포인트」라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고, 반면 생산·운수장비·단순노무자 및 기타가 32.0%, 판매종사자 13.9%, 사무·관련직이 15.3%, 서비스직이 8.7%,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9.5%로 취업양상이 크게 변화 되었다.

(2) 지역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 : 1990

1990년 지역별 취업자의 직업분포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가 3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축산업·임업·수산업 및 수렵종사자가 20.6% 그리고 사무 및 관리직이 15.3%, 판매종사자가 13.9%의 순이었다.

남자는 전체적인 분포보다 생산 및 관련종사자·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가 36.8%로 다소 많은 반면 농축산업·임업·수산업 및 수렵종사자, 서비스직종사자는 적었다. 여자는 농축산업·임업·수산업 및 수렵종사자, 서비스직종사자가 전체적인 분포보다 많은 반면, 생산 및 관련종사자·운수

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는 적어, 남자와 분포상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시부지역이 도시지역의 특성으로 농축산업·임업·수산업 및 수렵업종사자가 3.2%로 매우 낮은 반면, 그 외 직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남·여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가 42.2%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그 외는 낮았으며, 여성은 생산 및 관련종사자·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다음으로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고,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는 0.3%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군부지역은 농축산업·임업·수산업 및

<표 3-19> 지역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

	전 국			시 부			군 부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문·기술 및 관련직	7.4	7.0	8.4	9.3	8.3	11.5	3.1	3.3	2.8
행정 및 관리직	2.1	3.0	0.2	2.8	3.8	0.3	0.5	0.8	0.1
사무 및 관련직	15.3	15.2	15.5	19.1	18.3	21.0	6.3	6.7	5.7
판매직	13.9	13.5	14.6	17.3	16.4	19.3	5.8	5.5	6.2
서비스직	8.7	6.4	13.3	10.3	7.3	17.1	5.0	3.9	6.6
농림어업직	20.6	17.4	27.0	3.2	3.1	3.5	61.5	56.7	68.6
생산 및 관련직	31.5	36.8	21.0	37.6	42.2	27.3	17.1	21.9	10.0
분류불능자	0.5	0.7	0.0	0.4	0.6	0.0	0.7	1.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1993 : 68-179.

수렵종사자가 61.5%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으며, 생산 및 관련종사자·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도 17.1%로 높게 나타났다.

남·여별로 구분하였을 때는 남자의 경우 농축산업·임업·수산업 및 수렵 종사자가 다소 낮아지는 대신 생산 및 관련종사자·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 노무자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여성은 이와 반대의 양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취업직업의 분포는 크게 변화하여 왔지만 아직도 지역이나 남·여에 있어서 직업분포는 그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IV. 인구현상의 변화가 사회·경제현상에 미치는 영향

1. 인구노령화와 사회보장 부담

우리 나라의 인구는 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더욱 급속한 노령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1960년의 70여만에 불과했던 노년인구가 30년 후인 1990년에는 60년의 거의 3배가 가까운 200만을 넘어섰고, 이로부터 30년 후인 2020년에는 다시 3배에 달하는 600만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는 1960년의 9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의 2.9%, 1990년의 5.0%에서 2020년에는 전체인구의 12.5%로 크게 늘어나며, 노년인구부양비는 1960년의 5.3, 1990년의 7.2에서 2020년에는 17.5로 증가하여 이와 같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부담은 계속 가중되므로써 앞으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빠른 도시화의 진전은 그간 격심한 이농현상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낳았고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와의 분리현상이 초래되었다. 더욱 출산력저하에 따른 가족규모의 소형화와, 근대적 도시생활양식에 의한 핵가족 선호경향은 전통적인 노인의 가족 내 부양구조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간의 분리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고 아울러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 감소로 지위하락에 따른 소외현상은 앞으로의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예고해 주고 있다.

특히 세대간 분리현상은 세대간의 단절과 더불어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를 촉진시켜 전체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단독가구 노인인구는 1974년도의 8.4%에서 1985년에는 23.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종주, 1991).

〈표 4-1〉 노년인구와 관련된 주요 인구지표 추이

연도	65세이상 총인구노년인구 (천)	(천)	3대 연령 집단별 구성비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인구(15-64세)	노년인구(65세이상)	연령집단별 연평균성장률(%) 전체인구	유소년인구	생산인구	노년인구
1960	25,012	726	42.3	54.8	2.9				
1970	32,241	996	42.5	54.4	3.1	2.6	2.6	2.5	3.2
1980	38,124	1,456	34.0	62.2	3.8	1.7	-0.6	3.1	3.9
1990	42,869	2,144	25.8	69.2	5.0	1.2	-1.6	2.3	4.0
2000	46,789	3,168	21.2	72.0	6.8	0.9	-1.1	1.3	4.0
2010	49,683	4,668	19.1	71.5	9.4	0.6	-0.4	0.5	4.0
2020	50,578	6,333	16.0	71.5	12.5	0.2	-1.6	0.2	3.1

연도	부양비 (%) 계	유소년	노년	노령화 지수 (%)	도시화율 (%)	TFR
1960	82.6	77.3	5.3	6.9	28.0	6.0
1970	83.9	78.2	5.7	7.2	41.2	4.5
1980	60.7	54.6	6.1	11.2	57.3	2.7
1990	44.5	37.3	7.2	19.4	74.4	1.6
2000	38.8	29.4	9.4	31.9	80.6	1.6
2010	39.9	26.8	13.1	49.1	-	1.6
2020	39.9	22.4	17.5	78.2	-	1.6

자료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1991

전통사회에서의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체계는 주로 직계가족 또는 근친들에 의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사회적 문화적 변천과 더불어 새로운 세

대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와 같은 소위 미풍양속에 대한 수용도가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령인구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응정책의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1991년 현재 노부모에 대한 국민의식은 ① 80% 가까이가 자녀들이 맡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② 노인부양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려는 견해는 6%에 불과하며 노인자립의 견해는 젊은 세대에서 비교적 높은 15% 수준을 나타내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통계청, 1991c) 전통적인 노인부양의식이 상존하면서도 실재로 이러한 부양체계가 점차 젊은 세대에 의해서 와해되어가고 있는 성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노령화 사회로 전이될 앞으로의 노인문제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노인의 단독가구증가 및 시설 수용노인의 증가 등에 따른 ① 노인의 보건의료보장과 ② 노인인구의 사회복지 증진이 주요과제로 될 것이다.

노인인구의 특성은 연령이 더해질수록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약화되어가고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인구는 가족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하여 돌보아야 할 요구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름대로의 사회 경제적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자활능력이 없고 육체적 활동이 어려운 무의무탁한 노인들의 수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재정적인 문제로 정책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의 여건에 따라 복지수준이 천차만별하다. 국가적인 인구학적 여건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배경, 사회 문화적 배경, 정치적 제도적 차이, 국가적 빈부의 차이 등에 따라 정책의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급속도로 증가해 가는 노인인구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열악한 조건은 앞으로의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 노인의 보건의료보장 및 건강증진문제의 심화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측면의 여러 가지 많은 과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는 두말할 나위없이 노인들의 건강 및 의료에 관한 것이다. 노후생활을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고 발병 시에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복지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다만 되도록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늙는다고 해서 생에 대한 애착이 결코 비례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고령일지라도 비록 고통속에서도 살아 버티려는 애착은 젊은 사람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 및 의료의 보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노인은 연령증가에 따라 시력·청력이 감퇴되고 근육과 골격 계통, 순환기계통, 뇌혈관 계통 등에 변화를 경험하며 주로 만성퇴행성질환의 이환이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일상적 활동에 큰 제한을 주게 된다. 미국의 경우 한 통계에 의하면 65·74세 노인 중 5%, 75-84세 노인의 16%, 85세 이상 노인의 35%가 육체적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ller, 1983).

우리 나라의 경우 1989년에 실시한 국민건강 조사결과에 의하면 만성질환자중 일상적 동작에 제한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높다. 즉, 타인의 도움을 받

아야 집안 내 일상동작(세수, 목욕, 식사, 화장실 가기, 옷 갈아 입기 등)이 가능한 노인이 7%, 이러한 도움이 없이 집밖의 활동(버스나 기차 타기 등)이 불가능한 노인은 16%이다. 연령별로는 75-79세 노인의 29%는 집밖활동에, 11%는 집안 내 일상활동에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이 비율은 80세 이상에서 45% 및 20%로 각각 높아진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단독가구 노인의 11%는 집밖 활동에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며 2인노인 가구의 경우 9%가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송건용, 1990).

이와 같은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부닥치게 될 과제이며 지금까지는 거의가 다 가정에서 해결되거나 사고무친의 경우에는 자선단체에 의해서 정부의 부분적 보조를 통해서 관리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부양 및 건강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져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및 건강문제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자체관리로 해결될 수 있는 것 외에 정부의 보건의료체계에 의존해야 할 것도 많다. 부양적인 측면의 가정관리는 해결될 수 있지만 노인의 질환관리에 대한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및 국가가 각기 해야 할 영역이 구분되어 협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전국민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므로써 선진산업사회가 겪고 있는 노인의료비의 부담이나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비교적 덜한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그러한 문제는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우선 의료비용 측면 한가지만 보더라도 유승흠 교수의 「의료 공급자와 의료 수요자의 비용의식 고취를 통한 의료비 절감 방안」(유승흠, 1992) 에서 1990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국민 총의료비의 8.2%였고, 그 구성비는 1995년에 9.0%, 2020년에는 16.9%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단적으로 우

리는 노인인구에 대한 앞으로의 비용부담의 급증현상에 대처하는 보건의료의 국가정책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다.

나. 노인인구의 사회복지 문제의 심화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비율의 증가에 따른 부양 부담의 증가는 앞에서 본 보건의료보장 측면에서 의료비용의 비율 증가와 같은 양상으로 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인구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발을 요하는 주요 분야임에 틀림없다.

노인문제는 어느 의미에서는 곧 노인부양체계의 문제이다. 그간의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전통문화에 대한 냉대와 서구문화의 맹종풍토는 오늘날 노인부양문제를 전통적인 노인의 가족 내 부양체계에서 국가에 의한 노인의 사회보장체계로 이행하는 과도적 양상을 띄게 하고 있다. 그 어느 형태이던 노인에 대한 부양은 근본적으로 생계를 위한 ① 노인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생활공간으로서의 주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소득보장을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 및 교직원 연금 등 일반 연금이 체계화 되었으나 국민연금은 아직 전국민에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연금이 체계화 되었어도 시기적으로 연금의 수혜 대상으로 이르지 못하는 연령층의 기성그룹들에 대한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 연금 외에 노후보장을 위한 상업보험의 선택이 가능하나 대체로 상업보험의 실용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소득보장이 완벽하지 못한 현실성으로 장래의 노인인구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국가 사회적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에 의한 가족 내 부양이 가능한 노인의 경우는 비교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못한 피부양대상 노인인구는 공적부

조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의 확대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표 4-2>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표(중립적가정: 88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갹출수입	이자수입
1990	22595	10189	423	9756	8340	1849
1995	101724	31533	4737	26796	22674	8859
2000	279387	73133	18279	54854	47334	25799
2003	412994	91327	33312	58015	54879	36448
2005	547610	108248	20298	87950	59610	48638
2008	784405	138583	28280	110303	67181	71402
2010	961021	160315	36692	123623	72575	87740
2015	1423588	210766	73151	137615	88622	122144
2020	1823538	267666	144051	123615	105636	162030
2025	1893668	282692	247269	35423	120274	162418
2028	1729872	283795	307255	-23459	128114	155681
2030	1503027	273875	353037	-79162	133510	140365
2035	620540	220427	415960	-195533	150645	69782
2038	-128030	178855	438256	-259401	161318	17537
2040	-662229	170292	446570	-276278	168708	1584
2045	-1869594	190960	451806	-260846	190960	0
2050	-2765631	216301	429573	-213272	216301	0

주 : 1990년은 12월말 실적치

국민연금의 재정추계의 예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인구 노령화에 따른 연금의 부담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표 4-3> 가정별 국민연금 재정추이(1988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연도	중립적가정		낙관적가정		비관적가정	
	적립금	수지차	적립금	수지차	적립금	수지차
1990	19243	8466	19243	8466	19243	8466
1995	101724	26796	102026	26408	99561	26340
2000	279387	54854	280601	53929	271659	54189
2005	547610	87950	563870	91351	526920	85466
2010	961021	123623	1027341	135219	905490	116233
2015	1423588	137615	1597448	163057	1295693	121101
2020	1823538	123615	2192716	172375	1559252	88797
2024	1913992	53738	2516328	123195	1475686	-175
2025	1893668	35423	2566424	111468	1401224	-24560
2028	1729872	-23459	2645422	74454	1045876	-105202
2030	1503027	-79162	2608644	35826	662089	-178746
2034	836475	-172393	2434319	-12918	-365258	-284615
2035	620540	-195533	2362878	-23710	-652127	-297507
2040	-662229	-276278	1859209	-80658	-2041570	-318047
2045	-1869594	-260846	1146692	-130952	-3229624	-302782
2050	-2765631	-213272	301858	-165979	-4074018	-250296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1988년도부터 도입하여 1단계 확대책으로 추진해 온 전 피용자(5인 이상 고용 사업장)적용을 목표로 하여 1992년 부터 그 목표를 실현케 되었으며 제2단계는 농어민 및 농어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994년도부터, 그리고 제3단계로는 도시 자영자에 대하여 2000년부터 적용토록 하므로서 전국민에 대한 노령연금에 의한 노후기초 소득 보장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피용자에 대한 연금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재정소요의 엄청남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한 연금재

정추계모형은 가입자의 갹출수입과 적립금의 이식수입에만 의존하는 순수재정적립방식으로서 그 추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1단계는 제도실시 연도인 1988년부터 가입기간 15년 이상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나타나기 전인 2002년까지로써 이 단계에서는 당년도 수지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적립금이 축적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둘째, 제2단계는 노령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2003년부터 당년도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2027년까지로서 이 기간의 특징은 적립금의 증가추세도 둔화되고 가입자 또한 감소되기 시작한다. 끝으로 제3단계는 수지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28년 이후로서 불과 10년만에 적립금이 고갈되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 연금제도의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표 4-2 참조>(정경배, 1990).

다음으로 노인의 주택문제는 일반주택을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부양가족과 더불어 해결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적 수용시설이 요구된다. 주택문제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주거환경이 보다 편리할 것이고, 노인들만의 집단주거시설로서의 실버타운같은 것의 개발도 주거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형태이던 편안한 노인주거환경을 개발해 나간다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요구되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해를 거듭할수록 그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소득보장이나 주택보장 외에도 노인들이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라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년을 연장하거나 단순 노동인력으로서 노인인구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일이나, 노인들의 기능훈련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 등을 제도적으로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과 가치규범의 변화에 의한

노인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가족내에서의 세대간 갈등문제와 더불어 더욱 더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노인들의 전향적인 노후생활 자세유도, 가정에서의 부모공경 풍토조성,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 등의 정책적 노력도 복지대책의 간접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로 건강한 노인은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사회에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출산수준의 감소와 신규생산연령인구

가. 출산수준의 변화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2년 정부가족계획사업이 도입된 이후 큰 변화가 있어 왔다.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사업으로 도입되기 이전인 1960년의 합계출산율은 자연출산력에 불과 2.0명이 적은 6.0명 수준이었으나 정부가족계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의식수준의 변화, 보건수준의 향상등으로 출산수준은 급격하게 낮아져 1984년에는 대체출산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출산수준의 저하는 계속되어 1987년에 1.6명 수준으로 낮아진 합계출산율은 현재까지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율은 1960년 3% 수준에서 1990년에는 1%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향후 인구증가율은 계속적인 저하를 보여 2021년경에는 0%에 이를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수준에 이르고 이 수준이 지속된다면 통상 2세대 정도의 기간이 지난 60년을 전후하여 인구는 정지수준에 이르며, 그 이후는 출생과 사망수준이 같아져 안정인구를 지속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대체출산수준이 2.1 수준에 이른 후에도 출산수준의 저하가 계속되어 인구증가율이 0%에 이르는 시기는 2021년경이 될 것으로 전

망되어 대체출산에 이른 시점부터 불과 37년 정도 경과한 시점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5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한다면 우리 나라는 매우 급격한 인구증가율의 저하를 경험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증가율의 저하는 과대한 인구규모가 주는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구구조상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이르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출산수준의 저하는 인구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와 1960년에 다산 다사형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종형의 인구구조를 거쳐 점차 선진국형인 항아리 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특징은 유소년인구비율의 감소와 노년인구비율의 증가와 함께 국가의 복지수요 증가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우리 나라와 같이 결혼 시 남자의 연령이 많은 경우 결혼적령인구의 성비 불균형과 같은 문제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나. 신규생산연령인구의 변화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1960-70년 기간 중 연평균 2.5%, 1970-80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3.1%의 증가를 보였으나, 1980년 이후 그 증가속도가 둔화되어 1980-90년 기간 중에는 2.3%로 낮아지고, 2010-20년에는 연평균 0.2%의 아주 낮은 증가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에는 감소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와 같이 15-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1960년 13,698천명에서 2020년에는 36,148천명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나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보면 15-24세 인구는 1960년에 4,741천명에서 1990년에는 8,753천명으로 증가되지만 1990년 이후로는 감소되어 2000년에 7,721천명, 2021년에 6,413천명으로 각각 전체의 16.5%, 12.7%가 될 전망이다. 25-44세 인구는 1990년 13,894천명으로 32.4%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16,842천명으로 36.0%에 이르나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되어 2021년에는 13,853천명으로 27.4%에 이를 전망이다. 45-64세 인구는 1990년 7,000천명으로 16.3%에서 2000년에 9,142천명에 19.5%가 되고 2021년에는 15,707천명으로 31.1%를 점하게 될 것이다.

<표 4-4> 생산연령인구의 변동추이

(단위 : 천명, %)

연 도	15-24		25-44		45-64		계	
	인구	%	인구	%	인구	%	인구	%
1960	4,741	19.0	5,985	23.9	2,973	11.9	13,698	54.8
1970	5,838	18.1	7,908	24.5	3,794	11.8	17,540	54.4
1980	8,613	22.6	10,056	26.4	5,048	13.2	23,717	63.2
1990	8,753	20.4	13,894	32.4	7,000	16.3	29,648	69.2
2000	7,721	16.5	16,842	36.0	9,142	19.5	33,705	72.0
2010	6,493	13.1	16,144	32.5	12,868	25.9	35,505	71.5
2020	6,474	12.8	13,962	27.6	15,712	31.1	36,148	71.5
2021	6,413	12.7	13,853	27.4	15,707	31.1	35,973	71.1

자료 : 1960-198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0-1985년 추계인구, 1988.12
1990-202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4

다시 15-19, 20-24세의 신규생산연령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생산연령에 들어서는 15세 인구는 출생아 수가 1960년을 정점으로 1961년부터 감소하는데 따른 영향으로 1975년을 정점으로 1976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5-19세 연령층의 인구는 1960년 2,418천명에서 1980년까지는 연평균

3.2%로 증가하여 4,519천명에 이르나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1970년 보다 낮은 수준인 3,165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20-24세 인구는 1960년 2,322천명에서 1990년 까지는 연평균 2.1%의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여 4,288천명에 이르고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3,308천명에 이를 전망이다(<표 4-5> 참조).

생산연령인구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계속증가를 보이나, 신규생산연령인구인 15-24세 인구는 1980-90년 이후부터 감소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충원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취학률의 변화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즉, 1990년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남자 89.4%, 여자 84.3%로서 1985년에 비하여 남자 7.4%「포인트」, 여자 9.3%「포인트」의 빠른 증가를 보였으며, 이중 여자의 취학률이 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아직도 상승의 여지가 있으나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는 조만간에 상한선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며, 1990년의 대학취학률도 남자 50.8%, 여자 24.0%이지만 대학 정원의 증원이 확대될 전망으로 취학률의 증가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21세까지의 학령인구의 취학률 증가는 노동시장진입시기를 그만큼 늦추는 효과를 나타내 실질적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같은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1990년 이후의 신규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더욱 악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 출산수준과 신규생산 연령인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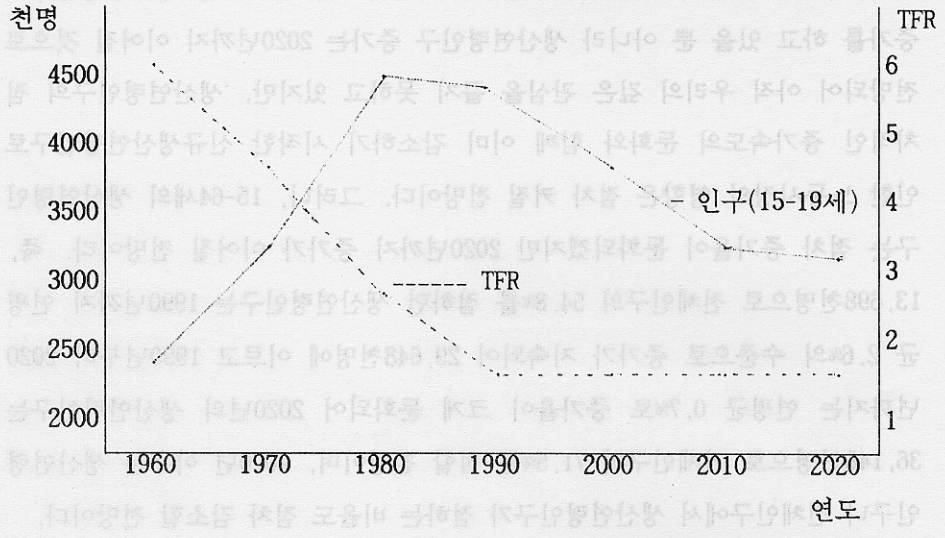
출산수준과 신규생산 연령인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출산수준의 변화가 즉시 신규생산연령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15년 후에는 15세의 인구변동에 직접적인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영향은 경제활동연령을 벗어나는 50년 동안 생산연령인구 규모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단기적인 측면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6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출생인구의 영향으로 1975년 15세 인구는 정점을 이루나 그 이후는 감소하게 되어 그 영향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까지는 전체적인 생산연령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증가는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아직 우리의 깊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생산연령인구의 점차적인 증가속도의 둔화와 함께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신규생산연령인구로 인한 노동시장의 영향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점차 증가율이 둔화되겠지만 2020년까지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즉, 13,69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54.8%를 점하던 생산연령인구는 1990년까지 연평균 2.6%의 수준으로 증가가 지속되어 29,648천명에 이르고 1990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0.7%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2020년의 생산연령인구는 36,14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71.5%를 점할 전망이며, 2020년 이후는 생산연령인구나 전체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점하는 비율도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198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15-19세 인구는 높은 취학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196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출산율이 신규생산연령인 15-19세 연령 군에는 1980년 이후부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생산연령인구측면에서는 이보다 40년이 늦은 2020년 이후부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신규생산연령에 속하는 20-24세 연령 군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1990년 이후부터는 점차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림 4-1〉 합계출산율 및 15-19세 인구의 변동



<표 4-5> 15-19, 20-24세 인구의 변화추이

(단위 : 천명)

	15 - 19			20 - 24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1960	1,248.9	1,169.5	2,418.4	1,171.4	1,151.3	2,322.7
1970	1,688.2	1,581.1	3,269.3	1,314.8	1,254.2	2,569.0
1980	2,344.0	2,175.7	4,519.7	2,078.1	2,015.3	4,093.4
1990	2,297.0	2,167.0	4,464.0	2,205.2	2,083.5	4,288.6
2000	1,969.3	1,832.4	3,801.7	2,023.1	1,896.3	3,919.4
2010	1,717.1	1,558.2	3,275.3	1,704.6	1,513.1	3,217.7
2020	1,640.1	1,525.1	3,165.2	1,714.5	1,593.8	3,308.3

자료 : 1) 1960-198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

2) 1990-2020, 통계청, 1991a.

3.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

1990년 현재 국민학교 이상의 학령인구는 약 1,342만 명으로 총인구 4,287만 명의 31.3%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실제 취학인구는 1,081만 명으로 총인구의 25.2%에 이르러 국민 4명중 1명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셈이 된다.

그 동안 학령인구는 1980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출산력의 감소로 이 시기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영향이 있겠으나 그 동안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표 4-6 참조)로 대도시 국민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981년 64.0명에서

1985년에는 60.0명 그리고 1991년에는 50.0명으로 감소되어(대한민국정부, 1992), 대도시로의 유입인구가 컸음에도 상당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고조로 취학률은 크게 높아져 가고 있다. 즉, 1980년 고등학교 취학률이 63.5%, 대학취학률이 15.9%였으나, 1990년에는 각각 86.9%, 37.8%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표 4-6> 연도별 정부예산 대 교육부예산

(단위 : 백만원)

연 도	정부예산 (A)	교육부예산 (B)	B/A (%)
1960	41,995	6,381	15.2
1970	446,273	78,478	17.6
1980	5,804,061	1,099,159	18.9
1985	12,532,362	2,492,308	19.9
1990	22,689,433	5,062,431	22.3

자료 : 교육부, 1992.

고등교육이수자의 취업 난이 갈수록 가중되는 등, 고학력자의 취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육환경의 개선은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령인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환경의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가. 학교급별 학생수의 변화

(1) 학령인구의 변화

학령인구(6-21세)는 1960년에서 1980년까지는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여 8,552천명에서 14,401천명으로 증가하나 그 이후는 1980년에서 1990년까지는 연평균 0.7%의 감소를 보여 1990년에는 13,419천명에 이르고, 1990년에서 2020년까지는 연평균 1.12%로 감소해 2020년에는 이보다 훨씬 감소한 9,57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계속된 출산수준의 저하와 대체출산수준보다 낮은 출산율의 지속을 가정한 결과로 향후 현재와 같은 대체출산수준이하의 출산수준이 지속되는 한 학령인구도 지속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학교 급별 학령인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민학교(6-11세)의 경우 1960년 3,629천명에서 1970년에는 5,711천명에 이르러 연평균 4.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1990년에는 4,835천명으로 연평균 0.8%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그 이후도 지속되어 2020년에는 3,280천명으로 연평균 1.3%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학령인구(12-14세)는 1960년 1,566천명에서 국민학교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0년 보다 다소 늦은 1975년에 2,819천명으로 연평균 4.0%의 큰 증가율을 나타내며 증가하였다. 그 이후 1995년까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나 1995년 이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1960년 1,566천명에서 1990년에는 2,306천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은 1.3%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1990년에서 2020년까지는 연평균 0.8%의 감소율을 보여 1,805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표 4-7〉 학령인구의 변동추이

(단위 : 천명)

인구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10	2020
총인구	25,012	32,241	38,124	40,806	42,869	44,851	46,789	49,683	50,578
학령인구 (6-21세)	8,552	12,604	14,401	13,747	13,419	12,078	11,326	10,488	9,570
국민학교 (6-11세)	3,629	5,711	5,499	4,863	4,835	3,956	3,947	3,904	3,280
중학교 (12-14세)	1,566	2,574	2,599	2,780	2,306	2,467	1,937	2,007	1,805
고등학교 (15-17세)	1,417	2,101	2,671	2,709	2,627	2,401	2,121	1,974	1,870
대학교 (18-21세)	1,941	2,218	3,632	3,395	3,651	3,253	3,320	2,602	2,616

자료 : 통계청, 1991a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는 1960년 1,417천명에서 1990년에는 2,627천명으로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가장 많았던 1975년을 기준해서 볼 때 1960-75년 기간 중 연평균증가율 4.5%로 큰 증가를 보였으나 1975-90년 기간은 연평균 0.3%의 감소를 보였다. 1990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20년에는 1,870천명으로 연평균 1.1%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학학령인구(18-21세)는 1960년 1,941천명에서 1990년에는 3,651천명으로 연평균 2.1%의 증가를 보였으나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2020

년까지는 연평균 증가율은 1.1%의 감소를 보여 2,61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학교 급별 학령인구는 낮은 출산수준의 영향으로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즉, 1990-2020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1.3%, 0.8%, 1.1%의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2) 학교 급별 학생수 변화

학교 급별 학생수는 1960년 국민학교 3,621천명, 중학교 544천명, 고등학교 276천명,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98천명으로 총 4,539천명으로 총 학령인구의 53.1% 수준이었으나 1990년에는 국민학교가 34.5% 증가한 4,869천명, 중학교가 318.4% 증가한 2,276천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727.5% 증가한 2,284천명, 대학은 1,308.2%나 증가한 1,380천명으로 학교 급이 높을수록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되었고, 총 학령인구 중 80.5%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 30년 동안 27.4%「포인트」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정부의 꾸준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투자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학교 급별 학생수를 각 급별 적령인구와 비교하여 보면 국민학교가 1960년 99.8%에서 1990년에는 100.7%로 변화가 미미 하였다. 이는 국민학교가 일찍부터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어 해당학령인구가 모두 학교에 다니도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중학교 취학률은 1960년 34.7%에서 1990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98.7%가 되어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증가속도는 최근에 이를 수록 빨라져 1960-70년 기간 중에는 16.5%「포인트」

가 증가한 반면 1970-80년에는 무려 43.9%「포인트」의 증가를 보여 아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학교 급별 학생수의 변화

(단위 : 천명)

년 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계
1960	3,621	544	276	98	4,539
1965	4,941	751	427	135	6,254
1970	5,749	1,319	590	192	7,850
1975	5,599	2,027	1,123	280	9,029
1980	5,658	2,472	1,697	577	10,404
1985	4,857	2,782	2,153	1,192	10,984
1990	4,869	2,276	2,284	1,380	10,809
1992	4,560	2,336	2,126	1,492	10,514

주 :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

자료: 1) 교육부,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고등학교는 취학률은 1960년 19.5%이었으나 1990년에는 86.9%로 무려 67.4%「포인트」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학교만은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취학률은 1990년 37.8% 수준이지만 학생수의 증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즉, 1960년 98

천명에서 1990년에는 1,380천명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어, 취학률은 1960년 5.0%에 비하여 32.8%「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표 4-9> 학교 급별 취학률

(단위 : %)

연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0	99.8	34.7	19.5	5.0
1970	100.7	51.2	28.1	8.7
1980	102.9	95.1	63.5	15.9
1985	99.9	100.1	79.5	35.1
1990	100.7	98.7	86.9	37.8

주 : <표 4-7> 및 <표 4-8> 이용 산출 : 취학률 = (학생 수/학령인구) x 100

(3) 학교 급별 취학률 추이

1991-96년 기간 중 학교 급별 학생 수 변화의 특징은 국민학교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와 대학 학생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즉, 국민학교 학생 수는 1991년 4,759천명에서 1996년에는 737천명이 감소한 4,022천명으로 연평균 3.3%의 감소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에 비하여 대학 학생 수는 1991년 1,410천명에서 1996년에는 1,708천명으로 298천명이 증가 연평균 3.9%의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물론 대학의 학생 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진학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육에 대한 초과수요가 항존하는 상태임을 감

안할 때 대학생수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학취학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표 4-10〉 학교 급별 학령인구 및 학생수 전망

(단위 : 천명)

연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1	4,679 (4,759)	2,330 (2,232)	2,502 (2,211)	3,651(1,410)
1992	4,492 (4,563)	2,408 (2,331)	2,382 (2,079)	3,617(1,449)
1993	4,274 (4,378)	2,505 (2,405)	2,299 (2,009)	3,530(1,507)
1994	4,080 (4,203)	2,535 (2,499)	2,323 (1,984)	3,393(1,576)
1995	3,956 (4,071)	2,467 (2,468)	2,401 (2,085)	3,253(1,645)
1996	3,915 (4,022)	2,312 (2,365)	2,498 (2,159)	3,124(1,708)

주 : ( ) 학생 수

자료: 1) 학령인구 : 통계청, 1991a

2) 학생 수 : 홍문식외, 1991

학교 급별 학생수 변화에 따른 학교 급별 취학률 변화는 국민학교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적은 증가를 보인 반면, 대학에서는 취학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1991년에서 1996년의 변화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각각 95.8%, 88.4%에서 102.3%, 86.4%로 증가하였으나 대학교는 38.6%에서 54.7%로 무려 16.1%「포인트」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대학정원의 증원에 의한 학생수의 증가와 대학학령인구가 1996년에는 1991년 보다 14.4%가 감소하는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학교 급별 취학률 추이

(단위 : %)

연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1	101.7	95.8	88.4	38.6
1992	101.6	96.8	87.3	40.1
1993	102.4	96.0	87.4	42.7
1994	103.0	98.6	85.4	46.4
1995	102.9	100.0	86.8	50.6
1996	102.7	102.3	86.4	54.7

주 : <표 4-10> 이용 산출

산출공식 : (학생수 / 적령인구) x 100

나. 학급당 학생수 변화

(1) 학교 급별 학급당 학생수 변화

정부의 지속적인 학교 증설로 학급당 학생수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어 왔다. 즉, 국민학교의 경우 1960년에는 학급당 62.9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41.4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학급당 학생수 감소면에서의 교육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농촌지역은 학급당 학생수가 크게 감소하여 학급 수를 줄이거나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학교를 폐교시키는 사

례가 있는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계속적인 학교증설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비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매우 많다. 이와 같은 여건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학교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이 기대되며, 1991년 40.8명이던 학생수는 1996년에는 37.8명으로 감소되고, 동 기간중 대도시지역은 50.0명에서 45.0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표 4-12> 학교 급별 학급당 학생수 변화

(단위 : 명)

연 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60	62.9	60.1	55.8
1965	65.4	60.7	57.1
1970	62.1	62.1	58.2
1975	56.7	64.5	58.6
1980	51.5	65.5	59.8
1985	44.7	61.7	56.9
1990	41.4	50.2	52.8

자료 : 교육부,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한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960년 60.1명, 55.8명에서 1990년에는 50.2명, 52.8명으로 감소되어 국민학교 만큼 큰 폭의 감소는 아니지만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다.

<표 4-13> 국민학교 학급당 학생수

(단위 : 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학급당	40.8	40.2	39.6	39.0	38.5	37.8
(대도시)	(50.0)	(48.3)	(47.5)	(46.7)	(45.9)	(45.0)

자료 : 대한민국정부, 1992 : 186-187.

4. 차별출산력과 인구의 질

우리 나라의 출산 수준은 1960년 이후 정부의 노력과 개인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의 감소는 모든 집단에서 똑같이 감소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사회의 특성에 따라 출산수준의 변화정도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력에 관한 연구는 특성별 출산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한 사회의 출산수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출산수준의 조절이 필요한 인구정책에서도 출산수준을 낮추어야 할 집단이나 높여야 할 집단을 밝히고, 그 집단에 맞는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그 사회의 적정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표 4-14〉 모의 거주지별 출산율(여자 천명당)과 합계출산율(여자 1명당) — 1960, 1974, 1987 및 1990

	1960[1]		1974[1]		1987[2]		1990[3]		시부 대 군부의 비 (%)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1960	1974	1987	1990
15-19	22	48	6	16	1	9	1	9	2.18	2.67	9.00	9.00
20-24	223	291	135	192	92	156	54	115	1.30	1.42	1.70	2.13
25-29	316	354	262	298	165	177	184	201	1.12	1.14	1.07	1.09
30-34	250	308	129	206	40	35	52	41	1.23	1.60	0.88	1.27
35-39	184	237	42	103	4	13	6	12	1.29	2.45	3.25	2.00
40-49	81	115	15	45	4	3	-	3	1.42	3.00	0.75	-
TFR	5.4	6.7	2.9	4.3	1.5	2.0	1.5	1.9	1.24	1.48	1.33	1.27

자료: 1)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7: 89-93.

2) 문현상 외, 1989: 128.

3) 공세권 외, 1992: 208.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초혼연령이나 피임과 같이 직접 영향을 주는 중간변수가 있고 이들 중간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생활 수준과 관련되는 변수로 모의연령과 거주지 등 2가지의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의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하면 〈표 4-14〉 및 〈표 4-15〉와 같다.

<표 4-15> 모의 거주지 및 교육수준별 평균출산자녀수: 35-39세 기혼여자, 1974-1987

(단위 : 명)

	1974[1]	1976[2]	1984[3]	1987[4]	1990[5]
평균 (35-39세 여자)	4.39	4.07	2.96	2.60	2.35
1. 거주지					
시 부	3.76	3.55	2.75	2.45	2.24
군 부	5.01	4.60	3.53	3.01	2.79
(군부/시부)	(1.33)	(1.30)	(1.28)	(1.23)	(1.25)
2. 교육수준					
국민학교 이하	4.64	4.38	3.37	3.01	2.76
중학교	3.70	3.43	2.89	2.63	2.38
고등학교 이상	3.10	3.07	2.50	2.23	2.08
(국교/고교)	(1.50)	(1.43)	(1.35)	(1.35)	(1.33)

자료: 1)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7: 89-93.

2) Park, B.T. et al., 1979: 113-124.

3) 조대희 외, 1985: 31-32.

4) 문현상 외, 1989: 122-128.

5) 통계청, 1992

1960년에 농촌과 도시의 출산율 차이를 보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도시에서 보다 24%나 높았으며, 1974년에는 48%까지 높아졌으나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1987년 이후에 그 차이가 줄어 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30% 전후)을 유지하였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율의 차이의 패턴이 변하고 있

다. 연령집단을 20-24세, 25-29세와 30-39세의 셋으로 구분할 때, 출산율의 차이는 25-29세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극소하지만, 나머지 연령층에서의 차이는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 25-29세에서 출산율이 비슷한 것은 대부분이 25세 이전에 결혼하므로 이 연령층에서 혼인 비의 차이가 없고, 결혼 후 원하는 자녀수의 출산을 하는 연령이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출산율이 높았다. 그러나 20-24세 연령층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지역별 초혼연령의 차이 때문에 혼인비가 높은 농촌지역에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39세에서는 농촌의 출산율이 소자녀로 단산하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시에서의 출산율 감소속도가 더 빠르므로, 이 출산율에서 지역간의 비는 더 커진다. 그러나 1987년의 30-34세 연령층에서는 도시의 출산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연령층에서의 출산율 자체가 여자 1000명당 40이하로 낮아져서 직접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며, 때로는 도시지역 여자의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원하는 자녀의 출산이 30대에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 35-39세인 기혼여자의 출산자녀수를 연도별로 비교할 때에도 1974년 이후 농촌의 출산수준이 도시보다 높았다 (<표 4-15> 참조). 그러나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 이것은 <표 4-14>에서 1974년 보다 1987년에 농촌과 도시의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도 농촌의 출산수준이 도시 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1985년 이후 도시와 농촌간의 평균 출산자녀수의 차이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인구현상은 경제·사회개발의 진전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면, 사망력변천은 경제·사회개발과 함께 이루어 지며, 변천과정에서 인구집단간의 사망률의 차이는 개발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도시와 농촌의 사망률을 비교할 때

개발초기에는 개발의 혜택을 도시에서 먼저 받게 되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사망률의 차이가 커지다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농촌에서도 개발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그 차이는 감소하게 된다 (T.H.Kim, 1990: 141-172).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의 출산율의 차이도 사망률의 차이의 변화와 같이 농촌지역의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촌의 출산율 감소속도가 도시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오늘날 선진국의 예(Jones, 1982: 15)에서와 같이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율의 차이가 점차 좁아졌다고 하겠다.

남편과 부인의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의 수가 적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 현상이다 (U.N., 1973: 89).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더 많은 부인이 피임법을 사용한다 (T.H.Kim, 1981: 112-115 참조). 그러므로 교육수준과 출산력 사이에는 일반적인 역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출산력은 감소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ogue(1969: 693)는 교육정도와 출산력사이의 역의 관계는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며, 이것은 다른 어떤 변수와 출산력의 관계 보다도 강하고 변함없는 관계라고 단정하고 있다.

<표 4-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교육정도와 출산력의 관계는 명확히 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이 높았던 1974년이나 대체수준이하로 떨어진 1987년 모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자들의 출산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수준별 출산율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다. 즉, 1974년에 국민학교이하의 교육을 받은 집단의 출산율이 고등학교이상 교육을 받은 집단 보다 50%나 높았으나, 이 차이는 계속 감소하지만 1980년대에는 그 차이가 35%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교육정도별 차별출산력의 변화도 앞에서 거주지역별 출산율의 차이가 개발이 진행되면서 점차 감소하였다는 차별출산력의 변화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개발의 영향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미칠 때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계층간의 출산수준의

차이도 계속 감소할 것이다.

이상에서 출산력 수준의 감소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부인의 거주지별, 학력수준별로 그 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그 차이는 뚜렷하였다.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고학력의 부인들, 그리고 시부의 부인들의 출산수준이 저학력과 군부의 부인들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구정책의 두 가지 기본 목적인 '인구규모의 억제'와 '인구자질의 향상' 중 인구규모의 억제에만 치중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때 인구 규모의 억제는 성공할지라도 인구의 자질은 오히려 낮아질 우려를 낳게 한다.

1975년에 이미 출산력의 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출산력이 감소하고 있는 싱가폴의 경우 대졸 여자의 결혼 연기, 출산기피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1984년부터 신인구정책을 펴나가기에 이르렀다. 이 신인구정책의 배경은 대졸 어머니를 둔 자녀일 경우 더 많이 대학교육을 받을 것이고, 대학교육을 받은 자녀일 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다 (Evans, 1987: 2-3).

물론, 이 이론은 '대졸 부인만이 우수한 2세를 낳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유전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는 있으나(대한가족계획협회, 1985: 173-176),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상관관계와 교육투자에 따른 비용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Evans(1987: 3-8)의 분석이 싱가폴에서 대졸 여자의 결혼을 권장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낮은 교육수준의 부인들에게는 「두 자녀」의 제한을 강력하게 펴나가 대외경쟁력을 키운다는 정부의 신인구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5. 인구구조의 변화와 결혼

결혼과 관련된 인구학적 연구대상은 혼인연령, 혼인의 빈도, 혼인율, 그리고 유배우율 등이다. 결혼을 언제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는가는 출산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에서는 혼인연령과 혼인상태를 중심으로 1955년 이후 최근의 추세를 다루었다.

1955년이래 35년간 우리 나라의 초혼연령은 계속 증가하여 왔다. 남·여 모두 증가하였지만 증가의 폭은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훨씬 컸다. 1990년 남자의 초혼연령이 28.6세로서 1955년의 24.5세 보다 4.1년이 증가하였으나 여자의 경우 같은 기간에 5.1년이 증가하여 1990년의 초혼연령이 25.5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남·여의 결혼연령차이는 1955년에 4.1년이던 것이 1990년에는 3.1년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표 3-5> 및 <그림 3-2> 참조).

초혼연령의 연도별 증가정도를 비교하여 보면 남자의 경우 1966년까지는 증가속도가 비교적 빨랐으나 그 후 1980년까지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결혼시기는 현저히 늦어져 1990년까지 10년 동안에 1.3년이나 늘어났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는 달리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남·여간의 결혼연령의 차이는 1975년까지는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나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차이의 감소속도가 특히 빨라서 10년간에 0.8년이나 줄어들었다.

지역별 초혼연령의 변동추이를 보면 시부 보다 군부에서 초혼연령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시부에서 남자의 초혼연령이 1965년 이후 정체상태를 나타내다가 1980년 이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197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므로 시부에서 남·여간의 초혼연령의 차이는 1970년부터 1985년까지 15년 동안에 1.1년이나 감소하였으며 1985년 이후에는 2.8-2.9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농촌에서는 남·여 모두 1955년

이후 전기간 동안 비슷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35년간에 4.7년이나 늦어졌으며, 여자의 경우 같은 기간에 5.0년이 늘어나서 남·여간에는 약 4.0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남·여 초혼연령의 증가속도가 빨랐던 기간은 여자의 경우 1975년에서 1980년간이었다면 남자의 경우는 1985년 이후에 특히 두드러졌다.

시부와 군부의 초혼연령을 비교하면 1966년까지는 남·여 공히 시부에서 초혼연령이 군부에서 보다 약 2년 늦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이 차이는 급속히 줄어들어서 <그림 3-2>에서와 같이 1985년부터 농촌의 남자 초혼연령이 오히려 시부의 남자 초혼연령보다 늦어져서 1990년에는 군부의 남자 초혼연령이 시부의 경우보다 0.6년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도 농촌의 초혼연령의 상승속도가 도시보다 현저히 빨라서 초혼연령의 차이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1966년의 차이가 2년이던 것이 1990년에는 0.4년으로 감소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들은 그 동안에 경제·사회적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결혼연령이 상승하는 것은 교육수준의 향상, 도시집중과 잦은 이동,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특히 여자의 경우), 가족형태의 변화,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김유경외. 1987: 100-110). 특히 시부의 경우는 1965년 이후 남·여 공히 결혼연령에 변화가 없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자의 초혼연령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군부에서는 남·여의 초혼연령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여자의 증가속도가 빨랐으며, 남자의 경우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결혼연령이 더욱 늦어져서 시부의 평균 보다 높아졌다. 여자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증가속도가 빨라졌다. 이것은 한국동란을 거쳐 '베이비 붐'을 겪은 사회에서 남·여간의 결혼적령기의 남·여성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난 여자들의 결혼시기인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여

자 20-24세 인구 100명당 남자 25-29세 인구 비인 결혼적령기의 성비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1980년에는 전국 평균이 77.6으로 극소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결혼적령기의 여자인구가 남자보다 20% 이상 많아서 적기에 결혼상대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 결혼에 유리한 남자의 결혼연령의 상승은 정체된 반면 불리한 여자의 결혼연령은 급속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의 성비가 75.7에 머무르고 있는 시부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표 4-16> 결혼적령기 (남자 25-29세, 여자 20-24세)의 성비추이, 1970-1990

(단위 : 여자 100명당 남자수)

	전 국	시 부	군 부
1970	89.6	84.9	92.9
1975	84.2	79.8	88.3
1980	77.6	75.7	80.1
1985	98.4	93.7	107.3
1990	103.3	100.9	114.3
2000	128.6		
2010	109.3		
2020	106.7		

자료: 1) 1970-1985 : 경제기획원, 1970-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2) 1990 :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1992.

3) 2000-2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그러나 시부에서 성비의 불균형현상은 1985년부터 없어졌지만 젊은 여자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1985년 이후에는 성비가 100을 훨씬 넘는 반대현상이 군부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1985년 이후 군부남자의 초혼연령의 상승 폭이 커져서 시부의 남자 초혼연령 보다 높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초혼연령의 변화는 경제·사회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으므로 이들 요인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초혼연령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평균 초혼연령이 1990년에 남·여 각각 28.6세와 25.5세로서 선진국의 평균초혼연령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앞으로 경제·사회적인 영향을 받아 초혼연령이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변화시킴으로서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과부족현상에 따른 결혼의 불리한 여건 때문에 결혼연령의 이상적인 상승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즉, 1980년을 전후하여 '베이비 붐' 시절에 출생한 여자의 결혼연령 상승과 군부여자의 도시이주에 따른 농촌의 성비불균형 현상에 따른 1980년대 후반의 농촌남자의 결혼연령 상승 등이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아선호와 출생아 수의 감소로 출생시의 성비가 116.9(1990년)에 이르렀고(통계청, 1992b), 또 출생아 수가 급속히 감소하는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적령기에 도달할 때에는 먼저 태어난 남자(25-29세) 인구가 여자(20-24세) 인구보다 많게 된다. 이 결과는 2010년경의 결혼적령기 남녀 성비가 128.6(통계청, 1991: 12)으로 불균형이 심화될 때에는 배우자선택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결혼연령은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자의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 또는 정체가 예상된다. '결혼의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인구에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미혼율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문제(예, 알코올

중독, 자살 등)가 늘어나고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T.H.Kim, 1990: 67-69 참조) 인구의 질은 저하될 것이다. 또한, 이 때의 출산수준은 높은 초혼연령, 미혼율의 증가(유배우율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지게 되므로 장래 인구의 성·연령별 구조는 더욱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Ⅴ. 인구현상의 변화와 「0」성장인구

1. 인구현상의 변화요인과 문제

가. 인구현상의 변화요인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망력의 변화나 차별사망력의 영향을 받는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로 유소년인구가 증가하고, 일정한 기간(15년 정도)이 지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 성별 차별사망력은 성비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사망력의 저하나 차별사망력의 지속이 성·연령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사망수준이 낮아지면서 감소하고 사망수준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흐려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에 평균수명이 70년을 상회하였으며 영아사망률도 출생아수 1000명중 10명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여자의 사망률이 남자보다 높은 연령층이 하나도 없으므로 사망력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출산력의 변화와 출생시 성비의 변화에 의한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영향을 정리하였다.

(1) 출산 수준의 감소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이었으나 1990년에 대체수준보다 훨씬 낮은 1.63명을 기록하고 있다 (<표 2-1> 참조). 한 인구의 출생아 수는 합계출산율과 가임연령 인구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2-1>에서 보면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합계출산율(TFR)이 높을 때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8·15해방 전후 사회혼란기와 6·25동란기에 출생한 가임기의 여성인구가 적음

으로 60년대 후반과 70년대 후반의 출생아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3.0미만에 이른 1980년이 지나면서도 출생아 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은 1960년 전후의 「베이비 붐」으로 태어난 출생아들의 재생산활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출생아 수가 급속히 감소하게 된 것은 최근의 출산율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수행으로 피임 실천율의 상승은 물론 피임실천자 중 불임수술이 약 50%에 도달한 것(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73)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me, 1990: 4).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또 하나의 원인은 인공임신중절이었다. 1988년의 합계출산율이 1.6명이었을 때 합계인공 임신중절률도 동일한 1.6회로 추정되었으며(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122) 1991년에는 합계인공 임신중절률이 1.9회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통계청, 1992: 67).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2.1명)에 도달한 1984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한 것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 계층인 20-24세와 25-29세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연령층이 합계출산율의 감소(2.1명에서 1.6명으로)에 기여한 정도가 81.9%에 도달한 것(김태헌, 1990: 78-79)도 이들 연령층에서의 인공 임신중절률이 높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ee & Cho, 1992: 28-29).

출산수준이 대체수준 이하에서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피임실천자 중 불임수술의 비중이 높고, 인공 임신중절률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여성의 초혼연령의 상승과 임신과 출산이 가장 왕성한 20대와 30대 초의 미혼비가 크게 상승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자의 초혼 연령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 0.8년의 증가를 보였던 여자의 초혼연령은 1980년 24.1세에서 1990년에는 1.4년이 늘어난 25.5세가 되었다(홍문식 외, 1991: 80). 초혼 연령의

증가는 임신·출산이 가장 왕성한 연령 계층(20-24, 25-29 및 30-34세)에서의 미혼 인구 구성비를 높였다. 20-24세 여자의 미혼비가 1970년의 57.2%에서 1980년에 66.1%로 8.9%「포인트」 증가하였으나, 1980년에 들어와서는 이미 상당히 높아진 미혼비가 10년 사이에 다시 14.6%「포인트」 상승하여 1990년에는 80.7%에 이르렀다. 25-29세에서도 1970년대 증가분 4.4%「포인트」에 비하여 1980년대에는 그 배에 가까운 7.7%「포인트」나 늘어나서 1990년의 여자 미혼비는 21.8%로 되었다. 30-34세에서도 미혼비의 절대값은 낮을지라도 1980년대에는 1970년대 증가분(1.3%「포인트」)의 두 배에 해당되는 2.5%「포인트」 증가하여 1990년 여자 미혼비가 5.2%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 전후의 「베이비 붐」 때 태어난 여자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4-5세 연상인 남자들과의 성비 불균형(<표 4-20> 참조)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아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 출생아수는 여자 1인당 출생아수와 가임 연령기의 여자인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1인당 출생아수가 감소할지라도 1960년 전후에 늘어난 여자인구가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1985년 전후부터 총 출생아수의 감소정도는 정체하거나 오히려 출생아수가 약간 늘어나는 추세(<그림 2-1> 참조)를 보이고 있다. 가임 연령인구의 구성비가 2000년(57.7%)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총 출생아수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력이 1.6까지 낮아진 현재의 출산이 집중되어 있는 20-34세의 인구구성비는 1990년(29.0%)까지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가 없는 한 -- 합계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 총출산 자녀수는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다.

(2) 성 선별 출산

낮은 이상자녀수와 강한 남아 선호관의 잔존도 출산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30세 미만 여자의 이상자녀수가 1980년대 후반에 1.8-1.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1992a: 302-303). 이상자녀수 자체가 대체출산수준(2.1명 정도)보다 낮았으며, 미혼비의 증가와 불임률의 경우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합계출산율 1.63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남아 선호관이 강하게 잔존함으로써 과거에는 출산수준을 높이던 것이 출산수준이 극히 낮아진 198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출산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표 5-1> 남아 출산 후 단산할 경우 이론적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가정) 1. 모의인구: 16명
2. 출생시 성비: 100.0
3. 남아출산시 단산.
4. 넷째도 딸일 경우 단산.

출생순위	출생아수	비고
첫째아	남아 8명	단산
	여아 8명	(계속 임신)
둘째아	남아 4명	단산
	여아 4명	(계속 임신)
셋째아	남아 2명	단산
	여아 2명	(계속 임신)
넷째아	남아 1명	단산
	여아 1명	단산

(종합) 총 출생아수: 30명
남·여별 출생아수: 각 15명
출생시 성비: 100.0
평균출산자녀수: 1.875명

이상자녀수가 2명 미만이고 강한 남아선호 현상이 남아있을 경우 남아가 출산하게 되면 단산하고, 여아일 경우 남아의 출산 시까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한 소자녀관의 바탕 하에서는 남아출산까지 출산아 수를 늘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자녀수보다 많이 넘지 않은 정도에서 남아출산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남아선호에 따른 출생시 성비를 높이게 되고, 평균 출산수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표 5-1>에서 남아출산 후 단산할 경우 이론적 출산 순위별 총 출생아수를 정리하여 놓았다. 이 때 고려한 가정은 모의인구를 16명으로 하였고, 출생아의 성비를 100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아가 출생하면 단산하고, 여아일 경우에는 계속 임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넷째가 딸일 경우 단산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5-1>에 의하면 16명의 어머니가 출산한 총 출생아수는 30명이었으며, 자녀수는 남·여 각각 15명씩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그런데 남아에 대한 집념이 강하고 소자녀관이 강할 수록 출산아 수를 제한하면서 남아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자녀수(1.8-1.9명)에 해당되는 둘째 아도 여아일 경우에서 셋째 출산 시 남아를 출산하고 단산을 할 수 있다면, <표 5-1>에서 셋째 아 중 여아 2명이 남아가 되고, 넷째 출산이 없게 된다. 이 때 총 출생아 수는 28명에 남아가 16명, 여아가 12명으로 성비가 133이 되며, 1인당 평균 출산아 수는 1.75명으로 <표 5-1>의 경우(1.875명)보다 0.125명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성 선별이 가능할 경우 성비의 불균형 원인이 되고, 출산수준을 낮춰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나. 인구현상의 변화에 따른 문제의 제기

1990년 인구를 기준으로 추계한 장래인구전망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1

년까지의 인구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우리 나라의 추계 인구는 50,586천 명이고 인구증가율은 -0.05%로서 「0」성장인구에 도달한다고 하였다(<표 2-1> 참조, 통계청, 1991a: 4). 그리고 자연인구증가율이 「0」%에 도달할 때의 인구를 선진국형 인구로 인정하고 선진국의 인구가 「0」성장에 도달하는 시기와 비교하고 있다 (통계청, 1991a: 7).

19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부터 우리 나라의 목표 인구를 성장률이 「0」%에 도달한 때의 인구로 정하고 출산억제정책을 수행하였으며, 1981년에 우리 나라의 인구가 「0」성장에 도달하는 시기를 2050년으로 정하였으나, 1986년에 2023년으로 수정하였고, 1991년 제7차 계획을 위한 추계에서는 그 시기가 2021년으로 당겨졌다.

인구가 이미 과밀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 나라 인구의 증가속도가 급속히 낮아지고, 최대인구도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성공이라고 하겠다. 새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인력관리나 주택정책 등 사회·경제정책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현상의 변화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며, 감소할 때에는 장려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예를 들어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동안 지속한 다음에 증가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인구의 변화는 경직성이 강하다.

1962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수행되기 시작한 이래 인구증가율이 「0」에 도달하기(2021년)까지 60여 년이 걸리는 것도 인구변화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6.0(1960년)에서 대체수준인 2.1(1984년)까지 낮아지는 데 24년이 경과한 후에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0」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구규모의 감소나 인구증가율의 감소현상을 상승으로 전환하는 데는 강력한 인구장려정책이 채택된 후 위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의 경직성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전망을 장기간(예를 들면 50년 또는 100년)에 걸쳐 함으로써 장래 인구현상을 고려한 사전의 인구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통계청이 1991년에 2021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를 2090년까지 연장하여 우리 나라 인구현상을 조망하였다(<표 5-2> 참조).

<표 5-2> 우리 나라 인구의 장래 전망 (1990-2090)

연도	총인구 (천명)	증가율[1](%)	인구구성비 0-14	15-64	65+	부양비(%) 계	0-14	65+
1990	42,869	0.87	.258	.692	.050	44.5	37.3	7.2
2000	46,789	0.60	.211	.720	.068	38.8	29.4	9.4
2010	49,683	0.18	.191	.715	.094	39.9	26.8	13.1
2020	50,578	-0.11	.160	.715	.125	39.9	22.4	17.5
2030	50,014	-0.48	.145	.667	.183	49.9	22.4	27.5
2040	47,648	-0.92	.145	.627	.228	59.5	23.1	36.4
2050	43,452	-0.99	.137	.619	.244	61.6	22.2	39.4
2060	39,339	-1.04	.141	.621	.238	60.9	22.7	38.3
2070	35,463	-1.06	.140	.614	.246	62.8	22.8	40.0
2080	31,910	-1.07	.137	.618	.245	61.9	22.2	39.7
2090	28,676	--	.140	.618	.242	61.8	22.7	39.1

주 : 1) 해당 년도부터 다음 10년간 평균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 전망(1990-2021)시 적용하였던 기준을 활용하여 추정기간을 연장하였음.

<표 5-2>는 1990년의 인구현상을 기준으로 하고 출산력과 해외인구이동은 동일하며, 사망률은 평균수명이 남자 75세, 여자 80세까지 상승한다는 가정

(통계청, 1991a 참조) 하에서 100년 간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는 2020년 경에 약 5,100만명 수준에서 최고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출산수준이 대체수준(2.1명)을 하회하는 1.63명을 1990년 이후 매년 적용한 결과이며 인구증가율 약 1% 수준에서 감소로 바뀔 때 까지 약 30년이 경과할 것이다. 그 후 우리 나라 인구의 감소속도는 더욱 빨라져서 2050년 경 이후에는 매년 1% 이상씩 감소하게 된다. 즉, 합계출산율 1.63명일 때 인구성장 속도가 1%의 증가에서 1%의 감소까지 2세대(약 60년)가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50년대에 1990년의 인구 규모 이하로 낮아져서 2060년에는 4,000만명 미만(39,339천명)으로 예상되며 그 후 다시 한 세대 후인 2090년에는 3,0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28,676천명으로 추계하였다.

인구규모의 증가와 감소가 교차하면서 인구의 절대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인구의 연령구조도 크게 바뀌게 된다. 피부양인구인 0-14세 인구는 출산수준의 감소로 2020년에는 16%로 감소하였고, 총 인구가 연 1%씩 감소하게 되는 2050년에는 총인구의 13.7%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도 5% 수준(1990년)에서 2020년에 12.5%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총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24.4%에 다다르게 된다. 그 후의 인구구조는 과거의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아 약간씩 변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제4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구규모와 연령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와 신규노동력 공급의 감소,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감소와 남아선호에 따른 결혼적령기 성비의 증대와 지속, 그리고 차별출산력의 지속에 따른 인구 자질의 저하 등은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인구증가현

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0」성장률을 계속유지하는 정지인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 우리 나라의 인구를 정지인구에 접근시키고, 그 특징을 논의함으로서 우리 나라 인구조절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2. 적정인구로서의 「0」 성장인구

가. 적정인구와 「0」성장인구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나 중국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때의 적정인구규모를 식량생산과 국력유지에 목표를 두고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인구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그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최근에는 최선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과 인구의 균형에서 적정인구의 규모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Sauvy, 1969: 58-60; Cloud, 1971: 8-41 등). 그 중에서 대표적인 Cloud(1971: 9)의 정의를 보면 '모든 사람이 무한정 높은 질의 삶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인간능력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에 충분히 큰, 그러나 질의 손상과 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잠재력 또는 생태계의 현명한 관리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인구'(권태환·김두섭, 1990: 54 참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적정인구나 삶의 질의 개념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다음 식과 같이 인구비(demographic quotient) Q를 제시하였다 (Cloud, 1971: 9-10). 적당한 1인당 자원소비량을 정할 수 있다면, Q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공급량에 따라 인구규모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Q = (총 가능자원)/[인구 x 1인당 자원소비량]

그러나, 적정인구의 개념에서 우리는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생활수준이나 소비수준을 정할 수 없으며, 정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인구는 이미 과잉상태에 있으므로 적정인구를 목표로 지향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구사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가 「0」성장인구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0」성장인구는 현대사회의 위기가 빠른 성장을 위한 자원의 빠른 소모에 기인하므로 경제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더딘 성장 또는 무 성장' 사회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0」 인구성장은 선진사회에서 성원의 보충이 정체되거나 감소됨으로써 소수 민족화 내지 민족의 소멸을 염려하게 되었으며, 현대산업사회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인구성장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적정인구로서의 「0」성장인구를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권태환·김두섭, 1990: 54-56 참조).

그러나 오늘날 서구사회의 실제 인구성장률은 「0」에 접근하고 있으며, 출산력의 감소로 인구규모가 감소한 경험이 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국가(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출산장려정책(양육비 보조, 산전·후의 유급휴가기간 연장 등)을 도입하여 절대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인구의 연령구조의 왜곡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UN, 1989 참조). 「0」성장인구에 대한 반론이 있으나, 절대인구 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은 목표인구를 「0」성장인구 내지 이에 접근하는 인구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0」성장인구의 필요성

앞에서 소개한 Cloud의 인구비(Q)는 총 가능자원의 양에 비례하고 인구규모와 일인당 자원소비량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생활수준(1인당 자원소비

량)을 높이면서 인구비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자면 인구 증가분보다 총 가능자원의 양의 증가가 빨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부터 1980년 까지 10년간 멕시코의 GDP성장률이 90%였으나 인구가 같은 기간에 34%증가하여 1인당 GDP는 28% 증가에 그쳤다. 반면에 미국은 GDP성장률(27%)이 멕시코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인구증가율이 8%로서 멕시코의 4분의 1 보다 낮았으므로 1인당 GDP의 증가율은 24%로서 비슷하게 되었다 (Weeks, 1986: 358, Figure 13.1). 우리 나라의 출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예이다. 당시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율이 연 3%나 되어 연 4-5%의 GNP 성장률을 잠식하였기 때문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개발의 지연 또는 저해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보건사회부, 1987: 263-264). 그러므로, 인구규모 자체가 극소하지 않은 한 가능한 총 자원의 양을 늘려주면서 인구의 증가를 억제한다면 인구비(Q)가 일정하다는 조건하에서 1인당 자원소비량이 늘어나면서 평균생활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1962년 이래 우리 나라에서 인구증가억제가 경제사회 개발계획의 주요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수행한 결과 1990년의 인구증가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 인구증가율이 「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현재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약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1.63명이었으며, 이 수준이 지속될 것이므로 인구증가율은 계속 낮아져서 2021년이 지나면서 절대인구는 감소하게 되며 2050년 경부터는 매년 약 1%씩 감소하게 될 것이다 (<표 5-2> 참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할 때 1인당 자원 소비량의 증가 보다는 신규노동력의 공급부족, 노동력의 여성화,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로 낮은 출산력과 절대인구의 감소는 경제사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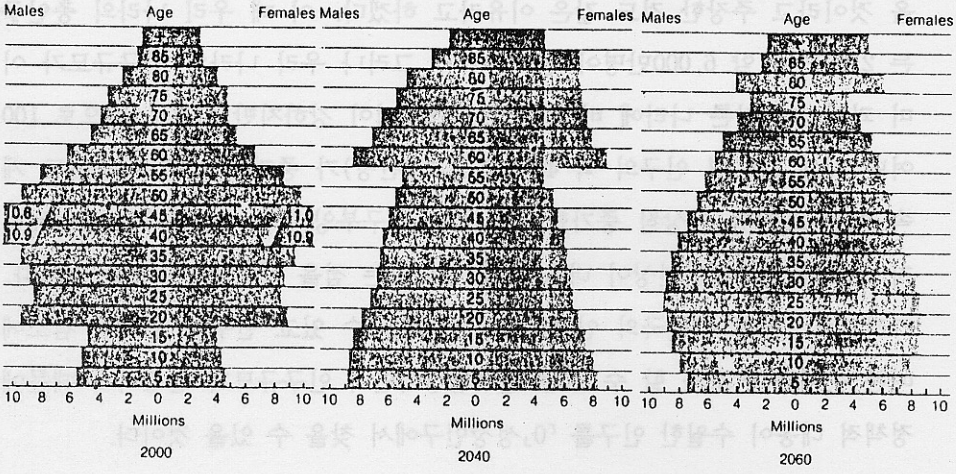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인구의 빠른 증가와 감소로 나타나는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사회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구의 「0」 성장이나 극히 더딘 성장을 고려하게 된다. 최근에 발표된 이번송·안홍식(1990)의 연구에서 21세기 후반의 인구감소 보다는 매년 약 0.5%의 증가를 유도할 때 경제적 부양비를 극소화하고, 국민 개인당 소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하겠다. 이 때 우리 나라의 총인구는 2100년에 약 6,000만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인구규모가 이미 과잉상태(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인 점이 강하지만)이므로 앞으로 100여년 내에 1990년 인구의 약 40%(약 1,800만명)가 증가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매년 30만명 이상씩 증가한다는 것은 인구부양비의 개선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나 인구밀집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선진국의 인구현상에서 찾을 수 있고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인구현상이면서 인구규모가 일정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수월한 인구를 「0」성장인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 「0」성장인구를 달성하는 방법

1990년 현재 약 1% 증가하고 있는 인구를 「0」성장인구에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1%의 증가를 「0」%로 당장에 낮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와 같은 인구현상의 변화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0」에 도달하는 2021년 이후에 인구증가율이 「0」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인구의 감소를 예측하여 사전에 인구 증가율의 감소속도를 조정하여 「0」성장인구에 접근시키는 것이다. 이 때 인구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출생, 사망 그리고 이동을 들 수 있지만, 사망율은 이미 낮은 상태에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간의 인구이동의 영향은 극소하므로 출산율의 변

화만으로 인구규모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림 5-1> 미국의 1980년 인구규모를 유지했을 때의 성·연령별 인구구조, 2000, 2040 및 2060



자료: Weeks, 1986: 236-237, Figure 8.7.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인구의 규모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출산율을 급속히 낮춰서 당장에 증가율을 「0」로 만드는 예는 Weeks(1986: ch.8 참조)가 미국의 인구를 추정한 예 중의 하나에서 잘 나타나 있다. Weeks는 1980년의 미국인구(227백만 명)의 규모가 계속 유지되도록 출산율을 낮출 경우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에 나타난 미국의 장래인구는 1980년 이후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연령별 인구구조가 극히 왜곡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경의 출산수준이 극히 낮았다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망자수의 증가로

출생아 수는 서서히 늘어난다. 1950년 전후 「베이비 붐」 시절에 태어난 인구가 노인이 되어 사망하는 2040년경부터 사망자수의 감소에 따라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아 출산율의 수준이 약 2세대(약 60년)에 걸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게 되며, 그 다음에도 출산율의 변화 폭은 작지만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면서 출산율이 대체수준에 접근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출산수준을 인위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왜곡된 인구구조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0」성장인구를 달성하는 두번째 경우는 인구증가율을 즉시 「0」로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인구의 증가폭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율이 「0」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인구변화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표 2-12>에서와 같이 2021년에 인구 성장율이 「0」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표 5-2> 참조). 그러므로, 2021년 이후에 인구 성장율을 「0」로 유지하자면 감소하는 인구의 타성을 반대로 돌려 놓아야하므로 합계출산력이 대체수준 보다 낮은 1.63을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2021년의 인구 50,586천명을 유지할 때 2100년까지의 인구현상의 변화를 <표 5-3>에 정리하여 놓았다. 이 인구추계를 위하여 이용한 연령별 생잔율과 이민율, 그리고 성비는 1990-2021년 인구추계에서 세웠던 가정과 동일하였으며, 다만 연령별 출산율만 조정하였다. 1990-2021년의 추계에서 이용한 연령별 출산율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수준만 증감시켜서 출생아 수가 당해 연도의 사망자수 및 이민수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표 5-3>에 의하면 2021년까지 1.63명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이 서서히 증가하여 2030년이 지날 때에는 2.29로서 대체수준을 상회하고, 2040년경에는 3.18을 기록하여 20여 년 전(2020년) 보다 약 두 배에 도달한 다음 다시

<표 5-3> 2021년의 인구규모[1]를 유지할 때 인구현상의 변화, 2020-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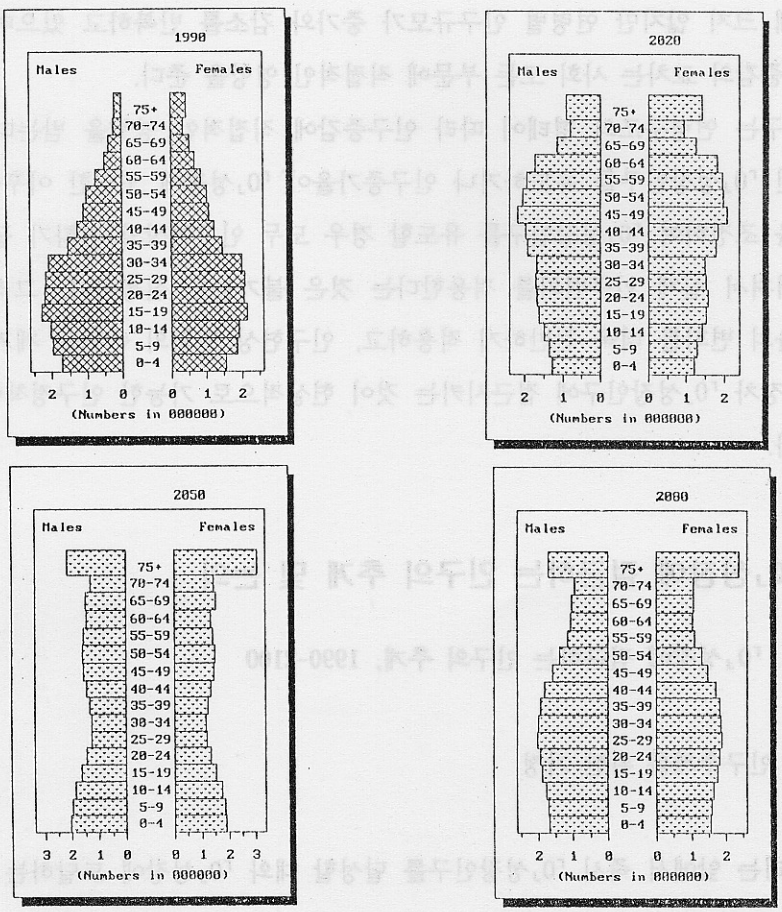
연 도	인구구성(%)			중위연령	CBR[2]	TFR[3]
	0-14	15-64	65+	(세)	(천명당)	(여자 1명당)
2020	16.0	71.3	12.7	40.9	10.06	1.65
2030	15.5	65.9	18.6	43.8	12.87	2.29
2040	19.2	58.8	22.0	43.4	15.40	3.18
2050	22.6	55.7	21.7	40.8	15.76	3.07
2060	23.1	57.6	19.3	35.6	14.56	2.26
2070	21.5	60.5	18.0	34.0	13.24	1.82
2080	19.6	64.2	16.2	35.4	12.30	1.71
2090	18.2	67.4	14.4	37.7	11.56	1.75
2100	17.2	67.5	15.3	40.3	-	1.81

주 : 1) 2021년의 인구: 50,586 천명.
2) 기준 년도부터 5년간 평균 CBR임.
3) 기준 년도부터 5년간 평균 TFR임.

감소한다. 30-40년이 지난 2080년 경에 1.75명으로 극소하게 되며 그 후에 다시 증가할 것이다. 80년간 합계출산율의 변화에서 출산수준이 극소하였던 2020년경에서 다음 극소한 시점(2080년경)까지 약 60년이 걸렸으며 그 수준은 전자 보다 후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그림 5-1>에서 미국의 인구구조 변화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약 2세대(60년간)에 걸쳐 인구현상이 순환하는 경우이며, 인구의 연령별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령별 인구구조는 출산율의 증감에 따라 변하였다. 노인인구는 2020년 까지 지속된 저출산율의 영향으로 2040년대 까지 증가하지만 2030년대부터 출생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2050년 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90년경에 최소에 이른 후에 다시 증가하는 순환을 이루고 있다. 0-14세 유소년인구는 출산율 증감의 영

향을 직접 받으므로 낮은 출산수준이 지속된 2020년대 까지 감소하다가 급속히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2050년대에 최대에 이르고 다시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이 생산연령(15-64세)인구에 직접영향을 미치게 되어 인구규모의 순환은 유소년인구의 경우와 반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인구현상의 변화에 따른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인구 피라미드으로 그렸다 (<그림 5-2> 참조).

<그림 5-2> 2021년의 인구를 유지할 때의 인구 pyramids, 1990, 2020, 2050 및 2080



<그림 5-1>의 인구구조와 비교하여 <그림 5-2>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훨씬 완만한 편이다. <그림 5-1>에서 나타났던 연령계층별 인구의 단절현상이 사라졌으며 출산율의 증감의 범위가 훨씬 줄었다. 그러나 이 추계에서도 감소하는 인구현상을 「0」성장으로 인위적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합계출산율은 1.63명에서 3.18명 까지 증가하게 된다. 출산조절정책의 수행으로 낮은 출산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지만 소자녀로 임신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직장과 취미생활을 즐기다가 출산수준을 2배정도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앞의 경우(<그림 5-1> 참조)와 비교할 때 인구지표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연령별 인구규모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감의 교차는 사회 모든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인구는 연령구조의 형태에 따라 인구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각적인 「0」성장인구를 유도하거나 인구증가율이 「0」성장에 도달한 이후에 출산율을 조정하여 「0」성장인구를 유도할 경우 모두 인구현상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져서 실제 인구변화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출산율의 변화를 더욱 완만하게 적용하고, 인구현상 변화의 순환을 제거함으로써 장차 「0」성장인구에 접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구정책이 될 것이다.

3. 「0」성장에 접근하는 인구의 추계 및 논의

가. 「0」성장에 접근하는 인구의 추계, 1990-2100

(1) 인구추계를 위한 가정

우리는 앞에서 즉시 「0」성장인구를 달성할 때와 「0」성장에 도달하는 2021

년 이후 「0」성장인구를 유지할 때의 출산율의 변동과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검토하였다. 이 때의 출산율은 비정상적으로 증감이 교차하고, 연령별 인구구조도 왜곡현상이 극심하여 현실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출산수준을 서서히 변동시키고, 연령구조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면서 「0」성장인구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였다.

(가) 기초인구, 사망률 및 해외이민

「0」성장인구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통계청(1991a)에서 1990-2021년 인구추계에 이용한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기초인구로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1990년 추계인구(<표 2-8> 참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령별 사망률도 통계청(1991a)의 추계인구에 이용한 생잔율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2020년에 남·여 각각의 평균수명 75세와 79세를 2100년 까지 연장하였다. 해외이민도 통계청의 추계자료인 연 20,000명의 순이민 수준이 2100년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성비 및 출산율

한편, 출생시 성비는 통계청의 경우 1990년에 114.7(기준인구 0세의 성비)에서 1995년 107.0 까지 감소한 후 그대로 지속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그러나 출생신고 자료에 의하면 말띠해인 1990년에 출생한 여아의 출생신고가 1991년에 이루어졌음(통계청, 1992b: 160-169 제7표의 월별 사망자수 참조)에도 불구하고 1991년 출생아의 성비가 112.8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2년의 신고자료(최종집계 전)에서도 성비의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수준이 당분간 더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의 출생시 평균성비를 113으로 가정하였으며, 이후 성비는 급속히 떨어져서 2000년부터 2005년 까지 평균 성비를 110으로 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107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성비 107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1995년 이 후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0」성장에 점근하는 인구추계에서 성비 107에 도달하는 시기를 10년 늦춘 것이 된다.

<표 5-4> 고·중·저위 「0」성장에 점근하는 인구 추계를 위한 합계출산율(여자 1명당)의 가정적용 연도

	인구성장 점근인구			통계청 추계인구
	고 위	중위	저위	1990-2021년
1. 합계출산율				
1.63	1990-2000	1990-2010	1990-2020	1990 이후 동일
1.63-2.1	2000-2020	2010-2030	2020-2040	
2.1	2020 이후	2030 이후	2040 이후	
2. 성 비	1990-2000: 113	〈좌동〉	〈좌동〉	1990-1995: 113
	2000-2005: 110			1995 이후: 107
	2005 이후: 107			

인구의 증감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로 출산수준의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수준을 상·중·하 세가지로 가정하여 「0」성장인구에 점근시키므로써 앞으로 인구규모의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보고, 적절한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세가지 가정은

우선 1990년의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의 가정과 같이 1.63으로 하고 이 수준이 당분간 지속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때 그 기간을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등 3가지로 하여 고·중·저위 인구추계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다. 합계출산율 1.63이 일정기간 지속된 후 20년 동안 합계출산율을 대체수준인 2.1명 까지 높여 주고 그 이후에는 대체수준을 지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상의 고·중·저위의 「0」성장에 점근하는 인구의 추계를 위한 가정을 정리하면 <표 5-4>와 같다.

(2) 「0」성장에 점근하는 인구의 추계

앞에서 가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0」성장에 점근하는 인구의 고·중·저위 인구를 2100년 까지 추계하였다. 고·중·저위 인구추계에 <표 5-4>의 합계출산율과 성비 자료를 이용하였다.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PC용 프로그램으로 PEOPLE Version 3.0 (Leete, 1992)을 이용하였다. 1990년부터 2100년 까지 추계한 고위, 중위, 저위 「0」성장인구 (부록의 연도별 인구 참조)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5-5>와 같다.

<표 5-5>의 세가지 추계인구를 요약하여 <표 5-6>에서 비교하였다. 고위추계에서는 2030년에 53,138천명으로 최대인구에 도달하고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100년에 46,786천명으로 정지인구에 도달하고 있다. 중위추계에서는 고위추계 보다 약 160만 명이 적은 최대인구 51,503천명(2030년)에 도달한 후 감소하여 정지인구에 도달한 2100년의 인구는 42,387천명으로 고위추계에 비하여 약 440만 명이 적다. 저위추계에서는 2025년에 50,690천명이 최대인구가 되며, 정지인구에 도달한 2100년에는 고위추계와 중위추계 보다 각각 약 840만 명과 400만 명이 적은 38,421천명이다. 세가지 추계인구에서 최대인구에 도달한 시기인 2025-2030년경의 인구증가율이나 부양 인구비에는 뚜

<표 5-5> 「0」성장에 접근하는 추계인구 : 고위, 중위, 저위, 1990-2100

(1) 고위[1] 「0」성장인구

연도	총인구(천명)	인구증가율(%)[2]	인구부양비(%)			중위연령 (세)
			0-14	65+	계	
1990	42,869	.92	37.4	7.2	44.6	26.9
2000	46,792	.73	29.4	9.5	38.9	31.6
2010	50,075	.47	27.7	13.3	41.0	36.3
2020	52,170	.25	26.1	17.8	43.9	39.9
2030	53,138	-.03	27.6	27.5	55.1	41.9
2040	52,526	-.30	29.5	35.0	64.5	41.9
2050	50,868	-.34	30.3	36.0	66.3	41.2
2060	49,292	-.25	30.7	32.4	63.1	40.0
2070	48,234	-.15	30.8	30.8	61.7	39.5
2080	47,591	-.10	30.7	29.8	60.4	39.3
2090	47,153	-.08	30.9	29.3	60.1	39.1
2100	46,786	-	30.8	29.4	60.2	39.2

주 : 1)TFR이 2000년 까지 1.63을 유지하고, 그 후 증가하여 2020년에 2.1에 도달한 후 지속.

2) 기준 년도부터 5년간 평균 증가율임.

〈표 5-5〉 (계 속)

(1) 중위[1] 「0」성장인구

연 도	총인구(천명)	인구증가율(%)[2]	인구부양비(%)			중위연령 (세)
			0-14	65+	계	
1990	42,869	.92	37.4	7.2	44.6	26.9
2000	46,792	.69	29.4	9.5	38.9	31.6
2010	49,675	.33	26.5	13.3	39.9	36.5
2020	51,018	.14	23.2	17.9	41.1	40.7
2030	51,503	-.11	25.6	28.2	53.8	43.2
2040	50,364	-.46	28.6	36.7	65.3	43.6
2050	48,041	-.46	28.8	38.3	67.0	43.1
2060	46,015	-.38	30.6	35.3	65.9	41.0
2070	44,426	-.28	31.1	33.9	64.9	40.1
2080	43,358	-.15	30.3	30.6	61.0	39.6
2090	42,798	-.10	31.0	29.1	60.1	39.0
2100	42,387	-	30.8	30.0	60.7	39.3

주 : 1)TFR이 2010년 까지 1.63을 유지하고, 그 후 증가하여 2030년에 2.1에 도달한 후 지속.

2) 기준 년도부터 5년간 평균 증가율임.

〈표 5-5〉 (계 속)
(1) 저위[1] 「0」성장인구

연 도	총인구(천명)	인구증가율(%)[2]	인구부양비(%)			중위연령 (세)
			0-14	65+	계	
1990	42,869	.92	37.4	7.2	44.6	26.9
2000	46,792	.69	29.4	9.5	38.9	31.6
2010	49,675	.29	26.5	13.3	39.9	36.5
2020	50,680	.00	22.3	17.9	40.1	40.9
2030	50,458	-.23	22.8	28.3	51.1	44.0
2040	48,882	-.55	26.6	37.5	64.1	44.8
2050	46,091	-.63	27.9	40.1	68.0	44.9
2060	43,443	-.50	29.0	37.6	66.6	43.1
2070	41,451	-.41	31.0	36.9	67.9	41.1
2080	39,900	-.28	30.6	33.7	64.3	40.3
2090	38,943	-.15	30.7	30.0	60.7	39.4
2100	38,421	-	30.9	29.8	60.7	39.2

주 : 1)TFR이 2020년 까지 1.63을 유지하고, 그 후 증가하여 2040년에 2.1에 도달한 후 지속.
2) 기준 년도부터 5년간 평균 증가율임.

렷한 차이가 있었으나 정지인구에 도달한 2100년의 인구구조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가 모든 추계자료에서 각각 약 30정도였으며, 중위연령은 39.2-39.3세로서 동일하였다.

인구증가율이 0.1% 이내에 도달하여 정지인구에 접근하는 시기는 출산력이 대체수준에 도달한지 약 2세대(60년)가 지난 2080-2100년 경이었다. 기초인구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약 60년 후에 정지인구에 도달하지만 이때의 인구는 「0」성장률에 점근하면서 「0」성장인구가 되기 때

<표 5-6> 고위, 중위, 저위 추계인구의 비교, 1990-2100

	고 위	중 위	저 위
최대인구(천명)	53,138	51,503	50,690
도착년도	2030년	2030년	2025년
인구증가율(%)	-0.03	-0.11	0.09
인구부양비(%): 0-14	27.6	25.6	21.9
65+	27.5	28.2	23.0
중위연령(세)	41.9	43.2	42.7
2100년 인구(천명)	46,786	42,387	38,421
인구부양비(%): 0-14	30.8	30.8	30.9
65+	29.4	30.0	29.8
중위연령(세)	39.2	39.3	39.2
인구증가율 범위: 최고	0.92	0.92	0.92
최저	-0.34	-0.46	-0.63
0.1%이내의 차이로 정지 인구에 접근하는 시기	2080	2090	2100

자 료 : <표 5-5> 및 부록표.

문에 앞에서 논의한 1990년 현재 인구구조에서 바로 「0」성장인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2021년에 「0」성장에 도달한 시기부터 「0」성장률이 지속되도록 출산율을 조정하였을 때 출산율의 증감이 교차하는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다. 추계결과에 대한 논의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는 최근에 급속히 낮아진 출산수준의 영향으로 유소년인구의 구성비가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기초로 장래인구를 추계한 통계청(1991a)의 추계인구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추세가 진행된다면 성·연령별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며,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2장 및 제5장 1절 참조). 이미 과잉상태에 있는 인구규모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앞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하의 장래인구추계를 수행하였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의 추계인구를 비교하고 앞에서 제기된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인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가지의 추계인구는 기존의 통계청 추계인구(1990-2021)를 2090년 까지 연장한 것과 통계청 추계인구에서 「0」성장에 도달한 2021년의 인구(50,578천명)가 그대로 유지할 때 2100년 까지 추계한 인구, 그리고 「0」성장인구에 점근하도록 출산수준을 조절하여 2100년 까지 추계한 인구이다. 「0」성장인구에 점근하도록 추계한 인구에는 고위, 중위, 저위 등 3가지 추계인구가 있는 데 그 중에서 최대 인구규모(51,903천명), 인구증가율의 변동폭(최저 -0.46%), 정지인구에 도달하는 시기(2090년) 등이 중간에 해당되는 중위추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표 5-7>은 위의 세가지 추계인구의 특성을 비교하여 놓은 것이다. 이미 앞의 두 추계인구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5장 1절 및 2절 참조). 즉, 통계청 추계인구를 연장한 인구에서는 2021년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경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한다. 2090년의 인구가 28,676천명으로 100년 전의 기준년도(1990년) 인구(42,869천명)의 3분의 2에 불과하게 된다. 낮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게되므로 2090년의 인구부양비가 39.1이고, 중위연령이 46.5세가 되어 노령인구의 비대와 유소년인구의 과소로 노동력 부족과 노인부양부담이 극에 달할 것이다.

<표 5-7> 통계청 추계인구의 연장, 2021년 이후 「0」성장인구, 및 「0」성장인구에 점근하는 추계인구(중위)의 비교, 1990-2100

	통계청 추계[1)4)] 인구의 연장	2021년 이후[2)] 「0」성장인구	「0」성장에 점근하는[3)] 추계인구(중위)
1) 총인구(천명)			
1990	42,869	42,869	42,869
2020	50,578	50,578	51,018
2050	43,452	50,586	48,041
2100	28,676	50,586	42,387
2) 최대인구(천명)	50,586	50,586	51,503
(연도)	(2021)	(2021 이후)	(2030)
3) 인구증가율(%)[5)]			
1990	.91	.91	.92
2020	-.03	.11	.14
2050	-.98	.00	-.46
2100	-1.07	.00	-.09
4) 인구부양비(%)			
2050: 0-14	22.2	39.0	28.8
65+	39.4	40.6	38.3
2100: 0-14	22.7	22.7	30.8
65+	39.1	25.5	30.0
5)합계출산율(명)[5)]			
1990	1.63	1.63	1.63
2020	1.63	1.65	2.10
2050	1.63	3.07	2.10
2100	1.63	1.81	2.10

	통계청 추계[1)4)] 인구의 연장	2021년 이후[2)] 「0」성장인구	「0」성장에 접근하는[3)] 추계인구(중위)
6) 중위연령(세)			
1990	26.9	26.9	26.9
2020	40.8	40.9	40.7
2050	46.3	40.8	43.1
2100	46.5	40.3	39.3

주 : 1)통계청(1991a)의 1990-2021년 추계인구를 2090년 까지 연장한 인구임.
2)통계청(1991a)의 1990-2021년 추계인구에서 「0」성장한 2021년 인구의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2100년까지 연장한 인구임.
3)2010년 까지 통계청(1991a)의 추계인구를 적용하고 그 후 TFR이 증가하여 2030년에 2.1에 도달한 후 동일 하게 유지될 때 2100년 까지 추계한 인구임.
4)2090년까지의 추계인구이므로 2100년에 해당되는 숫자는 2090년의 자료임.
5)기준 년도부터 5년간의 평균지표임. 단, 2100년의 경우 2095-2100년간의 평균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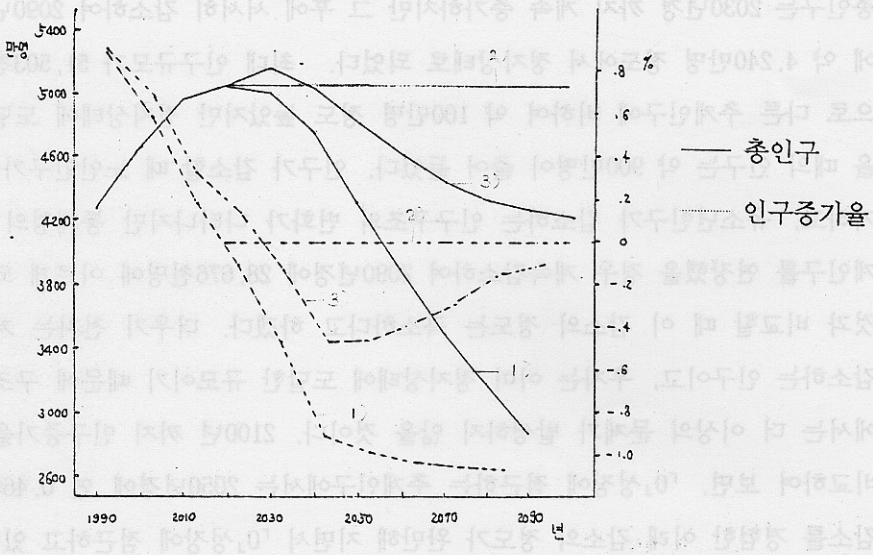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은 총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구의 감소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수준을 조절한 경우가 2021년 이후 인구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추계인구이다. 이 때의 인구는 최대 50,586천명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감소하는 인구현상을 「0」성장으로 올리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게 되므로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젊은 연령층의 인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이다. 2100년의 유소년 및 노년부양비가 각각 22.7과 25.5로서 부양부담이 낮은 편이고, 중위연령이 40.3세로서 비교적 높으나 이 수준을 2020년 이래 유지하게 되므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감소하는 인구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부

담 때문에 2040년경에 TFR이 3.18명이 되어야 하며(<표 5-3>참조) 2050년경에도 TFR이 3.07명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 되어야 하므로 출산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출산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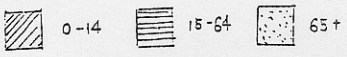
이상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두가지의 추계인구와 장기적으로 「0」성장인구에 점근하는 추계인구를 비교하였다. 2010년부터 합계출산율을 증가시켜 2030년에 대체수준(2.1명)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동일 출산수준을 유지할 때 총인구는 2030년경 까지 계속 증가하지만 그 후에 서서히 감소하여 2090년경에 약 4,240만명 정도에서 정지상태로 되었다. 최대 인구규모가 51,503천명으로 다른 추계인구에 비하여 약 100만명 정도 높았지만 정지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인구는 약 900만명이 줄어 들었다. 인구가 감소할 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유소년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연장했을 경우 계속감소하여 2090년경에 28,676천명에 이르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감소의 정도는 극소하다고 하겠다. 더우기 전자는 계속 감소하는 인구이고, 후자는 이미 정지상태에 도달한 규모이기 때문에 구조상에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100년 까지 인구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0」성장에 점근하는 추계인구에서는 2050년경에 연 0.46%의 감소를 경험한 이래 감소의 정도가 완만해 지면서 「0」성장에 점근하고 있다. 이것은 통계청 추계인구의 연장에서 나타나는 2050년 이후의 1%씩 감소, 2021년 이후 「0」성장인구에서 「0」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높은 합계출산율(2040년의 3.18명)과 비교할 때 그 변화가 극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3> 통계청 추계인구의 연장[1], 2021년 이후 「0」성장인구[2], 및 「0」성장인구에 점근하는 추계인구(중위)[3]의 비교
; 총인구, 인구증가율, 연령별 인구 구조; 1990-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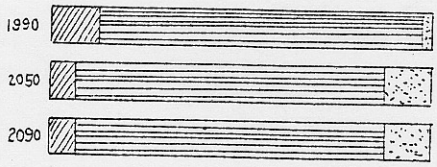
(1)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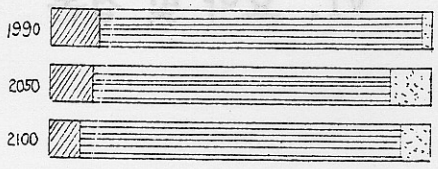
(2) 연령별 인구구조(0-14, 15-64 및 65+)의 추세



1) 통계청 추계인구의 연장



2) 2021년 이후 「0」성장인구



3) 「0」성장인구에 점근하는 추계인구(중위)

그러므로, 인구현상의 변화는 단기간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변화를 유도할 때 사회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의 왜곡이나 역현상을 막을 수 있고 인구현상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강한 남아 선호관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출산수준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장래 사회의 유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우리 나라 장래인구의 불균형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인구현상의 변화가 사회·경제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증가억제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인구구조상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과잉인구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적정인구로서의 「0」성장인구를 추정하고 그 특징을 논의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 장기 인구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가. 인구현상의 변화, 1960-2021

1990년의 우리나라 인구는 42,869천명이었다. 1960년의 인구가 25,012천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30년 동안에 약 18백만 명이 늘어난 셈이다. 「베이비 붐」으로 연간 3%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였던 1960년 이후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과 소자녀관의 형성으로 인구증가율은 1990년에 0.93%까지 하락하였다. 그 동안 합계출산율은 6.0명에서 1990년에는 대체출산수준을 하회하는 1.63명으로 낮아졌다 (<표 2-1> 참조).

출생아 수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1960년에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42.3%였으며, 생산연령인구

(15-64세)는 54.8%,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전체의 2.9%에 불과하였다. 이때의 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가 77.3으로 노년부양비(5.3%)를 합하여 총 부양비는 82.6이었다. 그러나 출생아 수의 정체 내지 감소로 유소년인구의 구성비도 정체(1970년까지) 내지 감소하게 된 반면에 유소년 인구의 편입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는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 5.0%에 이르렀다.

1990년의 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가 각각 37.3과 7.2로서 총 부양비는 44.5가 되었다. 1960년 인구에 비하여 유소년부양비는 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나 노년부양비는 1.9「포인트」증가하였다. 1960년에 비하여 1990년 인구는 생산연령인구가 비대하여졌으므로 유소년과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게 낮아져서 부의 축적이 더욱 유리해진 인구구조가 되었다.

19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용된 장래인구전망에서 2000년의 우리 나라 인구는 연 증가율 0.77%(360천명 증가)인 46,789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표 2-12> 참조). 이와 같은 인구추세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2021년에 우리 나라 인구는 최대 50,586천명에서 연 증가율이「0」에 도달(정확히는 0.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구증가율이「0」에 도달하는 2021년까지 31년 동안의 연령별 인구구성비는 유소년의 경우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 15.8%로 되며, 생산연령인구는 2000년에 72.0%로 최대에 이른 후 서서히 감소하여 2021년에 71.1%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 18.4%에 이를 것이다. 유소년부양비는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 22.2로 되며 반대로 노년부양비는 1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총 부양비는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2000년에 38.8까지 낮아졌다가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40.6이 될 것이다.

나. 인구현상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노령화와 사회보장부담

우리 나라의 인구는 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더욱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1960년의 70여만 명에 불과했던 노령인구가 30년 후인 1990년에는 60년의 거의 3배가 가까운 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로부터 30년 후인 2020년에는 다시 3배에 달하는 6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국가적 사회적 부담은 계속 가중되므로써 앞으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빠른 도시화의 진전은 그간 격심한 이농현상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낳았고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와의 분리현상이 초래되었다. 더욱 출산력저하에 따른 가족규모의 소형화와 근대적 도시생활양식에 의한 핵가족 선호경향은 전통적인 노인의 가족 내 부양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 동시에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간의 분리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고 아울러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 감소로 지위하락에 따른 소외현상은 앞으로의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예고해 주고 있다.

(2) 출산수준의 감소와 신규생산연령인구

196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출생인구의 영향으로 신규생산연

령인구인 15-19세 인구는 1980년경에 정점을 이루나 그 이후는 감소하게 된다. 전체적인 생산연령인구의 증가는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의 점차적인 증가속도의 둔화와 함께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신규생산연령인구로 인한 노동시장의 영향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노동력 공급의 시차를 감안할 때,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노동력 공급상의 문제가 심화된 상태이며, 이 문제는 새로운 노동력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시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3)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

1990년 현재 국민학교 이상의 학령인구는 약 1,342만 명으로 총인구 4,287만 명의 31.3%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실제 취학인구는 1,081만 명으로 총인구의 25.2%에 이르러 국민 4명중 1명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셈이 된다.

그 동안 학령인구는 1980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출산력의 감소로 이 시기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표 4-6> 참조)로 대도시 국민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981년 64.0명에서 1985년에는 60.0명 그리고 1991년에는 50.0명으로 감소되었다(대한민국정부, 1992).

(4) 차별출산력과 인구의 질

출산력 수준의 감소에 따라 부인의 거주지별, 학력수준별로 그 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그 차이는 뚜렷하였다. 생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고학력의 부인들, 그리고 시부의 부인들의 출산수준이 저학력과 군부의 부인들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구정책의 두 가지 기본 목적인 '인구규모의 억제'와 '인구자질의 향상' 중 인구규모의 억제에만 치중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때 인구 규모의 억제는 성공할지라도 인구의 자질은 오히려 낮아질 우려를 낳게 한다.

(5) 인구구조의 변화와 결혼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아선호와 출생아 수의 감소로 출생시의 성비가 116.9(1990년)에 이르렀고, 또 출생아 수가 급속히 감소하는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적령기에 도달할 때에는 먼저 태어난 남자(25-29세) 인구가 여자(20-24세) 인구보다 많게 된다. 이 결과는 2010년경의 결혼적령기 남녀 성비가 128.6(통계청, 1991: 12)으로 불균형이 심화될 때에는 배우자선택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결혼연령은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자의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 또는 정체가 예상된다. '결혼의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인구에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미혼율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문제(예, 알코올 중독, 자살 등)가 늘어나고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T.H.Kim, 1990: 67-69 참조) 인구의 질은 저하될 것이다. 또한, 이 때의 출산수준은 높은 초혼연령, 미혼율의 증가(유배우율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지게 되므로 장래 인구의 성·연령별 구조는 더욱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다. 「0」성장에 접근하는 추계인구

1962년 이래 우리 나라에서 인구증가억제가 경제사회 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수행한 결과 1990년의 인구증가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 인구증가율이 「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현재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약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1.63명이었으며, 이 수준이 지속될 것이므로 인구증가율은 계속 감소하여 2021년이 지나면서 절대인구는 감소하게 되며 2050년 경부터는 매년 약 1%씩 감소하게 될 것이다 (<표 5-2> 참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할 때 1인당 자원 소비량의 증가 보다는 신규노동력의 공급부족, 노동력의 여성화,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며,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로 낮은 출산력과 절대인구의 감소는 경제사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적 부양비를 극소화하고 국민개인당 소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21세기 후반의 인구감소 보다는 매년 0.5% 씩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이번송·안홍식, 1990). 그러나 이 때 우리 나라 총 인구는 2100년에 약 6천만 명이 되고 매년 약 30만명씩 증가하게 되므로 인구과밀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선진국의 인구현상에서 찾을 수 있고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구현상이면서 인구규모가 일정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수월한 인구를 「0」성장인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규모의 급속한 변화,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왜곡 등에 따른 문제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인구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3가지의 대표적인 추계인구를 비교하였다. 3가지의 추계인구는 기존의 통계청 추계인구(1990-2021)를 2090년 까지 연장한 것과 통계청 추계인구에서 「0」성장에 도달한 2021년의 인구(50,578천명)가 그대로 유지할 때 2100년

까지 추계한 인구, 그리고 「0」성장인구에 점근하도록 출산수준을 조절하여 2100년 까지 추계한 인구이다.

통계청 추계인구를 연장한 인구에서는 2021년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경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한다. 낮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게되므로 2090년의 인구부양비가 39.1이고, 중위연령이 46.5세가 되어 노령인구의 비대와 유소년인구의 과소로 노동력 부족과 노인부양부담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총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므로 출산수준을 조절하여 인구의 감소를 막아준 경우가 2021년 이후 인구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추계인구이다. 이 때의 인구는 최대 50,586천명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감소하는 인구현상을 「0」성장으로 올리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게 되므로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젊은 연령층의 인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감소하는 인구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부담 때문에 2040-2050년경에는 TFR을 3명 이상 까지 끌어올려야 하므로 출산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출산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두가지의 추계인구와 장기적으로 「0」성장인구에 점근하는 추계인구를 비교하였다. 2010년부터 합계출산율을 증가시켜 2030년에 대체수준(2.1명)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동일 출산수준을 유지할 때 총인구는 2030년경 까지 계속 증가하지만 그 후에 서서히 감소하여 2090년경에 약 4,240만명 정도에서 정지상태로 되었다.

2100년 까지 인구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0」성장에 점근하는 추계인구에서는 2050년경에 연 0.46%의 감소를 경험한 이래 감소의 정도가 완만해 지면서 「0」성장에 점근하고 있다. 이것은 통계청 추계인구의 연장에서 나타나는 2050년 이후의 1%씩 감소, 2021년 이후 「0」성장인구에서 「0」성

장을 유지하기 위한 높은 합계출산율(3.07명)과 비교할 때 그 변화가 극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구현상의 변화는 단기간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변화를 유도할 때 사회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의 왜곡이나 역현상을 막을 수 있고 인구현상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 인구정책의 방향

출산수준의 급속한 하락으로 나타난 역삼각형 모양의 인구구조에 따라 노인문제와 신규노동력 공급부족, 그리고, 예상되는 인구자질의 퇴보는 인구억제정책을 조기에 성공한 나라의 경우 필연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이다. 인구정책의 효과는 장기간 후에 나타나며, 세대가 바뀜에 따라 그 영향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는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인구규모 자체가 과잉상태에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기 인구전망에 따라 근본적이며 적극적인 인구조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인구의 증가 분을 극소화하면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들은 김태헌(1993)의 결론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끝으로 장기 인구전망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볼 때 한 가임 여성이 평생동안 낳은 자녀수의 변동

과 관계없이 인구증가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결혼연령의 상향 조정과 출산간격의 연장을 들 수 있다. 초혼 연령과 출산간격의 조절이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이용되어야 하나, 우리 나라의 경우 결혼연령은 1990년에 이미 25세를 상회(시부: 25.5세; 군부: 25.1세)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홍문식 외, 1991: 80) 있으므로 더 높은 초혼연령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인구증가 둔화 효과는 초산의 속도가 가속화됨으로써 상쇄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1963-1965년에 결혼한 부인의 33.6%가 결혼 후 1년 내에 출산한데 비하여 1975-1976년에 결혼한 부인은 77.3%가 결혼 후 1년 내에 출산하였다 (이홍탁, 1983: 51-52). 또한,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간격조정을 위한 피임 실천율은 1985년의 경우 4.1%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피임보급은 주로 단산목적에 치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그러므로, 같은 수의 자녀를 갖더라도 출산간격(초산부터)을 늦출 때 합계출산율을 낮추어서 연령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인구증가폭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미 과잉 상태에 있는 인구규모를 연령구조에 영향 없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민정책의 활용이다. 1961년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정식으로 채택된 이래 이민사업이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주요 시책으로 수행되어 그 동안 이민자수는 전체 인구의 약 0.1%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해외 이주허가 건수는 급속히 줄어 들어서, 1986년에 37,097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23,314명만이 이주허가를 받았으며, 이 숫자는 앞으로 2만명 정도 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48-49; 통계청, 1991: 장래인구 추계용 기초자료 참조). 그러나, 해외 이민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구구조의 변동 없이 인구규모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앞으로의 출산에 의한 2차적 인구증

가요인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인구증가억제효과를 배증할 수 있다. 최근 감소한 이민자의 수가 극소하다고 할 지라도 앞으로 매년 2만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민에 의한 직접 인구증가 억제효과와 자연증가에 의한 간접 효과를 합한 총 억제인구규모는 1990년부터 2020년 까지 30년간 718천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태헌, 1993: 〈표 11〉 참조).

셋째,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의 높은 출산수준을 억제하여 전체적인 출산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인구의 「역도태 현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인구억제정책은 다만 평균출산수준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받은 여성들, 도시에 사는 여성들, 생활수준이 높은 여성들부터 출산수준이 감소되어 왔고 또 그 성향이 지속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출산수준이 높은 계층에 대한 출산억제를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면 계층간의 출산수준의 차를 극소화할 것이다. 또한 산모의 성숙, 건강, 산후회복을 고려하여 20대 또는 30대 초에서 3명 이내의 자녀를 2년 이상 터울로 출산할 때 영아 및 모성사망률이 최저가 되므로 (Kim, 1990: CH.4 참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37-42)과 같이 모자보건 내지 가족의 행복이라는 가족계획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가족계획사업의 기본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 출산력의 최소화, 영아 및 모성사망률의 감소 등은 인구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현재 2년 미만의 출산간격을 연장하므로써 평균 출산아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구증가폭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태아의 성을 식별하여 남아를 선별 출산한다고 할 때 이들의 출산수준은 더욱 낮아지고, 계층별 출산수준의 차이는 커질 것이다.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고, 1990년에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령'을 개정하여 태아의 성 식별을 금지하고 있으

나 출생시 성비는 1991년에도 11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1992 참조). 1990년이 말띠 해(경오년)이므로 실제 1990년에 출생한 여아의 출생신고가 1991년에 이루어졌음(통계청, 1992: 1992년도 월별 출생신고 자료 참조)을 감안할 때 남아를 선별하여 출산하는 경향은 줄지 않았다. 그러므로, 태아의 성 선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아들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때 고학력층의 극소한 자녀수를 늘릴 수 있고, 결혼시 성비 불균형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금까지 인구증가억제를 위한 출산조절측면에서 추진되어온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자질, 모자보건 및 사회복지향상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찍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양적 보급의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양적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관리 측면에서는 소홀하였다(홍문식, 1991).

최근에는 정부예산의 삭감으로 양적 보급이 크게 경감되어 질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었으나, 전반적인 사업의 위축을 초래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도 미흡한 실정이다. 실 예로 인공 임신중절 경험률은 1964년 피임 실천율이 1%일 때 약 7%, 1971년 피임 실천율이 25%였을 때 26%, 1978년 피임 실천율이 약 49%일 때 약 48% 그리고 1991년 피임 실천율이 79.4%일 때 53%로 피임 실천율의 증가와 함께 인공 임신중절 경험률도 아직 증가하고 있다.

1991년 조사결과에서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 중 마지막 임신의 46.6%가 원치 않는 임신이었고, 이들 중 81.1%가 인공임신중절로 임신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은 피임 실천율이 거의 상한선에 달했다고는 하나 아직 피임지식이 부정확하거나,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부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질적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가족계획사업은 정부물량축소에 비례한 사업위축이 초래 되어서는 안되며, 피임을 요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적절한 피임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몽·교육 및 지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사업대상도 기혼자만이 아닌 청소년과 미혼남·여에게까지 확대되어 점차 민간주도형 가족계획사업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기적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와 사회에 걸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구교육의 실시이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은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 비롯되는 제2차적 인구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적 제시인데 반하여 인구교육은 장차 인구변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당사자들이 재생산활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교육을 통하여 계층별 출산수준의 차를 줄이고, 단산 목적에만 치중하고 있는 피임 행위를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출산간격 조정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아선호 때문에 태아의 성을 식별하는 것은 윤리적인 면을 차치하고서도 성비를 왜곡시키고 출산수준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인구관을 갖도록 하는데 학교인구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결한 일련의 교육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 주변의 제 현상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구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인구의 생활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대책들은 현재의 인구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앞으로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인구전망(<표 5-2> 참조)에서 우리는 약 1세대 후(2021년 경)부터 절대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또 한 세대가 지날 때(2050년경) 부터 매년 1% 이상의 인구감소를 예상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그 속도가 커질 때를 대

비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대책은 적어도 한 세대(약 30년)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2020년부터 25-34세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면 늦어도 25여년 전인 1995년 경부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 현상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나타날 때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어떤 현상의 변화에 따른 수동적인 대응 보다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능동적인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인구정책도 바람직스러운 인구규모와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정책의 목표인구로 고려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0」성장인구라고 하겠다. 「0」성장인구를 유지할 때 우리는 인구규모의 추가적인 증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절대인구의 감소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0」성장인구에서는 일정한 인구구조가 유지되므로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때 인구현상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인구 현상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앞으로 「0」성장인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련의 구체적인 인구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고갑석·김일현 (1964), 'An abridged life table for the Republic of Korea', 한국통계월보, 6(7-8):12-2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고문사 편집부(1990), 의료관계법규, 고문사.

공세권외 (1983), 한국의 사망력과 사망원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_____ (1992), 1991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부 (1992),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권태환·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권태환·김태헌 (1990), 한국인의 생명표 - 1970-85년의 사망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유경·최인현·정영일 (1987), '결혼력 변동과 출산력',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pp. 84-134,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김남일 (1987), '사망률 변동추이와 전망', 한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pp. 69-93,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김일현·최봉호 (1991), '199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한 장래인구추계와 인구학적 특징' 한국인구학회지, 14(1):70-103.

김태헌 (1989), '우리 나라 성별 사망력의 차이와 사망패턴의 변화' 교수논총, 5(2): 165-196, 한국교원대학교.

_____ (1990a), '차별 출산력의 변동과 그 요인', 우리 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pp. 75-1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 (1990b), '차별 사망력과 경제사회개발, 1970-1986', 우리 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pp. 155-18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 (1993),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회지, 16(2).

대한민국정부 (199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92-1996, 경제기획원.

문교부 (1990), 문교통계연보, 문교부 중앙교육평가원.

문현상외 (1989),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래영 (1985) "장기인구성장과 노동력수급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8(1): 47-65.

보건사회부 (1987)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보건사회부문계획 (1987-1991), 보건사회부

윤종주 (1991) "우리 나라 노인부양구조의 변화", 보건사회논집, 11 (1): 58-81.

이동우 (1973), 'Construction of life tables from the recent Korean censuses' 인구문제논집, 16:65-80.

이번송·안홍식 (1990), 한국의 적정인구 증가율에 관한 연구 -인구부양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홍탁 (1987), 인구학 - 이론과 실제 - ,서울 : 법문사.

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총량부문: 인구분야계획(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대희 외 (1985),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조사통계국 (1971), 한국인의 생명표, 196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_____ (198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인구부문계획,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_____ (1986), 추계인구: 85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초로 한 장기 인구전망, 경제 기획원 조사통계국.

_____ (1988), 1960-1985년 추계인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_____ (1990a), 한국의 사회지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_____ (1990b), 한국인의 생명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통계청 (1991a), 장래인구추계 (1990-2021), 통계청.

_____ (1991b), 1990 인구주택총조사 속보 (2% 표본추출집계결과), 통계청.

_____ (1991c),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_____ (1992a),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_____ (1992b), 1991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_____ (1993),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제7권 산업·직업, 통계청

홍문식 외 (1991) 2000년대를 향한 인구정책구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rriaga, E. E. (1984), 'Measuring and explaining the change in life expectancies' Demography, 21(1):83-96.

Cloud, Preston (1971), "Resources Population and Quality of Life" S. Fred Singer(ed), Is There an Optimum Level of Population ?, pp.8-41, New York : McGraw-Hill.

Coale, et al. (1980), Estimation on Recent Trends in Fertility and Mort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Freedman R. (1986) "Policy options in Taiwan after the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 (1): 77-100.

Goldman, N. (1980), 'Far eastern pattern of mortality', Population Studies, 34(1):5-19.

Ishi, N-G (1972), An Analysis of Population Growth in Korea, Tokyo: Keisousobo Co..

Kim, T. H. (1990),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h, K. S. and D. P. Smith (1970), The Korean 1968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Survey, National Family Planning Council (NFPC).

Leete, Richard (1992) PEOPLE - A user frendly package for making national and sub-national popuation projection, Overseas Development Administration, United Kingdom and Economic Planning Unit, Kuala Lumpur, Malaysia.

Moon, H.S. et al(1989) The 1988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The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Natonal Bureau of Statistics (NBOS) (1982), The Life Table of Korea (1978-79),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7) World Fertility Survey: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4, First Country Report,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7.

Park, B. T., et al (1979),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Preston, S. H. (1980), 'Cause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declines in less-developed countries', in R. A. Easterlin (ed.), Population and Economic Change in Less-Developed Countr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89-360.

Sauvy, Alfred (1969), General Theory of Population, London : Methuen & Co.

United Nations (1982), Levels and Trends of Mortality since 1950,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1993),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the World Popul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1989), Trends in Population Policy, New York : United Nations.

Weeks, John R. (1986),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Belmont: Wodsworth Inc.

〈 附　　錄 〉

I. 年度別 總人口 및 主要人口指標

II. 年度別 年齡別 人口(中位推計)

I. 연도별 총인구 및 주요인구지표

1. 고위추계

연도	총인구 (천명)	인구증가율 (%)	인구구성비(%) 0-14	인구구성비(%) 60+	인구부양비(%) 0-14	인구부양비(%) 65+	인구부양비(%) 계	성비	중위연령 (세)
1990	42,869	.92	25.8	7.7	37.4	7.2	44.6	101.3	26.9
1995	44,869	.84	23.2	9.0	32.6	8.0	40.7	101.5	29.3
2000	46,792	.73	21.2	10.7	29.4	9.5	38.9	101.9	31.6
2005	48,544	.62	20.4	12.2	28.6	11.6	40.2	102.2	33.9
2010	50,075	.47	19.6	13.8	27.7	13.3	41.0	102.4	36.3
2015	51,269	.35	18.8	15.8	26.6	15.2	41.8	102.5	38.3
2020	52,170	.25	18.1	19.2	26.1	17.8	43.9	102.6	39.9
2025	52,830	.12	17.8	22.3	26.6	22.7	49.3	102.5	41.3
2030	53,138	-.03	17.8	24.8	27.6	27.5	55.1	102.3	41.9
2035	53,058	-.20	17.9	27.0	28.7	31.5	60.2	102.0	42.0
2040	52,526	-.30	18.0	27.8	29.5	35.0	64.5	101.9	41.9
2045	51,733	-.34	18.0	28.0	29.9	35.9	65.8	101.8	41.6
2050	50,868	-.34	18.2	27.2	30.3	36.0	66.3	101.9	41.2
2055	50,016	-.29	18.5	26.3	30.4	33.8	64.3	102.0	40.6
2060	49,292	-.25	18.8	25.7	30.7	32.4	63.1	102.2	40.0
2065	48,684	-.19	19.0	25.2	30.9	31.4	62.3	102.3	39.7
2070	48,234	-.15	19.1	24.9	30.8	30.8	61.7	102.3	39.5
2075	47,876	-.12	19.1	24.5	30.7	30.4	61.1	102.2	39.4
2080	47,591	-.10	19.1	24.2	30.7	29.8	60.4	102.1	39.3
2085	47,358	-.09	19.2	24.1	30.7	29.3	60.1	102.0	39.2
2090	47,153	-.08	19.3	24.1	30.9	29.3	60.1	102.0	39.1
2095	46,966	-.08	19.3	24.1	30.8	29.4	60.2	102.0	39.1
2100	46,786		19.2	24.1	30.8	29.4	60.2	101.9	39.2

2. 중위추계

연도	총인구 (천명)	인구증가율 (%)	인구구성비(%)		인구부양비(%)			성비	중위연령 (세)
			0-14	60+	0-14	65+	계		
1990	42,869	.92	25.8	7.7	37.4	7.2	44.6	101.3	26.9
1995	44,869	.84	23.2	9.0	32.6	8.0	40.7	101.5	29.3
2000	46,792	.69	21.2	10.7	29.4	9.5	38.9	101.9	31.6
2005	48,441	.50	20.3	12.2	28.4	11.6	39.9	102.2	34.0
2010	49,675	.33	19.0	13.9	26.5	13.3	39.9	102.3	36.5
2015	50,493	.21	17.5	16.1	24.5	15.2	39.7	102.4	38.8
2020	51,018	.14	16.5	19.6	23.2	17.9	41.1	102.5	40.7
2025	51,374	.05	16.2	22.9	23.8	23.0	46.8	102.4	42.2
2030	51,503	-.11	16.7	25.5	25.6	28.2	53.8	102.1	43.2
2035	51,214	-.33	17.2	28.0	27.5	32.7	60.2	101.8	43.5
2040	50,364	-.46	17.3	29.0	28.6	36.7	65.3	101.6	43.6
2045	49,218	-.48	17.2	29.5	28.6	37.9	66.4	101.6	43.6
2050	48,041	-.46	17.2	28.8	28.8	38.3	67.0	101.6	43.1
2055	46,949	-.40	17.8	28.0	29.5	36.4	65.9	101.7	42.1
2060	46,015	-.38	18.5	27.5	30.6	35.3	65.9	101.8	41.0
2065	45,157	-.33	18.9	26.9	31.3	34.6	65.9	102.0	40.3
2070	44,426	-.28	18.8	26.2	31.1	33.9	64.9	102.0	40.1
2075	43,817	-.21	18.7	25.3	30.5	32.4	62.9	101.9	40.0
2080	43,358	-.15	18.8	24.5	30.3	30.6	61.0	101.9	39.6
2085	43,037	-.11	19.2	24.1	30.7	29.4	60.0	101.9	39.2
2090	42,780	-.10	19.4	24.2	31.0	29.1	60.1	102.0	39.0
2095	42,588	-.09	19.3	24.4	31.0	29.6	60.6	102.0	39.1
2100	42,387		19.1	24.3	30.8	30.0	60.7	102.0	39.3

3. 저위추계

연도	총인구 (천명)	인구증가율 (%)	인구구성비(%) 0-14	60+	인구부양비(%) 0-14	65+	계	성비	중위연령 (세)
1990	42,869		25.8	7.7	37.4	7.2	44.6	101.3	26.9
		.92							
1995	44,869		23.2	9.0	32.6	8.0	40.7	101.5	29.3
		.84							
2000	46,792		21.2	10.7	29.4	9.5	38.9	101.9	31.6
		.69							
2005	48,441		20.3	12.2	28.4	11.6	39.9	102.2	34.0
		.50							
2010	49,675		19.0	13.9	26.5	13.3	39.9	102.3	36.5
		.29							
2015	50,406		17.4	16.1	24.2	15.2	39.5	102.4	38.8
		.11							
2020	50,680		15.9	19.8	22.3	17.9	40.1	102.4	40.9
		.00							
2025	50,690		15.1	23.2	21.9	23.0	44.9	102.3	42.7
		-.09							
2030	50,458		15.1	26.1	22.8	28.3	51.1	102.0	44.0
		-.23							
2035	49,887		15.7	28.7	24.7	33.0	57.7	101.7	44.5
		-.41							
2040	48,882		16.2	29.9	26.6	37.5	64.1	101.5	44.8
		-.55							
2045	47,555		16.5	30.5	27.4	39.3	66.7	101.4	44.9
		-.63							
2050	46,091		16.6	30.0	27.9	40.1	68.0	101.4	44.9
		-.63							
2055	44,670		16.9	29.5	28.1	38.4	66.5	101.4	44.2
		-.56							
2060	43,443		17.4	29.1	29.0	37.6	66.6	101.6	43.1
		-.50							
2065	42,369		18.1	28.7	30.3	37.3	67.6	101.7	41.8
		-.44							
2070	41,451		18.4	28.1	31.0	36.9	67.9	101.6	41.1
		-.41							
2075	40,618		18.6	27.1	30.9	35.8	66.7	101.6	40.6
		-.36							
2080	39,900		18.6	25.8	30.6	33.7	64.3	101.5	40.3
		-.28							
2085	39,343		18.8	24.9	30.4	31.4	61.8	101.6	39.8
		-.20							
2090	38,943		19.1	24.5	30.7	30.0	60.7	101.8	39.4
		-.15							
2095	38,653		19.3	24.4	30.9	29.6	60.6	101.9	39.2
		-.12							
2100	38,421		19.2	24.4	30.9	29.8	60.7	102.0	39.2

II. 연도별 연령별 인구(중위추계)

(단위 : 명)

연 령	1990			1995		
	남	여	계	남	여	계
0-4	1732971	1546701	3279672	1767732	1565241	3332973
5-9	1983931	1851579	3835510	1723837	1539315	3263152
10-14	2044337	1917732	3962069	1973855	1842741	3816596
15-19	2296976	2167039	4464015	2033248	1908581	3941829
20-24	2205154	2083470	4288624	2281250	2151796	4433046
25-29	2181042	2095146	4276188	2184654	2066956	4251610
30-34	2089064	2007325	4096389	2156933	2081683	4238616
35-39	1554173	1463766	3017939	2061445	1991536	4052981
40-44	1284426	1219208	2503634	1523004	1448754	2971758
45-49	1121953	1080199	2202152	1242475	1201028	2443503
50-54	1020714	1018077	2038791	1069397	1058148	2127545
55-59	748808	855540	1604348	954049	987639	1941689
60-64	496492	659122	1155614	677355	818010	1495365
65-69	379810	524068	903878	421198	612053	1033252
70-74	234037	361926	595963	293439	460486	753924
75+	194293	450204	644497	239507	531171	770678
계	21568182	21301100	42869284	22603376	22265140	44868512

연 령	2000			2005		
	남	여	계	남	여	계
0-4	1768616	1566180	3334796	1669955	1519118	3189073
5-9	1759920	1558642	3318562	1761827	1560315	3322142
10-14	1715635	1531729	3247364	1752428	1551539	3303967
15-19	1964551	1834468	3799019	1707719	1524503	3232222
20-24	2021553	1895060	3916613	1954867	1821845	3776712
25-29	2264578	2136487	4401065	2009116	1881455	3890571
30-34	2165775	2055200	4220975	2249523	2125804	4375327
35-39	2134801	2067427	4202228	2148396	2042481	4190877
40-44	2029496	1974647	4004143	2108948	2051955	4160903
45-49	1482857	1430089	2912946	1987874	1952925	3940799
50-54	1194535	1179368	2373903	1435956	1407337	2843293
55-59	1010243	1028806	2039049	1137724	1148622	2286346
60-64	874258	947638	1821896	934069	989064	1923133
65-69	585530	764389	1349919	765538	889368	1654906
70-74	334485	542302	876787	474608	681605	1156212
75+	310029	663034	973063	383007	811182	1194189
계	23616862	23175464	46792328	24481552	23959120	48440672

연 령	2010			2015		
	남	여	계	남	여	계
0-4	1518373	1419936	2938309	1422408	1330179	2752587
5-9	1664042	1513899	3177941	1513094	1415233	2928327
10-14	1754738	1553616	3308354	1657395	1507567	3164962
15-19	1744960	1544673	3289633	1747705	1547058	3294763
20-24	1699599	1512932	3212531	1737424	1533397	3270821
25-29	1944313	1809154	3753467	1690752	1501273	3192025
30-34	1997838	1872344	3870182	1934576	1800892	3735468
35-39	2234681	2113944	4348625	1985965	1862099	3848064
40-44	2127015	2028670	4155685	2215396	2100961	4316357
45-49	2073570	2031595	4105165	2095613	2009845	4105458
50-54	1934495	1925588	3860083	2024216	2004776	4028992
55-59	1376681	1372764	2749445	1860865	1880288	3741153
60-64	1061015	1105869	2166884	1288987	1322949	2611936
65-69	827101	931213	1758314	947071	1043085	1990156
70-74	630365	797773	1428138	690164	838632	1528796
75+	533288	1019353	1552641	737608	1245588	1983196
계	25122072	24553324	49675396	25549238	24943822	50493060

연 령	2020			2025		
	남	여	계	남	여	계
0-4	1416762	1324910	2741672	1486560	1390204	2876764
5-9	1417444	1325758	2743202	1411877	1320524	2732401
10-14	1506873	1409223	2916096	1411406	1319889	2731295
15-19	1650750	1501295	3152045	1500427	1403114	2903541
20-24	1740584	1535964	3276548	1643889	1490299	3134188
25-29	1729210	1521889	3251099	1732712	1524453	3257165
30-34	1682885	1493836	3176721	1721810	1514417	3236227
35-39	1924290	1791175	3715465	1674063	1484938	3159001
40-44	1970749	1850726	3821475	1910573	1780118	3690691
45-49	2187283	2082121	4269404	1947729	1833765	3781494
50-54	2051157	1983629	4034786	2143748	2055047	4198795
55-59	1949994	1957890	3907884	1977136	1937214	3914350
60-64	1743432	1812840	3556272	1826988	1887723	3714711
65-69	1153473	1248438	2401911	1560519	1711317	3271836
70-74	795300	940768	1736068	969510	1126130	2095640
75+	898413	1418813	2317226	1068108	1608046	2676154
계	25818598	25199276	51017872	25987054	25387198	51374252

연 령	2030			2035		
	남	여	계	남	여	계
0-4	1549850	1449409	2999259	1526019	1427117	2953136
5-9	1481571	1385727	2867298	1544766	1444850	2989616
10-14	1405843	1314657	2720500	1475492	1379821	2855313
15-19	1405044	1313846	2718890	1399486	1308618	2708104
20-24	1493780	1392231	2886011	1398532	1303064	2701596
25-29	1636203	1478854	3115057	1486384	1380928	2867312
30-34	1725303	1516977	3242280	1629023	1471455	3100478
35-39	1712861	1505465	3218326	1716342	1508018	3224360
40-44	1661755	1475248	3137003	1700334	1495683	3196017
45-49	1888168	1763688	3651856	1641893	1461107	3103000
50-54	1908798	1809640	3718438	1850381	1740394	3590775
55-59	2066453	2007046	4073499	1839811	1767088	3606899
60-64	1852433	1867771	3720204	1936165	1935156	3871321
65-69	1635360	1782071	3417431	1658151	1763219	3421370
70-74	1311819	1543947	2855766	1374758	1607813	2982571
75+	1288270	1873350	3161620	1662926	2379227	4042153
계	26023510	25479928	51503436	25840464	25373560	51214024

연 령	2040			2045		
	남	여	계	남	여	계
0-4	1444995	1351321	2796316	1409459	1318079	2727538
5-9	1520972	1422588	2943560	1440068	1346898	2786966
10-14	1538646	1438907	2977553	1514867	1416660	2931527
15-19	1469074	1373734	2842808	1532172	1432777	2964949
20-24	1392982	1297842	2690824	1462470	1362884	2825354
25-29	1391320	1291891	2683211	1385780	1286677	2672457
30-34	1479559	1373693	2853252	1384720	1284805	2669525
35-39	1620378	1462617	3082995	1471404	1365116	2836520
40-44	1703796	1498224	3202020	1608372	1453026	3061398
45-49	1680078	1481388	3161466	1683504	1483910	3167414
50-54	1608840	1441404	3050244	1646291	1461445	3107736
55-59	1783460	1699380	3482840	1550459	1407032	2957491
60-64	1723694	1703607	3427301	1670867	1638271	3309138
65-69	1733150	1826888	3560038	1542840	1608107	3150947
70-74	1393924	1590796	2984720	1456995	1648268	3105263
75+	1902756	2722444	4625200	2040111	2904133	4944244
계	25387624	24976724	50364348	24800380	24418088	49218468

연 령	2050			2055		
	남	여	계	남	여	계
0-4	1435430	1342374	2777804	1480628	1384655	2865283
5-9	1404585	1313702	2718287	1430518	1337963	2768481
10-14	1434016	1341015	2775031	1398556	1307839	2706395
15-19	1508414	1410545	2918959	1427634	1334957	2762591
20-24	1525479	1421859	2947338	1501755	1399653	2901408
25-29	1455135	1351623	2806758	1518022	1410513	2928535
30-34	1379194	1279600	2658794	1448384	1344438	2792822
35-39	1376877	1276466	2653343	1371368	1271274	2642642
40-44	1460237	1355960	2816197	1366242	1267705	2633947
45-49	1589056	1439051	3028107	1442434	1342715	2785149
50-54	1649651	1463937	3113588	1557018	1419611	2976629
55-59	1586586	1426627	3013213	1589828	1429064	3018892
60-64	1452436	1356166	2808602	1486304	1375075	2861379
65-69	1495523	1546374	3041897	1299874	1279824	2579698
70-74	1296952	1450785	2747737	1257160	1395061	2652221
75+	2158653	3056683	5215336	2096781	2976400	5073181
계	24208224	23832768	48040992	23672508	23276748	46949252

연 령	2060			2065		
	남	여	계	남	여	계
0-4	1487436	1391024	2878460	1446970	1353169	2800139
5-9	1475648	1380186	2855834	1482446	1386545	2868991
10-14	1424472	1332086	2756558	1469573	1374283	2843856
15-19	1392205	1301805	2694010	1418098	1326034	2744132
20-24	1421089	1324151	2745240	1385711	1291037	2676748
25-29	1494344	1388340	2882684	1413834	1312947	2726781
30-34	1511123	1403229	2914352	1487500	1381092	2868592
35-39	1440332	1335939	2776271	1502864	1394573	2897437
40-44	1360764	1262537	2623301	1429339	1326913	2756252
45-49	1349400	1255122	2604522	1343978	1249993	2593971
50-54	1413215	1324418	2737633	1321968	1237865	2559833
55-59	1500470	1385722	2886192	1361752	1292643	2654395
60-64	1489343	1377427	2866770	1405573	1335604	2741177
65-69	1330209	1297690	2627899	1332931	1299912	2632843
70-74	1092627	1154460	2247087	1118138	1170587	2288725
75+	2034671	2883276	4917947	1876950	2626051	4503001
계	23217348	22797412	46014760	22797624	22359248	45156872

연 령	2070			2075		
	남	여	계	남	여	계
0-4	1406447	1315261	2721708	1403972	1312946	2716918
5-9	1442040	1348743	2790783	1401577	1310888	2712465
10-14	1476366	1380638	2857004	1435987	1342860	2778847
15-19	1463160	1368200	2831360	1469947	1374551	2844498
20-24	1411567	1315239	2726806	1456565	1357356	2813921
25-29	1378524	1279881	2658405	1404330	1304048	2708378
30-34	1407181	1305826	2713007	1371954	1272816	2644770
35-39	1479319	1372496	2851815	1399263	1297431	2696694
40-44	1491520	1385285	2876805	1468107	1363307	2831414
45-49	1411853	1313886	2725739	1473398	1371820	2845218
50-54	1316651	1232796	2549447	1383221	1295931	2679152
55-59	1273731	1208013	2481744	1268602	1203057	2471659
60-64	1275528	1245786	2521314	1193012	1164121	2357133
65-69	1257899	1260395	2518294	1141418	1175531	2316949
70-74	1120427	1172593	2293020	1057327	1136923	2194250
75+	1815799	2492745	4308544	1786269	2418273	4204542
계	22428012	21997784	44425796	22114950	21701860	43816808

연 령	2080			2085		
	남	여	계	남	여	계
0-4	1428526	1335915	2764441	1443121	1349568	2792689
5-9	1399106	1308576	2707682	1423623	1331513	2755136
10-14	1395550	1305027	2700577	1393081	1302717	2695798
15-19	1429603	1336800	2766403	1389202	1298996	2688198
20-24	1463343	1363700	2827043	1423056	1325992	2749048
25-29	1449241	1346104	2795345	1456005	1352438	2808443
30-34	1397700	1296942	2694642	1442504	1338928	2781432
35-39	1364152	1264509	2628661	1389813	1288570	2678383
40-44	1388502	1288576	2677078	1353589	1255801	2609390
45-49	1450224	1350006	2800230	1371433	1275837	2647270
50-54	1443583	1353177	2796760	1420855	1331623	2752478
55-59	1332818	1264789	2597607	1391046	1320764	2711810
60-64	1188204	1159339	2347543	1248404	1218908	2467312
65-69	1067508	1098369	2165877	1063201	1093850	2157051
70-74	959372	1060320	2019692	897216	990669	1887886
75+	1722862	2345473	4068335	1615442	2238921	3854363
계	21880294	21477622	43357912	21721592	21315096	43036688

연 령	2090			2095		
	남	여	계	남	여	계
0-4	1427284	1334753	2762037	1397254	1306661	2703915
5-9	1438197	1345148	2783345	1422383	1330353	2752736
10-14	1417582	1325640	2743222	1432146	1339266	2771412
15-19	1386735	1296687	2683422	1411214	1319593	2730807
20-24	1382712	1288231	2670943	1380249	1285925	2666174
25-29	1415797	1314785	2730582	1375531	1277079	2652610
30-34	1449253	1345251	2794504	1409139	1307661	2716800
35-39	1434471	1330444	2764915	1441197	1336751	2777948
40-44	1379106	1279755	2658861	1423512	1321442	2744954
45-49	1336877	1243308	2580185	1362132	1267082	2629214
50-54	1343578	1258334	2601912	1309686	1226191	2535877
55-59	1369122	1299688	2668810	1294577	1228027	2522604
60-64	1302991	1272922	2575913	1282438	1252584	2535022
65-69	1117122	1150134	2267256	1166016	1201170	2367186
70-74	893594	986591	1880185	938940	1037396	1976336
75+	1512914	2118977	3631891	1457693	2046981	3504674
계	21607336	21190648	42797984	21504108	21084162	42588272

연 령	2100		
	남	여	계
0-4	1382196	1292575	2674771
5-9	1392398	1302300	2694698
10-14	1416343	1324481	2740824
15-19	1425766	1333209	2758975
20-24	1404693	1308805	2713498
25-29	1373072	1274776	2647848
30-34	1368969	1270018	2638987
35-39	1401215	1299261	2700476
40-44	1430200	1327721	2757921
45-49	1406085	1308456	2714541
50-54	1334456	1249683	2584139
55-59	1261883	1196598	2458481
60-64	1212554	1183434	2395988
65-69	1147606	1181954	2329560
70-74	980058	1083463	2063521
75+	1464158	2048922	3513080
계	21401652	20985656	42387308

年齢	2080			2085		
	人	女	男	人	女	男
0-4	1427284	1394753	2822037	1397254	1366851	2764105
5-9	1438197	1405148	2843345	1422383	1390353	2812736
10-14	1417382	1385040	2802422	1423146	1393206	2816352
15-19	1380735	1350697	2731432	1411214	1381923	2793137
20-24	1382712	1350231	2732943	1380249	1350525	2730774
25-29	1418747	1384785	2803532	1375731	1347079	2722810
30-34	1415253	1384251	2799504	1409139	1379681	2788820
35-39	1434171	1390444	2824615	1441197	1396751	2837948
40-44	1479106	1427955	2907061	1423512	1381442	2804954
45-49	1339877	1243308	2583185	1382132	1287082	2669214
50-54	1343578	1250334	2593912	1300586	1208031	2508617
55-59	1300122	1200588	2500710	1298477	1205604	2504081
60-64	1302961	1179959	2482920	1252584	1134027	2386611
65-69	1171727	1050134	2221861	1252584	1122170	2374754
70-74	805941	686591	1492532	1080185	920910	2001095
75+	1012914	811877	1824791	1457093	1049981	2507074
计	21807536	21180618	42988154	21804108	21068102	42872210

年齢	2100		
	人	女	男
0-4	1382198	1325275	2707473
5-9	1392308	1302300	2694608
10-14	1418343	1324481	2740824
15-19	1425766	1333209	2758975
20-24	1401691	1308805	2710496
25-29	1373072	1274776	2647848
30-34	1368969	1270018	2638987
35-39	1401215	1299261	2700476
40-44	1430200	1327121	2757321
45-49	1400985	1303436	2714421
50-54	1341456	1246093	2587549
55-59	1301864	1196306	2498170
60-64	1271554	1163434	2434988
65-69	1147096	1061064	2208160
70-74	980105	904052	1884157
75+	1304158	1204852	2509010
计	21410452	20208305	41618757

1993년 12월 일 펴냄

1990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4－1)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

펴낸곳 : 통 계 청